

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arts change the world

# 문화 예술정책 현황진단 연구

2017. 5

문화예술정책 현황진단 연구

2017년 5월 인쇄

2017년 5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전화 061-900-21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http://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mailto: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정책 현황진단 연구

/ 2017. 05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예술정책 현황진단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주관기관 : 한국정책학회

연구책임자 :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박치성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명성준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 백두산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은경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2장	문화예술정책 현황분석	
	제1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황	9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의	10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황	
	제2절 : 한국의 문화예술정책 공과분석	14
	1. 문화예술정책 변천과정	14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정책추진 분석	38
	제3절 소결	45
제3장	내외부 환경분석	
	제1절 : 문화예술 동향	51
	1. 가계부문	51
	2. 공공부문	52
	3. 문화예술산업 부문	55
	4. 동향정리 및 시사점	56
	제2절 : 외부환경분석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58
	1.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58
	2. 제4차 산업혁명과 문화예술분야의 영향	62
	제3절 : 내부환경분석 : 문예위 내부 의견 수렴	67
	1. 내부 의견 수렴 과정 및 사업 구조	67
	2. 단위사업별 비교 분석	70
	3. 집단별 비교 분석	73
	4. 세부사업별 비교 분석	77
	제4절 : 소결	84

제4장	문화예술정책 협력체계 분석	
제1절	문화예술 정책 유관기관 현황	89
1.	문화예술정책 유관기관 현황 개관 및 분석대상 설정	89
제2절	기관별 사업 현황	97
1.	기관별 추진사업 및 특징	110
제3절	문화예술 유관기관 정책추진체계 분석	131
1.	정책추진체계 분석을 위한 접근 기준	131
2.	분석결과	137
제4절	소결	148
제5장	주요 선진국 문화예술지원기구 운영사례 분석	
제1절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153
제2절	미국예술위원회(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159
제3절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163
제4절	캐나다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167
제5절	시사점	170
제6장	문화예술 지원체계 발전방향	
제1절	외부 전문가 조사	177
1.	문화예술의 개념	177
2.	미래에 예상되는 문화예술의 역할	178
3.	미래의 위원회 중점 추진사항	179
4.	미래 예술위원회 역할	181
제2절	문화예술정책 추진방향	184
1.	문화예술정책 개선방향	184
2.	개선 시 고려사항	187

## 표목차

<표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략목표/과제	11
<표 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 수입	13
<표 2-3>	문화예술기금 운용현황	13
<표 2-4>	문체부 정원 현황(2016년 현재)	20
<표 2-5>	문화행정조직 변천 연혁	21
<표 2-6>	기획재정부 지정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22
<표 2-7>	문체부 산하 주요 단체법인	22
<표 2-8>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산업 분야 산하기관 별 문체부 담당 부서 현황	23
<표 2-9>	문체부 소관법령 현황	23
<표 2-10>	문체부 각 실별 소관 법령 내역	24
<표 2-11>	문화예술 기능, 관련 기구별 인력	25
<표 2-12>	2005년 이후 문화예술정책 주요 내용	25
<표 2-13>	문화예술분야 법률 제개정 현황	35
<표 2-14>	문화예술관광체육 부문 재정변동 추이(2005-2014)	38
<표 2-15>	문예진흥기금 사업 체계 및 예산편제의 변화(2006~2016)	40
<표 2-16>	문화예술진흥기금 분야별 지원실적(2974-2015)	41
<표 2-17>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현황	42
<표 3-1>	국내 문화제정 변화	54
<표 3-2>	산업혁명의 단계별 특성	59
<표 3-3>	문화예술위원회 주요사업 구조	67
<표 3-4>	인구통계학적 특성	68
<표 3-5>	전략적 중요도 기술통계 (파견직 포함)	70
<표 3-6>	전략적 중요도 기술통계 (파견직 미포함)	70
<표 3-7>	역량 기술통계 (파견직 포함)	71
<표 3-8>	역량 기술통계 (파견직 미포함)	71
<표 3-9>	전략적 중요도 * 역량 (파견직 포함)	72

<표 3-10> 전략적 중요도 * 역량 (파견직 미포함)	72
<표 3-11> 근무기간 재코딩	73
<표 3-12> 근무기간에 따른 차이 분산분석	74
<표 3-13> 직위에 따른 구분	75
<표 3-14> 직위에 따른 차이 분산분석	75
<표 3-15> 재직형태에 따른 구분	76
<표 3-16> 재직형태에 따른 차이 분산분석	76
<표 3-17> 세부사업별 전략적 중요도 (파견직 포함)	78
<표 3-18> 세부사업별 전략적 중요도 (파견직 미포함)	79
<표 3-19> 세부사업별 역량 (파견직 포함)	80
<표 3-20> 세부사업별 역량 (파견직 미포함)	81
<표 4-1>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현황	93
<표 4-2> 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서별 산하 공공기관 현황	94
<표 4-3> 문화예술정책 유관기관 정리	96
<표 4-4> 한국문화번역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97
<표 4-5> 아시아문화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98
<표 4-6> 정동극장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98
<표 4-7> 예술경영지원센터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99
<표 4-8> 한국문화원연합회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99
<표 4-9> 예술의 전당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0
<표 4-10> 한국문화원연합회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1
<표 4-1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1
<표 4-12>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2
<표 4-13>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3
<표 4-14>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4
<표 4-15> 예술인복지재단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5
<표 4-16>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5

<표 4-1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6
<표 4-18> 한국문화정보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7
<표 4-19> 국악방송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7
<표 4-20>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8
<표 4-21>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9
<표 4-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9
<표 4-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10
<표 4-24> 문화예술 유관기관 세부사업 내용	119
<표 4-25> 창작지원 관련 사업분류	135
<표 4-26> 향유 관련 사업분류	136
<표 4-27> 유사 프로그램/사업으로 관련되는 기관	139
<표 4-28> 유사한 프로그램 내용 정리	140
<표 4-29> 관련된 프로그램/사업을 제공하는 기관	143
<표 4-30>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 정리	144
<표 4-31> 중복 프로그램/사업 관련 기관	146
<표 5-1> 영국 예술위원회 미션·비전·전략목표	154
<표 5-2> 미국 예술위원회 미션·비전·전략목표	159
<표 5-3> 호주 예술위원회 미션·비전·전략목표	164
<표 5-4> 캐나다 예술위원회 미션·비전·전략목표	167
<표 5-5> 주요국가 예술위원회 사업영역 비교	172
<표 6-1>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예술위원회의 역할	182

##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체계도	6
[그림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2017년 2월 현재)	12
[그림 2-2] 문체부 조직도(2016년 현재)	20
[그림 2-3] 문화예술 관련 법 체계도	24
[그림 3-1] 문화여가비 지출	51
[그림 3-2] 문화예술관람률 추이 변화(%)	52
[그림 3-3] 국가별 GDP 대비 정부 문화지출 비율(%)	53
[그림 3-4]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별 예산점유율(2006-2014년)	55
[그림 3-5] Smart America 개요	60
[그림 3-6] 독일 Industrie 4.0 개요	61
[그림 3-7] 전략적 중요도(가로) x 역량(세로) (파견직 포함)	82
[그림 3-8] 전략적 중요도(가로) x 역량(세로) (파견직 미포함)	83
[그림 4-1] 문화예술정책실 조직도	90
[그림 4-2] 문화콘텐츠산업실 조직도	91
[그림 4-3] 창작지원과 향유지원 프로그램의 선순환 구조	136
[그림 5-1] 영국 예술위원회 비전달성을 위한 목표 간 관계	155
[그림 5-2] 미국 연방예술기금이 바라본 문화생태계	160
[그림 6-1] 현행 문화예술지원 체제 구조	186
[그림 6-2] 통합적 문화예술 지원체제 구조	187

# 제1장

## 서론

제1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이 갖는 경제적·사회적 가치와 효과가 다원화되고 그 역할이 증명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은 이미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문화예술 분야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문체부 및 산하 공공기관들에 의해 다양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은 33개에서 알 수 있듯이(2017년 2월 기준), 그 간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들이 많이 설립되고 통합되면서 운영되어 왔음. 이들 공공기관은 오래된 기관부터 최근에 설립된 기관까지 설립연도가 다양하며,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등도 세분화되어 있음
- 이러한 경향은 공공기관의 양적 비대화라는 비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분야별, 세부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 그러나 문화예술 공공기관들의 양적 성장에 대비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어떻게 공공기관들 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보다 증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음
- 문화예술 유관 공공기관들의 바람직한 역할 강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문화예술 정책추진 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단이 요구됨
- 특히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여 문화예술정책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통상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에서 언급되는 쟁점은 유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기관 간 기능중복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불편화, 기계적 업무분장으로 인한 사업 간 단절 및 연계성 미흡 등임
-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유사한 공공기관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장르에 기초한 기초예술과 콘텐츠, 영화 등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능중복이 있다고 해서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유사기능이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을 경우 비핵심업무의 기관 간 중복수행이 발생할 수 있고, 기관 간 수평적 업무협력 체계가 약해져 결국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곤란해질 수 있음
- 또한 한정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체계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예술지원체계는 기초예술 분야별 창작지원부터 향유확대, 예술의 산업화까지 이들 분야 간 추진 사업들이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그 출발점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분야 유관기관들의 정책 추진체계를 살펴보고,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지원체계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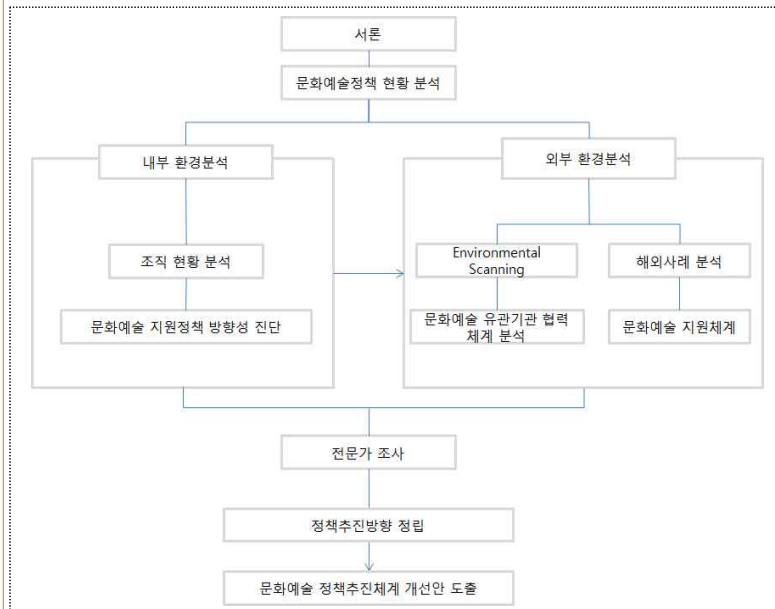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시간적 범위로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위원회로 전환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이며, 내용적 범위는 지난 10여년 간의 문화예술정책의 공과분석, 문체부 산하 유관기관 협력체계 진단,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예술위원회 보편적인 사업영역의 도출, 문화예술 지원체계 발전방향 제안 등임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함. 미래의 적절한 문화예술 정책추진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조사를 진행함
- 첫째, 지나온 정책의 공과분석임. 지난 10년 간 문화예술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정책변동과정과 정책 성과, 공백 또는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함
  - 예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로 변화한 뒤 운영한 사업 등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정리를 통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재조명하고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함
- 둘째, 내부환경분석으로 예술위원회 조직현황분석을 통해 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진단함. 구체적으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미래 트렌드 등 외부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향후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도출함
- 셋째, 외부환경분석은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됨
  - 먼저, 환경 분석(Environmental scanning)을 통해 문화예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분석함. 분석대상인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정하여(20여개) 이들 기관들의 설립목적, 주요기능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해 진단함
    - 기관별로 추진되는 주요사업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유관기관 정책추진체계를 살펴볼 때 사업들을 획일적인 범주로 재분류하기가 매우 어려움. 따라서,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준거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유관기관의 정책추진체계를 살펴보기 위한 준거기준으로서 예술위원회의 사업을 중심으로 접근함. 예술위원회 주요기능은 기초예술 분야의

모든 장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및 30조), 문화예술정책 유관기관 협력체계 역할과 기능을 보는 기준으로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음

- 다음으로, 예술지원기구로서 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해외국가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사업영역과 운영체계를 살펴봄. 이를 통해 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넷째, 내외부 환경분석의 결과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위원회 정책추진방향을 정립하고, 그를 위한 문화예술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발전방향을 제시함
-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한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

[그림 1-1] 연구 체계도



## 제2장

### 문화예술정책 현황분석

제1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황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의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황

제2절 : 한국의 문화예술정책 공과분석

1. 문화예술정책 변천과정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정책추진 분석

제3절 : 소결

## 제1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황

## 1. 개요

## 가. 연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 ARKO, 이하 예술위)는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1973년 10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KCAF)으로 개원
- 1979년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 1981년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 개관 등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을 설립하면서 진흥원 대학로 도약기
- 1987년 문화발전연구소 설립으로 우리나라 문화정책연구 및 문화통계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1994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확대, 분리 독립
- 1980년대 중반부터 문화행정 연수프로그램을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 추진 및 일반 국민 대상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 － 1992년 무대예술연수회관(현 아르코창의예술인력센터) 개관을 통해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경영 분야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 2005년 8월 26일 원장 중심의 독립체제에서 현장 중심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합의제 구조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 나. 의의

- －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으로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의 자율성 문제, 기금 집행의 비효율성, 예술 현장과의 소통 미흡 등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원회로 전환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를 설립, 현장 중심의 예술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 예술위는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를 벤치마킹하고 팔길이 원칙에 기반하여 예술 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특히, 정부부처(문화체육관광부 등)－예술위－예술단체 등 간 의사소통 창구인 동시에 문화예술정책 관련 종합적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에 초점을 두었음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예술정책 수립, 상명하달식 명령체제, 기능별로 분화된 유관기관들의 설립과 더불어 예술위가 정책조정 능력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 정부 산하기관 중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술위가 문화예술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예술위의 현황 및 정책추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예술위의 모습을 조망해보고자 함

##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황

### □ 미션 및 전략목표

- 예술위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는 미션을 설정했으며 '문화예술의 창의와 나눔으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미션을 토대로 '문화예술의 창의와 나눔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하여 창의, 나눔, 책임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으며 3대 전략목표와 13대 전략과제를 실현함
- 3대 전략목표에는 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 문화나눔을 통한 행복사회 구현,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구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첫 번째 전략목표인 '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에는 ① 예술창작활동 활성화, ② 기초 공연예술 기반강화, ③ 공연예술 대표 콘텐츠 육성, ④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⑤ 지역문화예술 균형발전, ⑥ 문화예술 글로벌 역량강화, ⑦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을 전략과제로 채택하고 있음
- 두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나눔을 통한 행복사회 구현'은 ⑧ 문화예술 복지확대, ⑨ 문화예술 후원확산, ⑩ 국민 생활문화 활성화, ⑪ 문화예술 정보 개방과 공유, 소통 활성화를 전략과제로 삼고 있음
-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구축'에는 ⑫ 고객감동 열린경영, ⑬ 조직역량 제고를 핵심적인 전략과제로 채택하고 있음

<표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략목표/과제

3대 전략목표	13대 전략과제
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	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기초 공연예술 기반강화
	공연예술 대표 콘텐츠 육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예술 균형발전
문화나눔을 통한 행복사회 구현	문화예술 글로벌 역량강화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문화예술복지 확대
	문화예술 후원 확산
	국민 생활문화 활성화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구축	문화예술 정보 개방과 공유, 소통 활성화
	고객감동 열린경영
	조직역량 제고

### □ 주요 기능 및 역할

-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연수 사업이나 활동
-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법 제4조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의 교류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증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나 활동
- 공공미술(대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미술 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 조직현황

- 예술위는 1처 5본부, 16부로 구성되어 있음
  - 사무처 산하에 경영전략본부, 문학시각예술본부, 공연예술본부, 문화나눔본부, 예술확산본부 5개 본부와 본부 산하 14개부 외 감사부, 국제교류부로 조직됨
- 경영전략본부는 기획조정부, 성과평가부, 재무관리부의 3개의 부서로 구성됨
- 문학시각예술본부는 문학지원부, 시각예술부, 예술자료원의 3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 공연예술본부는 공연지원부, 극장운영부, 무대예술부, 순회사업부의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 문화나눔본부는 문화누리부, 문화예술후원센터의 2개의 부서로 구성됨
- 예술확산본부는 협력개발부, 창의예술인력지원센터의 2개의 부서로 구성됨

[그림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2017년 2월 현재)



## □ 예산현황

- 예술위 예산수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 국고(일반회계), 관광기금, 체육기금, 고용기금, 자체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문예기금에서 사용됨

&lt;표 2-2&gt;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 수입

(단위: 백만 원)

구분	2014		2015		2016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계	400,492	100.0%	747,285	100.0%	441,627	100.0%
문예기금	357,380	89.2%	652,687	87.3%	396,936	89.9%
국고	17,350	4.3%	61,440	8.2%	33,457	7.6%
관광기금	10,214	2.6%	15,447	2.1%	-	0.0%
체육기금	13,326	3.3%	15,607	2.1%	9,182	2.1%
고용기금	1,081	0.3%	422	0.1%	528	0.1%
자체회계	1,141	0.3%	1,682	0.2%	1,524	0.3%

- 문예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의거, 1973년부터 조성되어 왔으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됨
  - 정부 출연금, 개인·법인의 기부금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으로 구성됨
- 문예기금 조성액보다 운용액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큰 실정임

&lt;표 2-3&gt; 문화예술기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1973~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조성액	1,879,297	108,547	116,710	138,168	119,518	168,507
운용액	1,580,498	144,273	127,535	150,911	204,330	231,362
수지차	298,799	-35,726	-10,825	-12,743	-84,812	-62,855
누계	298,798	263,072	252,247	239,504	154,692	91,837

## 제2절 한국의 문화예술정책 공과분석

## 1. 문화예술정책 변천과정

## 가. 개요

- ICT의 발달로 인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등장은 예술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요구함
  - 예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며, 예술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가 번영을 이루는데 필요한 읽고 쓰는 능력, 셈하는 능력을 풍부하게 함
  - 결국 예술은 인간의 창의적 발현의 산물이자 인간 정신활동의 최고결정체로 과학과 테크놀로지에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풍부하게 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
- 또한 문화예술은 인간의 미적, 지적 결과물로서의 본원적 가치 및 다양한 부가가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문화예술을 통해 감동과 흥미, 아름다움 등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에 기여하고 창의성, 감수성, 협업성,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음(이주희, 2017)
  - 문화예술의 가치는 브랜드 가치, 유증 가치, 교육 가치, 국가 간 가교 역할, 문화를 통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 유발 등이 있음
- 그러나 대중문화의 비약적 발전과 달리 대중문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기초예술은 위기를 맞고 있음
  - 예술의 위기는 단지 예술의 위기뿐만 아니라 문화산업분야의 발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시장을 포함한 경제의 영역을 진흥시키는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이윤동기와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실험성, 사회적 이익보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공성,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진취성 다른 분야와의 협업을 추구하는 복합성을 옹호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문화관광부, 2005)
- 문화는 의미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으로 사회과학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도출되기 어려움

- 문화에 대한 광의는 '삶의 양식' 관점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화는 일반인들의 실생활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 역사적 뿌리, 역동성을 의미
- 그러나 광의의 문화 개념은 지나치게 상대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정책의 목표와 과제 설정 및 정책수단의 선택 측면에서는 모호성이 매우 높아 적절하지 않음
- 정책의 영역으로 문화정책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보다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
- 흔히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정책'으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음
  - 문화예술은 '문화'와 '예술'을 결합한 용어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단어와 단어의 결합으로 보기 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
  -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예술'의 실천이 곧 '문화'라는 경이로운 용어를 포괄하는 것이라 주장함(이주희, 2017)
    - 예술과 문화는 두 개의 영역이 아니라 관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 이러한 관점은 예술의 활동이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고 보며, 여기서의 예술활동은 전문 예술가의 활동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문화예술정책은 보편적 정책임
  - 이는 예술이 갖는 생산성 격차, 공공재로서의 시장실패, 예술가들이 처한 경제적 여건과 다양한 사회적 편익 등이 주요 요인이 되어 예술가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대부분의 예술가들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됨
  - 창조적 예술행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상적 문화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지원의 범위 안에 포함. 그 범위도 계속 확장
  -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은 문화의 발전이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관련하여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문화예술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중들에게 문화예술의 가치를 강조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예술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70년대부터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해 왔음
    -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문예중흥선언 채택, 1974년 문예중흥5개년계획 등 4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예술 정책 수행
  - 본 절은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지난 10년 간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문화예술 정책 수행에 있어서 주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문화예술 지원의 독립성·공정성 문제, 예술지원의 수월성과 형평성의 문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설립된 다양한 지원기구 간 역할 배분 및 협력 체계 구축의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나. 문화예술정책 변화 추이 개관<sup>1)</sup>
- 여기서는 각 시기별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봄
  - 해방 후 60년대까지의 문화정책은 소극적인 문화재 관리행정이 문화행정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음
  - 60년대 이후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한 결과 근대화의 물결 속에 문화적 수요와 욕구의 증대에 따라 문화를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중시하게 됨
    - 이러한 배경 하에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337호) 제정, 1973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sup>2)</sup> 시작,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문예중흥선언」 채택, 1974년 문예중흥5개년계획 시작 등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의 초석을 다짐
    - 70년대는 문화예술 기반조성, 전통문화 보존관리, 예술 진흥, 대중문화 창달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시기
      - 70년대 문화정책은 자주적인 민족문화의 창달이라고 하는 내셔널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었음

1) 이 부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년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2) 공연·전시장과 고적·사적지 등 입장료에 부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티켓 가격의 6% 내외)

- 따라서 정책의 목표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과 전통문화의 계발을 통한 민족주체성 확립에 있었음
- 80년대(제5공화국 및 제6공화국 시기)는 문화정책 분야의 양적 성장이 두드러졌던 시기임
  - 특히 제5공화국 7년 기간 동안 문화 분야 예산이 3.3배 증가<sup>3)</sup>하였으며, 문화공보부 전체 예산 중 문화부문의 차지비중이 공보부문을 앞지름
  - 이는 문화향수에 대한 국민적 수요의 증대에 따라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데에서 기인
  - 제5공화국 당시의 문화정책은 민족문화의 주체성과 함께 문화시설의 확충을 강조하면서 '문화의 국가발전 동력화'를 주장
- 90년대(제6공화국 후반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기)는 문화예술정책의 기조 변화가 많았던 시기임
  - 90년대는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이 고도의 창조적 역량을 축적, 재산출하는 생산적인 활동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음
  - 아울러 '문화복지'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국민의 문화복지 자체가 정부의 중요한 대국민 서비스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
  - 국민 문화생활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공공지원정책이 마련됨
  - 제6공화국 시기는 생활문화와 통일문화를 강조하였음
    -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수립 : 국민의 문화 향수권과 참여권 신장,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복지의 실현에 중점
    - 1990년 문화부 신설과 함께 생활문화국을 독립 편제
    - 국제문화교류의 양적인 확대와 다변화를 강조하는 한편, 새로운 통일문화정책에 따라 공산권 문화에 대해 대폭적인 개방조치를 취함
  - 문민정부에서는 우리 문화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둠
    - 문화창달 5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산업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화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있는 조화를 통해 창조력을 상승시키고자

3) 국고예산과 문예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공익자금(방송발전기금), 기업의 기부금에 이르기까지 문화 제원 크게 확충



### 함

- 문화예술정책에 있어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토대로 한 창작 풍토의 조성  
창작에 도움을 주는 환경 및 제도 개선에 주력
- 또한 국민 스스로가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능동적 참여 환경 조성으로  
모든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출
- 국민의 정부에서는 문화 정보화 강화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예술 분야  
효율성 강화<sup>4)</sup>를 추진함
- 문화체육부를 폐지하고 문화관광부를 신설하였으며, 각종 검열제도 및 기구  
등을 선진국형으로 전환
-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문화부문 세출예산을  
확대<sup>5)</sup>
-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복지수단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이념지향을 유지하면서 문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짐
- 2000년대 이후(국민의 정부 후반,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는  
지역문화의 특성화와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시기임
- 1995년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1997년 7월 경기문화재단의 출범을 시작으로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지역문화재단이 경쟁적으로 설립되기 시작
- 지역 문화행정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높아짐
- 2000년 문화부문 세출예산이 정부 전체 세출예산의 1%를 넘어서는 등 문화부  
문에 대한 공공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
- 자율참여분권의 3대 국정원칙을 내세우며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는 문화 참여  
를 통한 창의성 제고(개인),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사회),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新)성장 동력화(경제),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세계)의 다섯 가지 방향성에 따라 문화

4) 국민의 정부에서는 IMF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일련의 공공부문 효율화 정책들의 일환으로 공공조직의 아웃소싱을 통한 구조조정, 정부 산하기관의 책임운영기관화, 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하였음

5) 2000년에 문화부문 전체 세출예산이 정부 전체 세출예산의 1.0%를 넘어서고, 2001년에 절대액이 1조원을 넘어서게 됨

### 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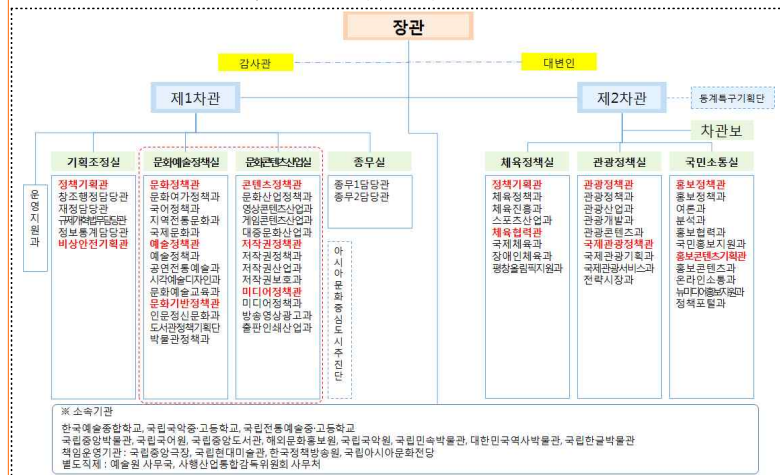
- 2004년 발표한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에서 예술정책의 비전을 ‘예술의  
힘, 미래를 창조합니다’로 설정
-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 강화를 통해 창작매개향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자 함
- 독임체제 기구였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합의제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  
원회로 전환하여 현장 중심의 열린 예술행정 체계와 문화분권 체제 구축
-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하며, 생활  
자체를 문화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
- <문화비전 2008~2012>에서 문화정책의 비전을 방방곡곡 모세혈관처럼 펴  
쳐지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 설정
-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상생하는 문화와 산업, 소통과 개방의 전략, 문화를 통한 녹색성장 등 6개  
전략 제시
- 박근혜 정부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가발전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 강조
- ‘문화융성’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재정 2% 달성과 「문화기본법」  
의 제정을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
-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예술인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 정신문화 진흥과  
문화유산 보존,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문화적 관점의 확산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다. 지난 10년 간 문화예술정책 주요 내용

#### 1)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미션  
을 설정하고,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문체부는 2차관 1차관보 7실 16관 51과(한시 2기구)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2] 문체부 조직도(2016년 현재)



□ 문체부 정원은 총 2,745명(본부 641명 / 소속기관 2,104명)임

<표 2-4> 문체부 정원 현황(2016년 현재)

구분	계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연구직	전문경력관	임기제***
계	2,745	4	4	275	51	21	99	58	341	1,424	393	72	3
본부	641	3	4		24	14	39	43	179	290	4	41	
소속**	2,104	1		275	27	7	60	15	162	1,134	389	31	3

\* 별정직에 고위'나' 1명 포함

※ 소속기관에 예술원 사무국(13명)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23명) 정원 포함

\*\*\* 임기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문체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신설된 공보처 및 문교부를 그 뿌리로 하고 있으며, 각 정부에서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 형태를 바꾸어 왔음
  - 1948년 공보처와 문교부를 신설하여 문화행정 업무를 담당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현재와 같이 문화체육관광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변화

<표 2-5> 문화행정조직 변천 연혁

일자	내용
'48. 1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보처 신설(1실 4국)</li> <li>● 문교부 신설(1실 5국) : 문화국(교도과, 예술과)에서 문화행정업무 담당</li> </ul>
'56. 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보처 폐지, 대통령 소속 공보실 설치</li> </ul>
'61. 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보부 신설(4국)</li> </ul>
'61. 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교부 : 문화국을 체육국과 문예국으로 개편</li> </ul>
'63. 1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교부 : 체육국과 문예국을 문예체육국으로 통합</li> </ul>
'68.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보부를 문화공보부(1실 4국)로 개편, 문교부의 예술에 관한 사무 이관</li> </ul>
'90.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 개편</li> </ul>
'93. 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부 신설(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 통합)</li> </ul>
'94. 1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부의 관광국을 문화체육부로 이관</li> </ul>
'98. 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보처 폐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보실 신설</li> <li>●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개편</li> <li>● 공보처 소속 기관인 해외공보관, 국립영상제작소, 정부간행물제작소를 문화관광부로 이관</li> </ul>
'99.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보실을 국정홍보처로 확대 개편</li> <li>● 문화관광부의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영상제작소, 정부간행물제작소 이관</li> <li>● 문화관광부의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를 신설되는 문화재청으로 이관</li> </ul>
'05. 4.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확대 개편</li> <li>● 문화부의 청소년국을 청소년위원회로 이관</li> </ul>
'08. 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홍보처폐지, 문화체육관광부로 기능 통합</li> <li>● 2차관 신설</li> </ul>
'14. 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체제 중심으로 개편</li> </ul>
'15.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홍보 업무 담당 차관보 신설</li> </ul>

□ 문체부는 소속기관 이외에도 문화예술, 관광, 체육의 각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은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산업 분야 총 21개 기관, 관광 분야 2개 기관, 체육분야 5개 기관이 있으며, 기타 3개의 기관이 있음
- 기타 산하 단체 및 법인은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산업 분야 19개, 체육분야 2개 기관이 있음

&lt;표 2-6&gt; 기획재정부 지정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소관	계	세부내역
합계	32개	—
문화예술정책실	13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 전당, (재)정동극장, 한국문화진흥(주), (재)국악방송, 세종학당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학번역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콘텐츠산업실	9개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광정책실	2개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체육정책실	5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기타	3개	한국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lt;표 2-7&gt; 문체부 산하 주요 단체법인

소관	계	세부내역
합계	21개	—
문화예술정책실	11개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재)국립극단,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재)국립현대무용단, (재)서울예술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콘텐츠산업실	8개	(사)독립제작사협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한국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사)한국게임개발자협회, (사)한국e스포츠협회, (사)한국게임학회, (사)지스타조직위원회
체육관광정책실	2개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재)한국도핑방지위원회

&lt;표 2-8&gt;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산업 분야 산하기관 별 문체부 담당 부서 현황

기관명	문체부 담당실	문체부 담당관	문체부 담당과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영상콘텐츠산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문화산업정책과
아시아문화원	기타		
(재)국악방송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재)예술의전당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재)정동극장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재)한국문화정보원	기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정책관	박물관정책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한국문학번역원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	출판인쇄산업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문화여가정책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	출판인쇄산업과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지역전통문화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64개의 법률 및 하위 법령을 관할하고 있음

&lt;표 2-9&gt; 문체부 소관법령 현황

합계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예규
366개	64개	73개	49개	180개

— 문체부 각 실별 소관 법령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예술정책실에서는 23개의 법률, 문화콘텐츠산업실은 18개의 법률을 관할하고 있음

&lt;표 2-10&gt; 문체부 각 실별 소관 법령 내역

소관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예규
	64개	73개	49개	180개
기획조정실 등	—	4개	5개	52개
문화예술정책실	23개	25개	22개	42개
문화콘텐츠산업실	18개	19개	11개	35개
체육정책실	13개	15개	7개	23개
관광정책실	6개	5개	4개	19개
국민소통실	—	1개	—	6개
중무실	3개	3개	—	3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개	1개	—	—

[그림 2-3] 문화예술 관련 법 체계도



주: 문체부 소관법령 중 관광분야(관광기본법 등), 체육분야(국민체육진흥법 등) 별도

- 문체부의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산업 분야와 관련된 기능은 문화예술 육성·진흥, 문화산업 육성·진흥이 있으며, 각각 123명, 130명의 인력이 해당 기능을 수행

&lt;표 2-11&gt; 문화예술 기능, 관련 기구별 인력

기능분류	관련기구	인력
<b>1. 문화예술 육성·진흥</b>		<b>123명</b>
1-1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	• 문화예술정책실 - 문화정책관(4과)	49명
1-2 예술창작 지원 및 진흥 정책	• 문화예술정책실 - 예술정책관(4과)	45명
1-3 인문정신문화, 도서관·박물관 진흥 정책	• 문화예술정책실 - 문화기반정책관(3과)	29명
<b>2. 문화산업 육성·진흥</b>		<b>130명</b>
2-1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지원	• 문화콘텐츠산업실 - 콘텐츠정책관(4과)	41명
2-2 저작권 정책수립, 산업육성 및 보호 대책 마련 등 추진	• 문화콘텐츠산업실 - 저작권정책관(3과)	57명
2-3 미디어, 출판, 방송영상 진흥 정책 추진	• 문화콘텐츠산업실 - 미디어정책관(3과)	32명

2) 10년 간 문화예술정책 변동 추이(2005년 이후)

- 여기서는 2005년 이후 문화예술정책을 다음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함
- 각 연도별 정책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성과
  - 각 연도별 문체부 소관법률 제개정 현황
  - 각 연도별 문화예술 부문 재정 변동 추이
- 2005년 이후 각 연도별 주요 정책<sup>6)</sup>

&lt;표 2-12&gt; 2005년 이후 문화예술정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정책
2005년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성공적 개관</li> <li>- 광복 60주년 기념 문화사업 추진</li> <li>-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 추진</li> <li>-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추진</li> <li>- BTL 방식에 의한 문화시설 확충 추진</li> <li>-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문화 활성화 추진</li> </ul>

6) 이 부분은 각 연도별 문화예술정책백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백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구분		주요 정책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li> </ul>
	예술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확충</li> <li>· 미술은행(Art Bank) 제도 도입</li> <li>·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제도 개선</li> <li>· 도자문화 전용상품권의 인증제도 시행</li> <li>·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li> <li>· 문화예술법인에 대해 문화사업 준비금 제도 신설</li> <li>- 문화예술 수요 진흥방안</li> <li>· 기업과 개인의 문화비 지출 지원 : 문화접대비 세제 지원 등</li> <li>· 정부, 지자체 등의 문화비 지출 지원 : 문화비 지출을 위한 업무 추진비 개선 등</li> </ul>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취약 대상자를 위한 문화바우처제 실시</li> <li>-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li> <li>-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li> <li>- 문화시설 지속 확충 및 OECD 수준의 문화환경 조성</li> <li>- 아시아 문화동반자 사업 등을 통한 우리 문화콘텐츠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li> <li>- BRICs 및 제3세계 국가와 특화된 문화 교류 협력 추진</li> </ul>
2007년	예술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li> <li>- 문화예술기관·단체의 마케팅 활성화</li> <li>- 기초예술 장르별 특성화된 발전전략 추진</li> <li>-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토대 마련</li> <li>- 예술의 자생력 강화 및 해외 진출 활성화</li> </ul>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증진</li> <li>· 문화바우처 사업</li> <li>· 함께누리 지원사업</li> <li>- 문화동반자 사업</li> <li>-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문화 조성</li> <li>-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li> </ul>
2008년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관련 인프라 구축</li> <li>· 미술은행(Art Bank) 제도 도입</li> <li>·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제도 개선</li> <li>- 문화예술 수요 진흥</li> <li>·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li> <li>·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 제공시 세 부담 경감</li> <li>· 서화 골동품 취득관련 비용 손금 인정범위 확대</li> <li>·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amp; Business) 사업</li> </ul>
	예술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증진</li> <li>· 문화바우처 사업</li> <li>·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li> <li>· 문학나눔</li> <li>· 함께누리 지원사업</li> <li>-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문화 조성</li> <li>· 국민여가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li> <li>·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li> </ul>

구분		주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 여가백서 발간</li> <li>· 2008 새 여가정책 포럼</li> <li>- 문화정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li> <li>- 문화동반자 사업</li> <li>- 건국 60주년 기념 문화행사 추진</li> <li>-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li> </ul>
	예술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지원체계 재정비</li> <li>· 예술지원정책의 방향성 정비 : 전략적 지원체계 확립</li> <li>· 지원체계 재정비 :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생활속의 예술</li> <li>·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제도 개선</li> <li>- 문화예술 수요 진흥</li> <li>· 미관매 공연티켓 통합할인제 도입</li> <li>· 문화접대비 제도의 발전</li> <li>- 예술재원의 다변화 노력</li> <li>·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amp; Business) 사업 지속 추진</li> <li>·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 제공시 세 부담 경감</li> </ul>
2009년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취약 계층 문화향유 기회 증진</li> <li>· 문화바우처 사업</li> <li>·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li> <li>· 문학나눔</li> <li>- 젊은 문화포럼 개최</li> <li>- 여가문화 활성화 정책 기반 조성</li> <li>· 생애주기별 여가정책 수립</li> <li>· 사회적 여가활동 지원정책</li> <li>· 생활권 여가공간 활성화 정책</li> <li>· 일과 삶의 조화정책</li> <li>· 여가정책 포럼 개최</li> <li>- 여가정책 홍보 및 인식제고 사업</li> <li>· '2009 활력충전 나의 휴(休)테크' 온라인 여가 공모전 개최</li> <li>· 여가활용 사례집 발간</li> <li>- 문화동반자 사업</li> <li>-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li> </ul>
	예술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관련 인프라 구축</li> <li>· 미술은행(Art Bank) 제도 도입</li> <li>·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제도 개선</li> <li>- 문화예술 수요 진흥</li> <li>·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li> <li>·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 제공시 세 부담 경감</li> <li>· 서화 골동품 취득관련 비용 손금 인정범위 확대</li> <li>·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amp; Business) 사업</li> </ul>
2010년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취약 계층 문화향유 기회 증진</li> <li>· 문화바우처 사업</li> <li>·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li> </ul>

구분	주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나눔</li> <li>- 여가문화 활성화 정책 기반 조성</li> <li>· 생애주기별 여가정책 수립</li> <li>· 사회성 여가활동 지원정책</li> <li>· 생활권 여가공간 활성화 정책</li> <li>· 일과 삶의 조화정책</li> <li>· 국민여가활동조사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li> <li>· 2010 온라인 여가 공모전 개최</li> <li>- 문화정책기반 조성</li> <li>· 2011년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향후 전망 발표</li> <li>· 성별문화인력통계 DB 구축 등 통계발전 추진</li> <li>· 젊은 문화포럼</li> <li>-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li> <li>- 무형 문화유산 11건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li> </ul>
예술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관련 인프라 강화 개선</li> <li>·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제도 개선 추진</li> <li>· 구 서울역사의 복합문화예술공간화</li> <li>· 국립예술공연연습장 건립</li> <li>- 문화예술 수요 진흥</li> <li>· 현대무용단 신설, 국립극단 법인화 등 공공예술기관 운영 활력</li> <li>· 문화접대비 제도 확산</li> <li>· '문화로 인사합시다'운동 전개(중소기업 문화경영 확산)</li> <li>·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 제공시 세부담 경감</li> <li>·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amp; Business) 사업</li> <li>- 공공 환경의 문화적 조성</li> </ul>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여가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li> <li>-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의 확충</li> <li>· 수요자 중심의 여가 프로그램 제공</li> <li>· 문화바우처 사업</li> <li>· 문화나눔 활성화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사랑티켓 등</li> <li>- 한글의 가치 발굴 및 확산</li> <li>- 지역문화·전통문화의 재생과 창조</li> <li>· 지역문화 활성화</li> <li>· 전통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li> <li>- 미래세대 문화역량 강화</li> <li>·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li> <li>· 다문화사회 대응 역량 제고</li> <li>· 문화기반 강화</li> <li>- 한국문화 세계화 및 국가브랜드 제고</li> <li>· 해외 문화홍보 및 교류 기반 강화</li> <li>· 문화예술 해외교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약자의 향유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여건 개선</li> <li>· 사회적 약자의 향유기회 확대</li> </ul>

구분	주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적 예술 창작여건 개선</li> <li>·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 지원</li> <li>· 일상생활 속 예술가치 확산</li> <li>- 문화예술분야 법·인프라 강화로 예술역량 선진화 지원</li> <li>· 문화예술 분야 법 강화</li> <li>·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li> </ul>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여가문화 활성화 기반 강화</li> <li>-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의 여가문화 활성화 기반 강화</li> <li>· 문화이용권 사업</li> <li>· 공연나눔</li> <li>· 문학나눔</li> <li>· 전시나눔</li> <li>· 창작나눔</li> <li>- 한글의 가치 발굴 및 확산</li> <li>- 지역문화·전통문화의 재생과 창조</li> <li>· 지역문화 진흥기반 구축</li> <li>· 지역문화 브랜드 육성</li> <li>· 전통문화 창조적 발전 지원</li> <li>- 한국문화 세계화 및 국가브랜드 제고</li> <li>· 국제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화 추진</li> <li>· 해외 문화홍보 인프라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li> <li>· 주요제기 문화교류 확대</li> <li>· 문화분야 ODA 사업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li> <li>- 미래 문화역량 및 문화기반 강화</li> <li>· 다문화사회 대응 역량 제고</li> <li>· 도서관박물관 서비스의 선진화</li> <li>· 국가대표 문화공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li> <li>·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아시아 문화 교류 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복지증진 체계 마련</li> <li>-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 지원</li> <li>· 문화로 인사합시다 인식개선 지원</li> <li>·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amp; Business) 지원</li> <li>· 예술나무 포털 사이트 구축 및 크라우드 펀딩 확산</li> <li>- 공연예술 창작 및 유통 지원체계 강화</li> <li>· 공연예술 창작 및 유통구조 선진화</li> <li>· 지역 공연예술 제작 및 소외계층 공연예술 향유기회 확대</li> <li>· 공연예술 시설 확충 및 안전체계 개선</li> <li>· 일상 공간 속 문화가치 확산</li> <li>- 문화예술교육의 지원강화</li> </ul>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기분법 제정</li> <li>- 문화융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li> <li>·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출범</li> <li>· 8대 정책과제 발표</li> </ul>



구분	주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문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관련 R&amp;D 시행</li> <li>·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인식 제고</li> </ul> </li> <li>-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li> <li>· 문화이용권,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랑티켓 등</li> </ul> </li> <li>- 문화다양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조성</li> <li>· 국내 다양한 문화 간 교류 및 소통 활성화</li> </ul> </li> <li>-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개발</li> </ul>
예술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복지증진 체계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본격 추진</li> <li>· 예술인 복지기반 구축</li> </ul> </li> <li>-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로 인사합시다’인식개선 지원</li> <li>·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amp; Business) 지원</li> <li>· 예술나무 포털 사이트 구축 및 크라우드 펀딩 확산</li> </ul> </li> <li>- 공연예술 창작 및 유통 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예술 창작 및 유통구조 선진화</li> <li>· 지역 공연예술 제작 및 소외계층 공연예술 향유기회 확대</li> <li>· 공연예술 시설 확충 및 안전체계 개선</li> </ul> </li> <li>- 일상 공간 속 문화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 공간의 문화적 재창조</li> <li>· 한국 공예의 대중화세계화산업화</li> </ul> </li> <li>-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li> <li>·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li> <li>·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인력 양성</li> </ul> </li> <li>-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기반조성</li> <li>· 장애 예술인 창작 기반 구축 및 교류 지원</li> <li>·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및 문화 접근성 확대</li> </ul> </li> </ul>
2014년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기본법 제정, 시행</li> <li>- 문화융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융성위원회 운영</li> <li>· 문화가 있는 날 시행</li> </ul> </li> <li>- 여가문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li> <li>· 통합문화이용권</li> <li>· 공연나눔 :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랑티켓, 방방곡곡 문화공감</li> <li>· 창작나눔 : 생활문화 공동체</li> </ul> </li> <li>- 문화다양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조성</li> </ul> </li> </ul>

구분	주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다양한 문화 간 교류 및 소통 활성화</li> <li>·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개발</li> </ul>
예술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복지증진 체계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li> <li>·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다각화</li> </ul> </li> <li>-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로 인사합시다’인식개선 지원</li> <li>·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amp; Business) 지원</li> <li>· 문화예술후원인식확대를 위한 예술나무 캠페인 및 크라우드 펀딩 확대 추진</li> <li>·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한 민간재원의 후원참여기반 마련</li> </ul> </li> <li>- 공연 예술창작 및 유통 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예술 창작 및 유통구조 선진화</li> <li>· 지역 공연예술 제작 및 소외계층 공연예술 향유기회 확대</li> <li>· 공연예술 시설 확충 및 안전체계 개선</li> </ul> </li> <li>- 일상 공간 속 문화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 공간의 문화적 재창조</li> <li>· 한국 공예의 대중화세계화산업화</li> </ul> </li> <li>-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li> <li>·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li> <li>· 문화예술교육의 전문 인력 양성</li> </ul> </li> <li>-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기반 조성</li> <li>· 장애예술인 창작 기반 구축 및 교류 지원</li> <li>·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및 문화 접근성 확대</li> </ul> </li> </ul>

□ 2005년 이후 각 연도별 문화예술 분야 관련 법령의 제·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05년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국어기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등 5개의 법률이 개정됨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국민의 문화에의 접근 및 문화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사무배

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독창적인 문화산업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익 도모임

- 2006년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공연법」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개정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제정
  - 「공연법」개정은 공연장 재해대책 강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취득 과정 개선이 주요 내용임
- 2007년에는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등 12개의 법률이 개정됨
- 2008년에는 「문화예술진흥법」등 6개의 법률이 개정됨
  - 「문화예술진흥법」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증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2009년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등 14개 법률이 개정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었고, 문화산업진흥기금 규정이 삭제됨
- 2010년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9개 법률이 개정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 부과함으로써 영화 유통시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한국문화번역원의 소관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이동하면서 업무영역을 문학분야에서 문학 및 출판 분야로 확대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법 명칭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내용 규정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시는 광주광역시에 조성

- 2011년에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등 3개 법률이 개정됨
  -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호 규정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예술인 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
- 2012년에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과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등 7개 법률이 개정됨
  - 「문화예술진흥법」개정을 통해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이 법에 근거한 법정법인으로 전환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문화예술 교육사로 변경하고,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 2013년에는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등 4개 법률이 개정됨
  -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하는 법률로서 제정
  -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장르별 정의에 「만화」를 포함시킴
  - 「예술인복지법」의 규정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및 기부금 접수의 법적 근거 마련
- 2014년에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논의된 사항을 담아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문화예술후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조세의 감면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문화예술후원·문화예술후원자·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정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지원, 우수기관의 인증 등의 내용 포함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 2015년에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 2개의 법률이 개정됨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은 공예를 공예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제정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여가가 균형을 이루어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전체의 행복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및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의 규정임
- 2016년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학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등 15개의 법률이 개정됨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사회·경제·상징적·심미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책무 중의 하나로서 공공디자인 문화 진흥사업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제정
  - 「문학진흥법」은 영화, 만화, 음악, 공예 등 타 장르의 경우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문학 분야도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 「문화예술진흥법」은 2016년 두 차례 개정되었으며,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술인의 창작 공간 등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예술인복지법」개정을 통해서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용어 정

리하였으며,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음

- 「문화기본법」개정을 통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표 2-13> 문화예술분야 법률 제·개정 현황

구분		법률명
2005년	제정	-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15.12.29.) - 국어기본법(2005.1.27.)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1.27.)
	개정	- 대한민국 예술원법(2005.3.24.) - 문화예술진흥법(2005.3.24.)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05.7.21.)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5.3.31.)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2005.8.4.)
2006년	제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2006.9.27.) - 독서문화진흥법(2006.12.28.)
	개정	- 공연법(2006.9.27.)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10.4.)
2007년	제정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2007.7.19.)
	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1.1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7.1.26.) - 지방문화원진흥법(2007.1.30.) - 문화예술진흥법(2007.4.11.)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2007.4.11.) - 출판 및 인쇄진흥법(2007.7.19.)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07.7.27.)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2007.7.27.) - 영상진흥기본법(2007.12.21.) - 지방문화원진흥법(2007.12.2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12.21.)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2007.12.21.)
2008년	제정	-
	개정	- 문화예술진흥법(2008.1.17.) - 국어기본법(2008.8.2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8.3.28. / 6.5.)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8.6.5.)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2008.6.5.)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2008.12.26.)
2009년	제정	-
	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2.6.)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09.2.6.)

구분	법률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쇄문화산업 진흥법(2009.3.5.)</li><li>- 독서문화진흥법(2009.3.5.)</li><li>-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09.6.6.)</li><li>- 도서관법(2009.3.25.)</li><li>- 저작권법(2009.3.25.)</li><li>-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9.3.18.)</li><li>- 국어기본법(2009.3.18.)</li><li>- 출판문화산업 진흥법(2009.3.25.)</li><li>- 저작권법(2009.4.22.)</li><li>-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5.8. / 5.21.)</li><li>-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09.5.21.)</li><li>-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2009.6.9.)</li><li>-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2009.7.31.)</li></ul>
2010년	제정	-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0.1.1.)</li><li>- 출판문화산업 진흥법(2010.3.17.)</li><li>-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0.3.17.)</li><li>- 공연법(2010.3.17.)</li><li>-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010.3.17.)</li><li>-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2010.3.17. / 6.10.)</li><li>-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0.3.17.)</li><li>-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0.6.10.)</li><li>-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2010.6.10.)</li></ul>
2011년	제정	- 예술인복지법(2011.11.17.)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한민국예술원법(2011.4.14.)</li><li>-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4.14.)</li><li>- 지방문화원진흥법(2011.7.21.)</li></ul>
2012년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2012.2.17.)</li><li>- 작은 도서관 진흥법(2012.2.17.)</li></ul>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12.1.17.)</li><li>- 도서관법(2012.2.17.)</li><li>- 문화예술교육 지원법(2012.2.17.)</li><li>- 문화예술진흥법(2012.2.17.)</li><li>-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2.2.17.)</li><li>- 콘텐츠산업 진흥법(2012.2.17.)</li><li>- 국어기본법(2012.5.23.)</li></ul>
2013년	제정	- 문화기본법(2013.12.30.)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화예술진흥법(2013.7.16.)</li><li>- 예술인복지법(2013.12.30.)</li><li>- 공연법(2013.12.30.)</li><li>-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3.12.30.)</li></ul>
2014년	제정	- 지역문화진흥법(2014.1.28.)

구분		법률명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4.1.28.)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5.28.)
	개정	－
2015년	제정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2015.5.18.)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2015.5.18.)
	개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2015.5.18.)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2015.5.18.)
	제정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6.2.3.) － 문학진흥법(2016.2.3.)
	개정	－ 도서관법(2016.2.3.) － 문화예술진흥법(2016.2.3. / 12.20.) － 예술인복지법(2016.2.3.) － 작은 도서관 진흥법(2016.2.3.)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2016.2.3.) － 문화기본법(2016.5.29.)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6.2.3.)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2016.2.3.)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6.2.3.)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2016.2.3.)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3.22.)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5.29.) － 저작권법(2016.12.2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12.20.)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2016.12.20.)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예술관광체육 부문의 재정변동추이는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관광체육 부문의 재정은 2005년 2조 6천억 원 규모에서 2014년 4조 4천억 원으로 약 40.3% 증가하였음

&lt;표 2-14&gt; 문화예술관광체육 부문 재정변동 추이(2005-2014)

단위 : 억 원, %

구분	문화예술 부문	관광부문	체육부문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	합계
2005년	11,704 44.3	5,944 22.5	3,944 14.9	4,804 18.2	26,396 100.0
2006년	11,589 41.4	6,381 22.8	4,090 14.6	5,912 21.1	27,972 100.0
2007년	10,001 43.1	6,648 28.6	4,419 19.0	2,151 9.3	23,219 100.0
2008년	10,709 40.6	7,766 29.5	5,304 20.1	2,575 9.3	26,354 100.0
2009년	11,185 39.4	8,948 31.5	6,176 21.7	2,096 9.8	28,405 100.0
2010년	13,266 41.8	8,901 28.0	7,303 23.0	2,277 7.2	31,747 100.0
2011년	14,551 42.1	9,257 26.8	8,403 24.3	2,346 6.8	34,557 100.0
2012년	16,226 43.6	9,829 26.4	8,634 23.2	2,506 6.7	37,195 100.0
2013년	16,793 40.9	10,964 26.7	10,744 26.2	2,548 6.2	41,049 100.0
2014년	18,782 42.5	12,316 27.8	10,463 23.7	2,663 6.0	44,224 100.0
연평균 증가율	5.9	8.4	11.4	-6.3	5.9

- 문화예술 부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 각 부문 중 가장 높은 비중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5.9%씩 예산이 증가해옴

##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정책추진 분석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관<sup>8)</sup>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1972년 8월 14일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337호)에 근거하여 출범함
  - 1973년 10월 11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개원하였으며, 초기 조직은 총무부,

8) 이 부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년사 1973-2013」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진흥부, 업무부로 출범

- 문화예술 지원 기관으로써 발전을 거듭해오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재출범함으로써 전환점을 맞이함
  - 독립제 기관이었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합의제 기구로의 전환은 1998년 1월 21일 민예총 문화정책 세미나에서 처음 주장된 이해 논의가 지속되어 오다가 2002년 예술계 관련 주요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어 추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지원정책 분야에서 양작질적 성장을 거듭해 옴
  - 연간 사업비는 사업 첫 해인 1974년 8억 6,200만 원에서 2016년 2,195억 원으로 약 274배 확대
  - 진흥원 출범 첫 해인 1974년부터 2015년까지 예술인 창작지원, 국민 문화복지, 국제교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등에 1조 9천 8백억 원을 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환은 지원 정책의 대상이었던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지원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독립제 행정기구에서 합의제 기구로의 전환을 통해 예술지원 정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음
    - 자율성은 예술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와 존중을 의미
    - 전문성은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장해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와 힘을 의미
  - 위원회의 전환은 예술정책의 민주화, 전문화 과정으로서의 의의가 있음
  - 합의제인 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기금과 사업의 합리적 배분을 넘어 사회적 연계망 확보를 통한 자원의 발굴과 자율적 토대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됨
  - 민간 기구이면서 합의제 기구로서의 위원회 체제를 통해 문화예술의 창조성, 공공성,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예술정책의 변화와 확장을 위한 근거지를 마련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및 주요 성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기초예술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3년 '기초예술 진흥'에 쓰도록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마련된 기초예술 분야의 유일한 재원임
  -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 체계 및 예산 편제는 다음과 같음

<표 2-15> 문예진흥기금 사업 체계 및 예산편제의 변화(2006~2016)

2006	2007	2008	2009	2010~12	2013
예술 창조역량 강화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	예술창작역량 강화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문화예술 매개활동 확대 (지원시설 운영)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문화예술 공간 운영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예술의 생활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생활 속 예술 활성화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지역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매개활동 확대 (매개활동 지원 및 기반 조성)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존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

\* 2005년부터 5대 성과목표체계로 개편

\* 자료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년사 1973~2013. p318.에서 수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 문예정책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예술인 창작지원, 국민 문화복지, 국제교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등 지난 40여 년간 각 분야에 1조 9천 8백억 원을 지원함

<표 2-16> 문화예술진흥기금 분야별 지원실적(2974~2015)

단위 : 억 원, %

분야	예술진흥	문화복지	국제교류	기반조성/ 지역문화	문화산업	기타	합계
지원액	4,531	6,210	1,044	5,843	1,843	326	19,797
비율	22.9	31.4	5.3	29.5	9.3	1.6	100

□ 예술진흥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문화일반 등 예술진흥 분야에 전체 지원 규모 대비 22.9%인 4,531억 원 투자

- 기금 지원을 받아 등단, 데뷔했던 신진 문인들과 예술가들이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중진·원로로 자리 잡고 있음
- 기금 지원이 우리나라 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기여
  - 전국연극제(舊 전국지방연극제)와 전국무용제는 지역 예술인들과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을 크게 끌어 올리는 대표적 예술축제로 정착

□ 문화복지 분야는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전체 지원 규모 대비 31.4%인 6,210억 원 투자

- 문화바우처사업(통합문화이용권)을 비롯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문화향수 저변 확대와 문화양극화 해소 노력

□ 국제교류 분야는 전체 지원규모 대비 5.3%인 1.4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소개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형태로 교류사업을 지원

- 그간의 사업을 통해 한류 기반 조성,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 및 은사자상 수상 등 한국 기초예술의 세계적 성과를 창출

□ 기반조성/지역문화 분야는 전체 지원규모 대비 29.5%인 5,843억 원 투자

- 1984년부터 시작된 전국 각지 종합문화회관의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정부의 문화예산 증액과 아울러 1997년부터 국고로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였음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원방식 중 하나로 간접지원이 강조되면서 예술기반 조성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

□ 문화산업 분야는 전체의 9.3%인 1,843억 원 투자

-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크게 영화 분야와 출판 분야로 구분
- 영화 분야에는 1,643억 원, 출판 분야는 200억 원 지원
  - 영화 분야 투자는 문예기금 모금액<sup>9)</sup> 중 일정부분을 영화계에 환원하는 순환 지원 방식으로 지원
  - 출판 분야는 IMF 구제 금융 상황에서 서적 도매상의 연쇄부도 등 어려움에 처한 출판계를 돕기 위해 융자형식으로 지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요 이슈

□ 위원회를 둘러싼 주요 이슈는 크게 네 가지로 살펴봄

-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문제
- 위원회와 팔길이 원칙
- 예술지원 사업의 투명성 문제
- 유사 기능 수행 기관의 설립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초예술 진흥을 위해 조성된 재원으로 2003년도 말 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되고, 대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간 적립해 온 기금을 인출(연평균 344억 원)하여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에 사용

- 2004년 5,273억 원이던 기금 적립금은 2016년 현재 813억 원으로 감소(2004년 대비 15.4% 수준)하여 2018년 예산 편성이 불가한 상황임

<표 2-17>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현황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적립 잔액	5,273	4,929	4,548	4,336	4,091	3,739	2,988	2,631	2,522	2,395	1,547	1,110	813

단위 : 억 원

- 문예기금 고갈 시 우리나라 기초예술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예술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 관광 산업의 축소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9)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공공, 극장 등 티켓 판매 금액의 6%를 모금하도록 되어 있었음

-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문화향유 확대 사업을 제외한, 예술창작국제교류 등 기존사업의 수행이 어려움
- 또한, 다년간 지원을 통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나타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와 같은 다년간 지원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David Throsby(2008)의 문화산업 동심원 모형에 의하면 문화산업의 가치는 핵심적인 예술분야(문학, 음악,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로부터 영화·TV·광고·패션 등 다른 분야로 퍼져나감
  - 핵심적 예술분야, 즉 기초예술에 지원하면, 이 분야의 능력 있는 인재들이 ‘홀러넘쳐(spillover)’ 다른 문화산업 분야에 걸쳐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동심원 모형의 핵심
  - 기초예술의 창작이 밖으로 파급효과를 미쳐 문화산업 성장을 만들어내고, 관광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안정적인 재원의 확충은 필수적임
  - 기초예술 지원 사업 예산의 자체편성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체부 산하의 지원정책 집행기구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비영리 특수법인이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임

- 위원회가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된 것은 민간(문화예술계)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문화예술 정책계획 수립에 작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 또한 문화예술 부문에 대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임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문화예술지원정책은 보편적인 정책임
  - 이는 예술이 갖는 생산성 격차, 공공재로서의 시장실패, 예술가들이 처한 경제적 여건과 다양한 사회적 편익 등이 주요 요인이 되어 예술가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대부분의 예술가들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됨



-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지원은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보장하되 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팔길이 원칙의 핵심
  - 팔길이 원칙은 정치계급, 엘리트, 문화예술계의 특정 이해관계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정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것임(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 팔길이 원칙에 의해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준수하여야 하나 실제적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의해 드러남
  - 위원회 출범 당시 민간 합의제 기구로서 정책계획 수립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공공기구의 특성상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함
  - 공공기구로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조응해야 하고, 정부의 각종 법률과 제도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각종 평가 수행 등의 과정에서 위원회에 대한 문체부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 예술정책 수립에 있어서 위원회와 문체부 간 관계의 재설정을 통해 팔길이 원칙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방안 도출 필요
- 문체부 산하의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산업 분야 산하기관은 총 40개 기관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개별법, 민법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문학진흥법 제정, 미술진흥법 제정안 등에 의해 문학관, 미술진흥재단 등 장르별로 분화된 신규 기관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어 산하기관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장르별 산하기관의 설립은 각 장르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문화예술지원 정책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각각의 기관에 투입되는 인력, 예산 측면에서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그간 필요에 따라 기관을 설립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지원체계 전반의 관점에서 기관 간 새로운 역할 및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제3절 소결

- 제2장에서는 2005년부터의 문화예술정책의 추이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문화예술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적 확대(문화재정 1% 돌파 등)는 물론 질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어낸 시기로 볼 수 있음
- 문화기본법, 문화기초법 등의 제정을 비롯하여 각 분야별 법을 개정하여 문화예술 정책 수행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였음
  - 또한 예술의 산업화에 주목하여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한류의 세계 확산 등 문화예술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
- 그간의 문화예술정책 추진체계를 보면, 1990년 문화부 설립 이후 다섯 번의 정권 교체를 겪으면서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명칭과 기능의 변화는 있었지만, 큰 틀에서의 문화정책은 안정적 발전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음
- 2000년에는 문화예산이 정부예산의 1%를 돌파하였으며, 2013년 문화기본법의 제정은 한국 문화정책의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5년 예술지원 주요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 독립제 행정기관이었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로의 변화는 예술지원 정책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
    - 이전 정권에서의 정부 주도 문화예술정책에서 민간이 중심이 된 합의제 기구를 출범시킴으로써 예술계 자율성 확보를 시도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큰 틀에서의 문화정책이 안정적인 발전을 보였던 것에 비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모든 정부가 문화정책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등 정책의 방향성 차원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겪어옴
- 예컨대, 참여정부에서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이 형평성에 초점을 두어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월성에 초점을 두어 선택과 집중, 간접 지원에 정책적으로 중점을 두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지나치게 다양한 문화정책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과잉 생산되는 경향을 보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정책은 각 분야별로 일종의 '백화점'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체계상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음
- 우리나라 헌법은 문화국가의 원리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문화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각 법 간 체계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개별 법령 간 상충되는 규정도 있는 실정
  - 문화관계법제는 처음부터 체계적·통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보다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볼 수 있음
    - 문화관계 법령의 모법(母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문화기본법은 2013년에 제정
    - 문화기본법 제정 이전 모법 역할을 수행하였던 문화예술진흥법은 필요시마다 일부 조문을 개정해오면서 전반적인 법의 흐름 체계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문화예술정책 수행 체계상 문제점을 보면,
- 법제 개편을 통해 장르별 기관들이 신규로 설립되어 옴에 따라 유관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함
  - 장르별 산하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소규모 다기관 형태)함에 따라 각 기관별 칸막이 운영으로 인해 자원 및 역할 중복 등 업무의 비효율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또한 개별 정책 추진 및 통합 정책 관리의 부재로 인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미흡함
    - 예컨대, 기초예술과 콘텐츠 산업은 탄탄한 기초예술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이루어내는 선순환 구조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예술정책관 산하의 각 부서별 소관 산하기관이 각각 달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음
  - 국회의 문체부 소관 예산 심사 검토보고서에서도 정부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 민간 법인의 설립을 주도하고 운영비의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공공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장르별 기관의 설립의 또다른 문제점은 최근의 융복합 추세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임
    - 예컨대, 융복합 예술 창작자는 특정 장르에서 지원이 배제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장르에서 모두 지원을 받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문화예술분야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 문제임
- 2016년 말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잔여 적립금은 813억 원으로 2018년 예산 편성이 불가한 상황임
  - 문예기금의 고갈은 예술창작 지원 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문화산업, 관광 등 타 분야에 연쇄적 영향을 주게 됨
  - 기금의 고갈은 문예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 사업 구조의 왜곡도 가져옴
    - 기금의 고갈 위기에 따라 대체재원으로 투입된 복권기금, 일반회계 예산 등에 따라 위원회 전체 사업 중 예술창작역량 강화 부문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음
    - 기금 고갈에 따라 점차 사업구조 왜곡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창작-향유의 순환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축이 붕괴되어 기초예술 생태계가 무너지릴 가능성이 있음
  - 기금 채원 확충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함
- 2000년 문화재정이 전체 정부예산의 1%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왔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큰 문화산업 발전 수준에 비해 기초예술 투자가 미흡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음
  - 그간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의 연결고리, 연계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분법적으로 수립·시행되어 왔다는 문제점이 있음
- 최근 블랙리스트로 대변되는 예술계에 대한 독립성, 자율성의 문제는 예술정책에 있어서의 팔길이 원칙의 이행과 관련하여 선결되어야 함

- 물론, 위원회 출범 시 중요한 가치였던 자율성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문체부에서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음
  - 위원회도 공공기구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방향에 조응해야 하며, 각종 법률과 제도를 준수하여야 하게 때문임
- 이러한 한계 때문에 점차 문체부와 위원회 간 수직적 관료제 구조가 확립되어 갔으며, 위원회 자율성·독립성 침해 문제가 발생
- 공공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예산과 사업 결정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보다 제도적·관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3장

### 내외부 환경분석

제1절 : 문화예술 동향

1. 가계부문
2. 공공부문
3. 문화예술산업 부문
4. 동향정리 및 시사점

제2절 : 외부환경분석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1.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2. 제4차 산업혁명과 문화예술분야의 영향

제3절 : 내부환경분석 : 문예위 내부 의견 수렴

1. 내부 의견 수렴 과정 및 사업 구조
2. 단위사업별 비교 분석
3. 집단별 비교 분석
4. 세부사업별 비교 분석

제4절 :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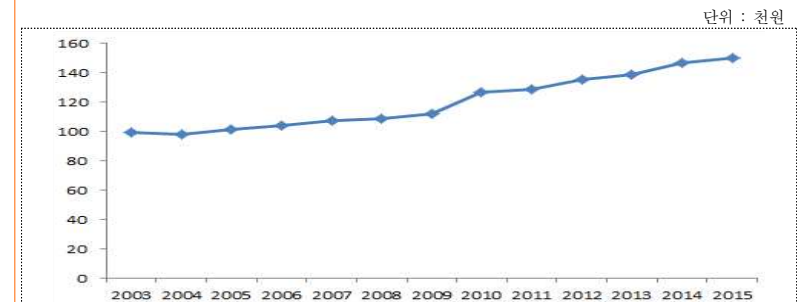
## 제1절 문화예술 동향

## 1. 가계부문

□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수준의 꾸준한 증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함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 문화여가비는 2003년 99,500원에서 2015년 149,9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문화여가시장의 규모 또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1] 문화여가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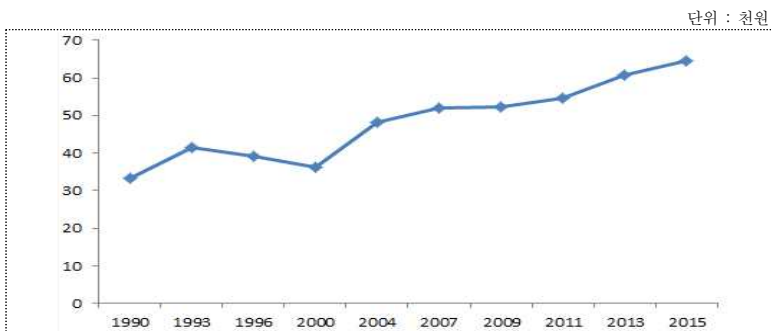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서적의 비중이 2003년 26.5%에서 2015년 11.1%까지 줄어든 반면, 문화서비스의 비중이 15.7%에서 23.7%로 증가하여 독서활동이 감소하는 반면, 공연 및 극장, 공원 및 관람시설 이용, 콘텐츠, 방송수신료 등 문화예술관람은 증가하여 정보화에 따른 문화여가생활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음
- 대중문화와 순수예술 간의 관람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계 상황에 따라 문화예술 관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관람률은 지난 1년간 문화예술(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며 문화예술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임

-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15년 문화예술관람률은 64.5%이며, 1990년 이후 문화예술관람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90년대 중반 이후 문화예술관람률이 감소한 것은 당시 IMF 외환위기에 따른 가계 경제가 위축된 것으로 파악되며 문화예술 분야가 경제적 탄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영화의 관람률이 가장 높고, 무용의 관람률이 가장 낮아서 대중문화와 순수예술 간의 관람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문화예술관람률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대도시 81.2% vs 읍면지역 65.7%), 연령별(20대 95.9%, 30대 89.6% vs 60대 55.7%, 70대 39.4%), 소득수준별(월100만원 미만 30.9% vs 월600만원 이상 89.5%) 문화 격차가 상존하고 있음

[그림 3-2] 문화예술관람률 추이 변화(%)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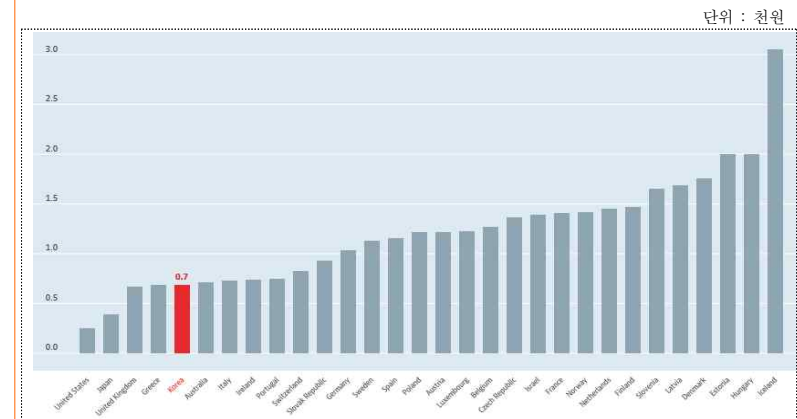
주: 조사대상인구는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인구,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임

## 2. 공공부문

- OECD 평균 GDP 대비 정부문화지출은 2014년 기준 1.21인데 비해 한국은 0.7로 나타나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보다 적극적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필요함

- 문화예술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미국의 GDP대비 정부문화지출도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적 영역에서의 후원이 한국보다 적극적임

[그림 3-3] 국가별 GDP 대비 정부 문화지출 비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재구성

주: 조사대상인구는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인구,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임

- 정부문화지출이 OECD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으나 정부문화재정은 2002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GDP 대비 문화재정은 2002년 0.23%에서 2014년 0.30%로 증가함
- 문화예술부문의 정부 지출이 2002년 7,051억원에서 2014년 18,78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재정 내 문화예술부문의 지원은 평균적으로 4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lt;표 3-1&gt; 국내 문화재정 변화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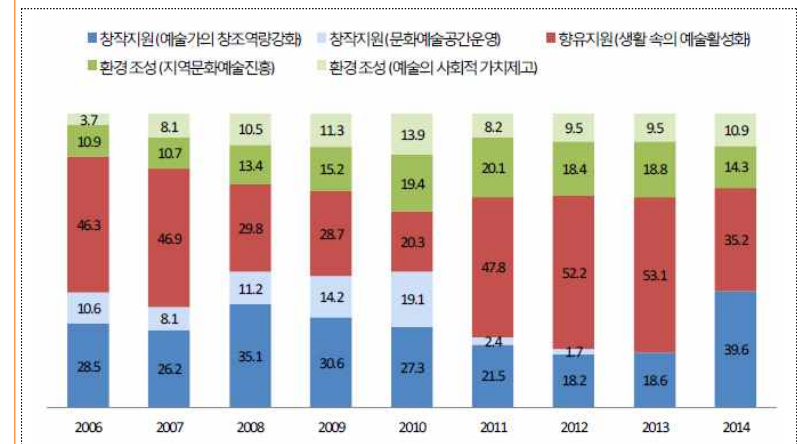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문화재정	17,826	18,891	19,043	21,234	23,073	22,660	26,354	28,746	31,747	34,557	37,194	41,048	44,224
GDP 대비 문화재정	0.23	0.23	0.22	0.23	0.24	0.22	0.24	0.25	0.25	0.26	0.27	0.29	0.3
문화예술부문	7,051	8,115	8,671	9,697	10,552	9,440	10,709	11,275	13,266	14,552	16,225	16,793	18,782
문화재정 대비 문화예술부문	40	43	46	46	46	42	41	39	42	42	44	41	42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 재구성

□ 현재 정부의 문화예술 관련 지원 사업은 해당 분야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문예기금은 문화예술분야에 공공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시대적 배경에 따라 집중지원분야가 달라짐
- 1970년대 문예기금은 창작지원과 전통예술 계승에 79%, 문화시설기반조성 및 확충에 21%가 지원되었으나 1980년대에는 창작지원 40%, 환경조성 57%, 1990년대에는 창작지원 74%, 환경조성 19%, 향유지원 7%, 2000-2005년에는 창작지원 41%, 환경조성 6%, 향유지원 53% 등 집중지원분야에 차이가 있음
- 2006년 이후에는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의 비율이 매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문예기금을 통한 지원이 불안정한 실정임
- 창의성은 문화적 획일성을 배제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에서 발휘될 수 있으며 창의성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따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관점에 따른 문화예술을 판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그림 3-4]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별 예산점유율(2006-2014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문예기금 지원사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3. 문화예술산업 부문

□ 문화예술은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적·경제적으로 파급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 국민들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로 인한 문화사업이 확대되어 문화 콘텐츠와 예술이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됨
- 특히, 콘텐츠 산업 성장률은 연평균 4.5%로('12~'15), 전체 산업 성장률인 1.3%를 상회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콘텐츠 제작 및 발굴이 중요해짐에 따라 창의를 기반으로 한 문화 예술의 융·복합, 통합 등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음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문화 가치가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 2015년 메르스 등 외부적 요인은 문화예술 시장

의 불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정적인 문화예술 시장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내외 경제 전반이 저성장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 문화예술기업에 유동성 축소와 투자 위축으로 인한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문예기금의 고갈 및 정부 출연금 및 자금의 재정난, 문화지구의 젠트리피케이션, 계량적 실적 평가, 고용창출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및 대책 수립이 시급함
- 최근 국정농단 의혹으로 인한 문체부 및 문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있으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문화예술산업 분야에 위기요인들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4. 동향정리 및 시사점

- 문화예술 관련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지표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 순수예술과 대중문화 간 관람률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창의성 발현을 위한 다양성 확보와 문화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은 경계해야 함
  - 문화예술 지원 성과는 규모의 경제, 단기적 효율성, 표준화, 선택과 집중 등 경제적 논리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큼
  - 가령, 유행 장르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단기적 성과를 높게 만들어낼 수 있으나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인류의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문화예술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측됨
  - 문화적인 창의성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스토리텔링에 기반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은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통에 의한 창의성 발현도 가능해짐

- 영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등이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채널(YouTube, Afreeca 등)과 플랫폼(PC, 스마트폰, 태블릿)의 결합이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수요와 공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으며 4차 산업혁명은 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음
- 미래 문화예술은 다양한 기술과 역량, 유통이 결합되어야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즉, 문화예술에 있어서 창의성은 기존의 문화적 속성과 더불어 기술의 결합이 필수적임

- 문화예술 분야가 국가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제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미치는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제2절 외부 환경분석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 1.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 2016년 1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를 주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이 개최된 이후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함
- 정보통신 기술들이 지수적(exponential) 발전 속도를 보이며 기능의 구현과 유통을 넘어서 인공지능을 통해 스스로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판단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기반으로 초(初)연결·지능화, 자동화를 특징으로 함
  - 산업혁명은 생산 방식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사업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성장률이 급격히 높아지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 내지 가속화되는 상태임
  - 1차 산업혁명은 농업과 수공업 위주의 경제 체제에서 증기기관의 활용 등 기계를 사용하는 제조업 중심의 전환과정을 통해 생산력이 급증함
  -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 전기 발전에 따른 대량 생산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함
  -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인터넷 발달에 기반에 둔 지식정보사회를 디지털화됨
-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자동화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정보 수집, 저장, 분석을 통해 각 개체에 최적화된 가치를 가진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lt;표 3-2&gt; 산업혁명의 단계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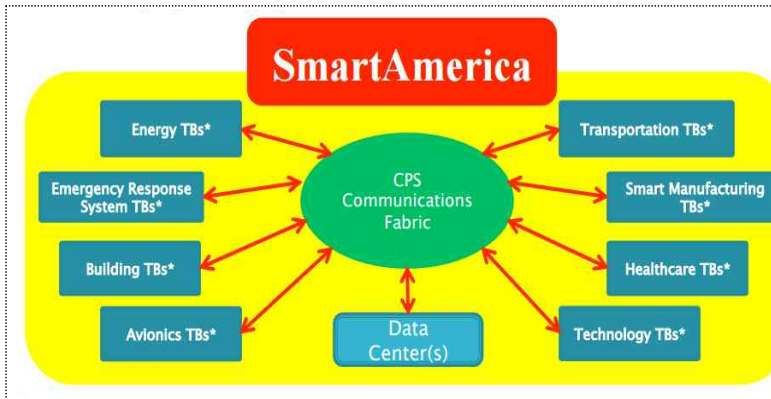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시기	18세기 후반 (1784: 증기기관)	19세기 후반 (1870: 전기)	20세기 후반 (1969: 컴퓨터)	21세기 (3차의 연장확대)
혁신 원천	동력 발명 및 기계의 사용	전기 및 내연기관 발명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디지털화	사이버·실물 시스템의 통합
생산 조직	공방	공장	공장+컴퓨터	공장+로봇+인터넷
생산체제	소량·주문생산	대량생산	수확체증 영업 확대	맞춤형 스마트 생산
노동 수요	단순 노동력	숙련 노동력	기술자	창의적 지능
시장 및 소비형태	소규모/분절	대량/표준화	대량/글로벌, e-Market	다양한 조합 가능
경쟁우위	기계의 도입	공장 규모	IT 인프라	네트워크·통합 역량

출처: KDI,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

- 4차 산업혁명이 경제와 사회 등 인류 생활에 전반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아디다스는 독일정부, 아헨 공대와 함께 3년의 연구를 통해 ‘스피드 팩토리(Speed Factory)’ 공장을 설립,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주문한 신발을 로봇을 통해 5시간 만에 완전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배송함
  - 스피드 팩토리의 생산량은 연간 50만 켤레이며 공장에 배치된 인력은 10명으로 써, 같은 공정을 하는 동남아 공장이 신발을 완성하는데 3주의 시간과 600여 명의 근로자가 필요했던 것과 크게 대조적임
-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을 추진 중에 있음
  - 미국은 정부 안팎의 전문가를 소집하여 IT 프로젝트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고자 했으며 그 일환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PIF(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를 운영함
    - PIF는 2013년 SmartAmerica Challenge 프로젝트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상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CPS)을 통해 인간과 사물의 인터넷을 구현함으로써 안전, 지속가능성, 효율성, 건강관리 등의 향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SmartAmerica Challenge는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상물리시스템을 학술적, 이론적으로 발전시켜 기술 개발과 활용을 선도하고자 함

[그림 3-5] Smart America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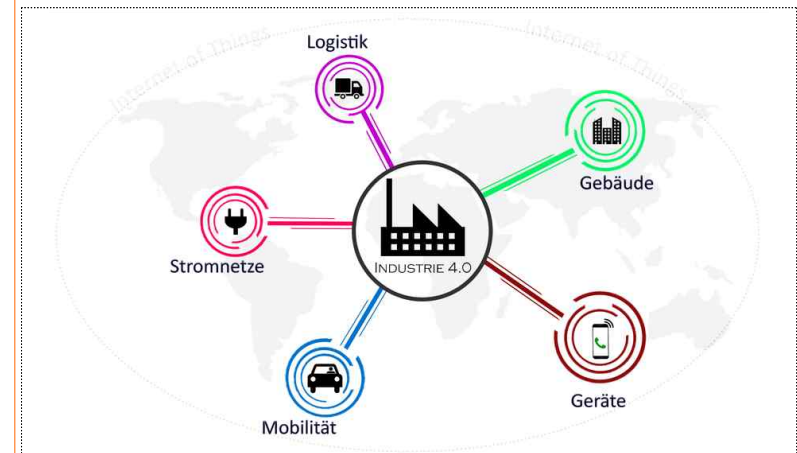
출처: <http://computefest.seas.harvard.edu/computational-science-ventures-2014>

\*TBs: Testbeds can be research driven and/or commercially-driven

주: 각 산업 내지 산업 영역에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가상물리시스템을 상호연결하여 운용하기 위해 테스트베드(Testbed:TB) 간 연결망 구축

- 또한, 미국은 네트워크 정보기술 연구개발(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NITRD) 프로그램을 연방기금으로 운영하여 생산성과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함
- 독일은 2011년부터 Industrie 4.0을 수립하여 제조업의 생산 공정, 물류, 노동자, 고객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함. 초기에는 민간이 주도로 했으나 성과가 더디자 정부 주도의 R&D지원과 산학연 혁신센터를 설립했으며 현재 중국 등 해외국가와 공동연구프로젝트 개발 지원을 추진 중임

[그림 3-6] 독일 Industrie 4.0 개요



출처: <http://www.htl-villach.at/schule/news/details/datum/29/01/2017/industrie-40.html>

- 일본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인 '2016 일본 재흥전략'을 발표하여 전략분야 중 하나로서 제4차 산업혁명 실현을 선정했으며 IoT, 빅데이터, AI, 로봇을 핵심 분야로 한 중점시책을 수립함
- 한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해 민·관 컨트롤타워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적 비전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범부처 대응방안 마련 및 관련 정책 조정, 정책방향 설정, 중·단기 정책과제 선정·심의,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자 함
  - 문화분야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술의 융복합과 더불어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책을 추진하고 문화창조융합센터와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등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개발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2. 제4차 산업혁명과 문화예술분야의 영향

-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회장은 기술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으면 문화 부흥(Culture Renaissance)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함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국민의 문화적 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며 다음과 대응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가. 새로운 문화장르의 개척과 지원

- 4차 산업혁명 등의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융합 장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함
  - 최근, 포켓몬고와 같은 증강현실(AR) 게임이 대중적 인기를 끌어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며 3D 영상, 상황인지 기술 등의 기술적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들이 등장함으로써 창의성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음
  - 또한 만화, 웹툰 등이 드라마, 게임, 뮤지컬 등으로 재구성되어 원천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기존의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에 접목하여 기존의 장르의 범주를 확대 혹은 새로운 예술분야를 개척할 수 있음
- 그러나 창의성은 개인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된 협업은 불가능하며, 프로젝트, 콜라보레이션 등의 협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분야 간 접점을 높여주는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초기 접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장르 간 협업이 장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함
  - 정부는 새로운 문화장르 개척을 위해 분야를 선정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적, 제반적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함
- 문화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융합 장르의 선정·지원이 필요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 코리아 랩’을 운영하여 융합 장르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 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설/장비 지원, 창작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Co-working) 지원,

초기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공모전 등 창의적 아이디어의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16년 기준 19억 8천만 원 예산)

※ 문체부는 콘텐츠 코리아 랩과 문화창조벤처단지와 통합을 기획하여('18년 콘텐츠 팩토리로 통합)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을 조성하고자 함(문화체육관광부, 2017)

- 경제적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융합 장르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 효과성이 낮더라도 장기적 시각에서 문화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융합 장르를 선정·지원하는 것도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임

나. 지방 분권화 및 협력체계 구축

- 한국은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문화예술정책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역 중심의 자율적 문화자치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부처 중심으로 기금 배분과 이에 따른 문화 통제가 존재해 옴
- 문체부가 2000년 이후 지역문화 클러스터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산업 정책을 도입하고 지구 조성 및 지역 문화산업관련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마케팅 분야의 투자가 매우 낮음
- 따라서 현재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문화예술정책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 구조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현재 중앙부처 중심의 일방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생산, 유통, 향유 등 자생적 문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문화예술위원회는 지방분권화를 위한 문화예술위원회-지방정부 간 관계 설정을 통해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지역 간 교류가 확대함으로써 수평적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함
  - 많은 지방정부에서 관광과 문화예술의 융합형태로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효과성이 높지 않아 지역축제를 연계한 여행상품, 테마여행 등을 개발하여 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구축에 기반하여

### 다양한 발전 방안을 만들 수 있음

-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가공, 예측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문화예술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문화다양성 확보 및 지역 간 교류를 위한 중간 다리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이 필요함

### 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 제4차 산업혁명이 생산 능력의 급격한 확장을 통해 인류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나 변화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음
  - 제3차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사이버 공간은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감이 결여된 인지상의 변화, 도덕감 약화, 감수성 결핍 등의 부작용을 낳았으며 이러한 문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
- 실증주의에 입각한 합리적 이성과 객관적 지식의 획득이 근대 이후 교육에서 중요시 되어 왔으나 다차원적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융·복합이 중요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에 적합하지 않음
  - 최근 다양한 교육방법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근대성 담론에 입각한 인재상을 지향하는 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교육적 투입에 따른 효율성, 효과성 중심의 경제적 관점이 유효함에 따라 학습자들의 물개성적, 획일적 특성을 회피할 수 없음
-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의 산출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단순 사실에 대한 암기보다는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여 분석, 비판, 종합 등을 통해 상황에 적합한 해답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이 점점 더 중요시됨
  - 미래사회의 급변성을 대비하기 위해 교과 중심의 주지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능력을 습득하여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며 문제 인식, 반성적 성찰 등 종합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학교 교육 이후에도 끊임없는 재교육을 통한 사회적 적응을 필요로 하며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이 교육의

### 주요 목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근대 합리성에 기초한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이 창의와 협력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재편될 것이며 이에 따른 다양한 교수방법들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음
- 문화예술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사고개발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기반으로 상호존중을 배울 수 있어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로 이어지는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채널을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라. 예술인 안전망 구축

- 예술인의 안전망 구축은 현안 과제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행정지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예술가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은 실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문화예술 분야의 변화가 예술가 개인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예술인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개인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예술 수요 확대 등을 통해 문화 예술분야의 생태계를 건전화, 선순환시킬 수 있는 대안 수립이 필요함

### 마.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기관 필요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수요의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임
-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예술 작품 및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기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함



- 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현장의 예술인과 일반 시민들과의 직접적, 지속적 접촉을 통한 능동적이며 유연한 현장 중심의 수요-공급 조정, 문화예술 정책 수립이 있어야 함

### 제3절 내부 환경분석 : 문예위 내부 의견 수렴

#### 1. 내부 의견수렴 과정 및 사업 구조

-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내부의견 수렴을 위해 1월 9일에서 13일까지 5일간 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함
- 구체적으로 현재 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5개 영역의 세부 사업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중요도와 역량을 비교함으로써 내부 직원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함

<표 3-3> 문화예술위원회 주요사업 구조

사업영역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술창작 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1. 문학창작육성 (문학창작산실, 문학광장, 집필공간 운영 등)
		2. 시각예술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산실, 미술관 운영 등)
		3.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육성, 행사지원 등)
		4. K-Arts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연예술 온라인 유통 등)
	예술인력육성	1. 차세대예술인력육성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등)
		2. 현장예술 인력지원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공연예술 스태프 지원 등)
		3. 무대예술전문교육 (현장 종사자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재교육 사업)
		4. 창작뮤지컬아카데미
	국제예술 교류지원	1. 예술가국제역량강화 (예술가 해외레지던스 파견 등)
		2. 한국문화예술세계화 (국제교류, 해외기관 협력, 베니스비엔날레, 국제협력공동기금)
생활속 예술활성화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2. 소외계층 문화순회
		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예술교육, 주민동아리, 마을축제 등 문화소외지역의 예술활동 기반 마을공동체 형성지원)
지역문화	지역문화	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예술진흥	예술지원	(공연예술단체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을 위한 상주공간 지원 등)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1.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지원 등)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문화예술 사회적인식제고	1. 예술정책실행력제고 (문화예술 간행물 발간, 문화예술 정책연구 등)
		2. 문화예술기부활성화 (기업·개인예술후원 분위기 조성, 기부금 모금 등)
국고사업	-	1. 공연예술센터 운영
		2. 예술자료원 운영
		3. 문화다양성 증진 (문화 간 상호교류, 소통활성화 워크숍, 교육, 아카이브 등 무지개 다리사업 지원)
		4.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
		5. 여가친화기업인증
		6.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현장 수요 높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조성)
		7. 공공미술 프로젝트
		8. 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 (우수 인문콘텐츠 제작을 통해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
		9. 인생나눔교실 운영 (인생나눔 멘토를 선정, 멘티그룹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음

- 파견직을 제외한 총 임·직원 194명 중 80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41.2%이며  
추가적으로 파견직 26명이 응답함
- 분석에서는 파견직 포함, 파견직 미포함을 나누어 결과값을 제시함

<표 3-4>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20대	17	15.7
	30대	52	48.1
	40대	28	25.9
	50대	11	10.2
	계	108	100.0
근무기간	5년 미만	63	60.0
	5년 이상 10년 미만	17	16.2
	10년 이상 15년 미만	6	5.7
	15년 이상 20년 미만	12	11.4
	20년 이상	7	6.7

	계	105	100.0
직위I	사원	27	25.5
	대리	27	25.5
	과장	27	25.5
	차장	15	14.2
	부장 이상	10	9.4
	계	106	100.0
직위2	직원	54	50.9
	간부	52	49.1
	계	106	100.0
재직형태	일반직I	58	54.7
	일반직II	19	17.9
	계약직	3	2.8
	파견직	26	24.5
	계	106	100.0
부서	기획조정부	10	9.3
	성과평가부	6	5.6
	재무관리부	11	10.2
	문학지원부	4	3.7
	시각예술부	9	8.3
	예술자료원	0	0.0
	공연지원부	4	3.7
	극장운영부	10	9.3
	무대예술부	1	.9
	순회사업부	14	13.0
	문화누리부	9	8.3
	문화예술후원센터	7	6.5
	협력개발부	5	4.6
	창의예술인력센터	10	9.3
	국제교류부	8	7.4
	문화올림픽TF	0	0.0
	계	108	100.0

## 2. 단위사업별 비교 분석

- 단위사업별 분석을 위해 세부사업 단위를 평균으로 계산하여 그 합계를 단위사업의 점수로 계산함

가. 전략적 중요도

- 파견직을 포함한 경우 전략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예술창작 역량강화—생활속 예술활성화—국고사업—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지역문화예술진흥 순으로 나타남

<표 3-5> 전략적 중요도 기술통계 (파견직 포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순위	최종
예술창작 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106	5.54	1.06	2	1
	예술인력육성	106	5.21	1.12	4	
	국제예술교류지원	104	5.78	1.18	1	
생활속 예술활성화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106	5.48	1.12	3	2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106	4.63	1.47	8	5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106	4.67	1.50	7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106	4.74	1.45	6	4
국고사업	-	104	4.75	1.08	5	3

- 파견직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예술창작 역량강화—생활속 예술활성화—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국고사업—지역문화예술진흥 순으로 나타남

<표 3-6> 전략적 중요도 기술통계 (파견직 미포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순위	최종
예술창작 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79	5.55	1.05	2	1
	예술인력육성	79	5.10	1.14	4	
	국제예술교류지원	77	5.86	1.22	1	
생활속 예술활성화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79	5.46	1.17	3	2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78	4.64	1.50	7	5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79	4.58	1.55	8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78	4.85	1.41	5	3
국고사업	-	78	4.66	1.12	6	4

- 예술창작 역량강화 사업과 생활속 예술활성화 사업이 문화예술위원회의 핵심사업 분야로 임·직원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국고사업은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함

나. 역량

- 파견직을 포함한 경우 역량을 살펴보면, 생활속 예술활성화—예술창작 역량강화—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국고사업—지역문화예술진흥 순으로 나타남

<표 3-7> 역량 기술통계 (파견직 포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순위	최종
예술창작 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104	5.08	1.09	4	2
	예술인력육성	105	5.17	1.13	3	
	국제예술교류지원	104	5.61	1.18	1	
생활속 예술활성화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105	5.51	1.10	2	1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106	4.63	1.47	7	5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104	4.44	1.44	8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106	4.74	1.45	5	3
국고사업	-	103	4.73	1.10	6	4

- 파견직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또한 파견직을 포함한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3-8> 역량 기술통계 (파견직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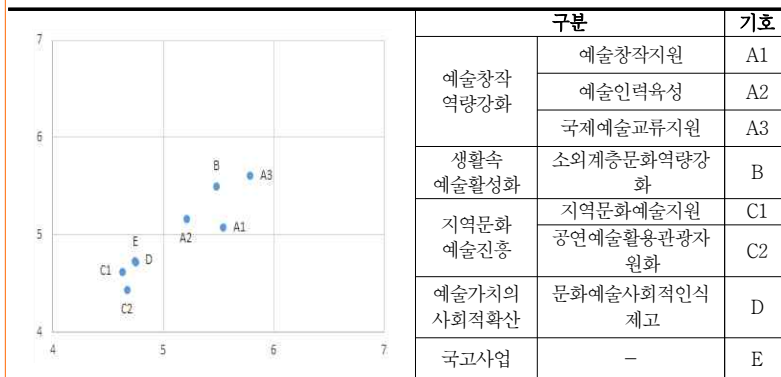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순위	최종
예술창작 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77	5.12	1.09	4	2
	예술인력육성	78	5.25	1.14	3	
	국제예술교류지원	78	5.63	1.18	1	
생활속 예술활성화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78	5.62	0.99	2	1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78	4.64	1.50	7	5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77	4.43	1.43	8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78	4.85	1.41	5	3
국고사업	-	77	4.73	1.06	6	4

- 생활속 예술활성화, 예술창작 역량강화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국고사업, 지역 문화예술진흥 부문에 대해 역량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3) 전략적 중요도-역량 관계 비교

□ 전략적 중요도와 역량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남

<표 3-9> 전략적 중요도 \* 역량 (파견직 포함)



<표 3-10> 전략적 중요도 \* 역량 (파견직 미포함)



- 전략적 중요도와 역량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고 있음. 예술창작 역량강화와 생활속 예술활성화는 전략적 중요도와 역량 모두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지역문화 예술진흥,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국고사업은 전략적 중요도,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3. 집단별 비교 분석

가. 근무기간

- 근무기간 간 빈도는 아래와 같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위해 5년 미만, 5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재코딩하여 비교함

<표 3-11> 근무기간 재코딩

구분	빈도(명)	비율(%)	재코딩 빈도	재코딩비율
5년 미만	63	60.0	63	60.0
5년 이상 10년 미만	17	16.2	23	21.9
10년 이상 15년 미만	6	5.7		
15년 이상 20년 미만	12	11.4	19	18.1
20년 이상	7	6.7		
계	105	100.0	105	100.0

- 분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lt;표 3-12&gt; 근무기간에 따른 차이 분산분석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F	유의수준
전략적 중요도	예술창작지원	예술창작지원	0.646	0.53
		<b>예술인력육성*</b>	5.642	0.00
		국제예술교류지원	0.470	0.63
	생활속예술활성화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0.022	0.98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0.522	0.60
		<b>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b>	3.536	0.03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0.169	0.84
역량	예술창작지원	<b>국고사업*</b>	5.993	0.00
		예술창작지원	0.278	0.76
		예술인력육성	0.317	0.73
	생활속예술활성화	국제예술교류지원	0.037	0.96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0.394	0.68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0.522	0.60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2.067	0.13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0.169	0.84
	국고사업	국고사업	1.149	0.32

- 전략적 중요도에 있어서 예술인력 육성,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국고사업 등이 근무 기간에 따라 중요도를 인식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 예술인력 육성에서 5년차 미만 근무 직원이 15년 이상 근무 직원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에서는 5년차 미만 근무 직원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직원과 15년 이상 근무 직원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고사업에 있어서 5년차 미만 근무 직원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직원과 15년 이상 근무 직원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역량에 있어서 근무 기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

나. 직위

- 직위에 따른 구분은 아래와 같이 사원, 대리, 과장을 포함한 과장 이하와 차장, 부장으로 구성된 차장 이상으로 구분하여 재코딩함

&lt;표 3-13&gt; 직위에 따른 구분

구분	빈도(명)	비율(%)
직위	과장 이하	81
	차장 이상	25
	계	106

- 집단별 평균비교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lt;표 3-14&gt; 직위에 따른 차이 분산분석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t	유의수준
전략적 중요도	예술창작지원	예술창작지원	.040	.968
		<b>예술인력육성*</b>	2.321	.022
		국제예술교류지원	-.758	.450
	생활속예술활성화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761	.448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1.151	.255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1.666	.099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015	.988
역량	예술창작지원	<b>국고사업*</b>	2.241	.027
		예술창작지원	-.474	.637
		예술인력육성	-.129	.898
	생활속예술활성화	국제예술교류지원	1.198	.234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837	.406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1.151	.255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1.728	.089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015	.988
	국고사업	국고사업	.927	.356

- 전략적 중요도에 있어서 예술인력 육성, 국고사업에서만 직위에 따른 중요도에 차이를 보임
- 예술인력 육성에서 과장 이하가 차장 이상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동일하게 과장 이하가 차장 이상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역량에 있어서 직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다. 재직형태

□ 재직형태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3-15> 재직형태에 따른 구분

구분	빈도	비율
재직형태	일반직I	58
	일반직II	19
	계약직	3
	파견직	26
	계	106
		100.0

□ 일반직(I,II 포함)이 가장 높은 비율(72.6%)로 나타났으며 계약직은 2.8%, 파견직은 24.5%로 나타남

<표 3-16> 재직형태에 따른 차이 분산분석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t	유의수준
전략적 중요도	예술창작지원	예술창작지원	1.559	.204
		<b>예술인력육성*</b>	4.075	.009
		국제예술교류지원	.730	.536
	생활속예술활성화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1.783	.155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324	.808
		<b>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b>	5.256	.002
	예술가지의사회적확산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369	.776
역량	국고사업	국고사업*	2.842	.042
	예술창작지원	예술창작지원	1.187	.319
		예술인력육성	1.280	.285
		국제예술교류지원	.491	.689
	생활속예술활성화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1.171	.325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324	.808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2.641	.054
	예술가지의사회적확산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369	.776
	국고사업	국고사업	.303	.823

□ 전략적 중요도에 있어서 예술인력 육성,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국고사업에서

만 재직형태에 따른 중요도 차이를 보임

- 예술인력 육성에서 파견직이 일반직I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에서는 계약직이 일반직I에 비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계약직이 해당 응답에 2명이 응답한 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움
-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약직이 일반직I에 비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응답자가 3명으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 역량에 있어서 재직형태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

#### 4. 세부사업별 비교 분석

가. 전략적 중요도

□ 세부사업별로 전략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파견직 포함)

&lt;표 3-17&gt; 세부사업별 전략적 중요도 (과건직 포함)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기호
예술창작 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1. 문학창작육성	106	5.58	1.337	1-A-1
		2. 시각예술창작육성	106	5.54	1.318	1-A-2
		3. 공연예술창작육성	106	5.92	1.075	1-A-3
		4. K-Arts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6	5.09	1.636	1-A-4
	예술인력육성	1. 차세대예술인력육성	106	5.72	1.209	1-B-1
		2. 현장예술 인력지원	106	5.01	1.451	1-B-2
		3. 무대예술전문교육	106	5.13	1.428	1-B-3
		4. 창작뮤지컬아카데미	106	4.96	1.386	1-B-4
	국제예술교류지원	1. 예술가국제역량강화	104	5.69	1.262	1-C-1
		2. 한국문화예술세계화	105	5.89	1.203	1-C-2
	생활속 예술 활성화	1. 통합문화이용권	106	5.54	1.402	2-A-1
		2. 소외계층 문화순회	106	5.72	1.263	2-A-2
		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106	5.19	1.500	2-A-3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104	4.90	1.452	3-A-1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1.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106	4.67	1.504	3-B-1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문화예술사회적 인식제고	1. 예술정책실행력제고	106	5.37	1.304	4-A-1
		2. 문화예술기부활성화	105	5.52	1.513	4-A-2
국고사업	-	1. 공연예술센터 운영	105	5.39	1.424	5-A
		2. 예술자료원 운영	106	5.41	1.433	5-B
		3. 문화다양성 증진	106	4.79	1.516	5-C
		4.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	106	4.42	1.729	5-D
		5. 여가친화기업인증	106	4.03	1.687	5-E
		6.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106	4.70	1.395	5-F
		7. 공공미술 프로젝트	105	4.95	1.396	5-G
		8. 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	106	4.53	1.657	5-H
		9. 인생나눔교실 운영	106	4.25	1.657	5-I

□ 예술창작지원의 공연예술창작육성(5.9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제예술교류지원의 한국문화예술세계화(5.89), 예술인력육성의 차세대예술인력육성(5.72),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의 소외계층 문화순회(5.72)가 중요하게 나타남

□ 반면, 국고사업인 여가친화기업인증(4.03), 인생나눔교실운영(4.25),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4.42)로 나타나 국고사업의 세부사업 대부분이 전략적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lt;표 3-18&gt; 세부사업별 전략적 중요도 (과건직 미포함)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기호
예술창작 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1. 문학창작육성	79	5.67	1.327	1-A-1
		2. 시각예술창작육성	79	5.56	1.356	1-A-2
		3. 공연예술창작육성	79	5.97	1.074	1-A-3
		4. K-Arts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	79	5.01	1.698	1-A-4
	예술인력육성	1. 차세대예술인력육성	79	5.73	1.237	1-B-1
		2. 현장예술 인력지원	79	4.89	1.441	1-B-2
		3. 무대예술전문교육	79	4.99	1.446	1-B-3
		4. 창작뮤지컬아카데미	79	4.80	1.453	1-B-4
	국제예술교류지원	1. 예술가국제역량강화	77	5.75	1.309	1-C-1
		2. 한국문화예술세계화	78	5.97	1.248	1-C-2
생활속 예술 활성화	소외계층문화 역량강화	1. 통합문화이용권	79	5.65	1.450	2-A-1
		2. 소외계층 문화순회	79	5.67	1.327	2-A-2
		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79	5.06	1.539	2-A-3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78	4.79	1.506	3-A-1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1.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79	4.58	1.549	3-B-1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문화예술사회적 인식제고	1. 예술정책실행력제고	79	5.47	1.259	4-A-1
		2. 문화예술기부활성화	79	5.66	1.510	4-A-2
국고사업	-	1. 공연예술센터 운영	78	5.44	1.482	5-A
		2. 예술자료원 운영	79	5.41	1.498	5-B
		3. 문화다양성 증진	79	4.67	1.558	5-C
		4.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	79	4.22	1.744	5-D
		5. 여가친화기업인증	79	3.86	1.723	5-E
		6.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79	4.61	1.445	5-F
		7. 공공미술 프로젝트	79	4.99	1.446	5-G
		8. 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	79	4.43	1.795	5-H
		9. 인생나눔교실 운영	79	4.14	1.767	5-I

□ 과건직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예술창작지원의 공연예술창작육성(5.97), 국제예술교류지원의 한국문화예술세계화(5.97)이 가장 높았으며 국제예술교류지원의 예술가국제역량강화(5.75), 예술인력육성의 차세대예술인력육성(5.73)으로 나타나 과건직을 포함한 경우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 여가친화기업인증(3.86), 인생나눔교실운영(4.14),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4.22), 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4.43) 등 전략적 중요도가 낮은 사업의 대부분이 국고사업에 속함



## 나. 역량

□ 세부사업별로 전략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파견직 포함)

&lt;표 3-19&gt; 세부사업별 역량 (파견직 포함)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빈도	평균	표준편차	기호
예술창작 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1. 문학창작육성	105	5.37	1.368	1-A-1
		2. 시각예술창작육성	105	5.16	1.395	1-A-2
		3. 공연예술창작육성	105	5.56	1.151	1-A-3
		4. K-Arts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4	4.24	1.640	1-A-4
	예술인력육성	1. 차세대예술인력육성	105	5.37	1.303	1-B-1
		2. 현장예술 인력지원	105	5.24	1.312	1-B-2
		3. 무대예술전문교육	105	5.35	1.278	1-B-3
		4. 창작뮤지컬아카데미	105	4.72	1.484	1-B-4
	국제예술교류지원	1. 예술가국제역량강화	105	5.52	1.272	1-C-1
		2. 한국문화예술세계화	105	5.68	1.213	1-C-2
생활속 예술 활성화	소외계층문화역량 강화	1. 통합문화이용권	106	5.88	1.357	2-A-1
		2. 소외계층 문화순회	106	5.88	1.209	2-A-2
		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105	4.77	1.558	2-A-3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공연예술활용관광 자원화	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106	4.63	1.469	3-A-1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문화예술사회적 인식제고	1. 공연예술센터 운영	106	5.11	1.396	5-A
		2. 예술자료원 운영	105	5.31	1.470	5-B
국고사업	-	3. 문화다양성 증진	105	4.74	1.461	5-C
		4.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	106	4.39	1.438	5-D
		5. 여가친화기업인증	106	4.27	1.589	5-E
		6.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105	4.65	1.487	5-F
		7. 공공미술 프로젝트	104	5.03	1.383	5-G
		8. 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	105	4.57	1.467	5-H
		9. 인생나눔교실 운영	104	4.63	1.508	5-I

□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의 통합문화이용권(5.88), 소외계층 문화순회(5.88), 국제 예술교류지원의 한국문화예술세계화(5.68)가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예술창작지원의 K-Arts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4.24), 국고사업인 여가친화기업인증(4.27),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4.39),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4.44) 등이 역량이 부족한 사업으로 나타남

&lt;표 3-20&gt; 세부사업별 역량 (파견직 미포함)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빈도	평균	표준편차	기호
예술창작 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1. 문학창작육성	78	5.46	1.374	1-A-1
		2. 시각예술창작육성	78	5.26	1.381	1-A-2
		3. 공연예술창작육성	78	5.64	1.093	1-A-3
		4. K-Arts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	77	4.17	1.720	1-A-4
	예술인력육성	1. 차세대예술인력육성	78	5.49	1.336	1-B-1
		2. 현장예술 인력지원	78	5.33	1.355	1-B-2
		3. 무대예술전문교육	78	5.47	1.276	1-B-3
		4. 창작뮤지컬아카데미	78	4.72	1.537	1-B-4
	국제예술교류지원	1. 예술가국제역량강화	78	5.56	1.265	1-C-1
		2. 한국문화예술세계화	78	5.69	1.199	1-C-2
생활속 예술 활성화	소외계층문화역량 강화	1. 통합문화이용권	78	6.08	1.287	2-A-1
		2. 소외계층 문화순회	78	6.01	1.063	2-A-2
		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78	4.76	1.513	2-A-3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공연예술활용관광 자원화	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78	4.64	1.503	3-A-1
		1.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77	4.43	1.427	3-B-1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문화예술사회적 인식제고	1. 예술정책실행력제고	78	4.68	1.508	4-A-1
		2. 문화예술기부활성화	78	5.01	1.624	4-A-2
국고사업	-	1. 공연예술센터 운영	78	5.15	1.359	5-A
		2. 예술자료원 운영	78	5.28	1.520	5-B
		3. 문화다양성 증진	78	4.76	1.443	5-C
		4.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	78	4.32	1.473	5-D
		5. 여가친화기업인증	78	4.22	1.617	5-E
		6.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78	4.65	1.449	5-F
		7. 공공미술 프로젝트	77	5.16	1.309	5-G
		8. 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	78	4.59	1.409	5-H
		9. 인생나눔교실 운영	78	4.67	1.456	5-I

□ 파견직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의 통합문화이용권(6.08), 소외계층 문화순회(6.01), 국제예술교류지원의 한국문화예술세계화(5.69), 예술 창작지원의 공연예술창작육성(5.64)이 역량이 높은 사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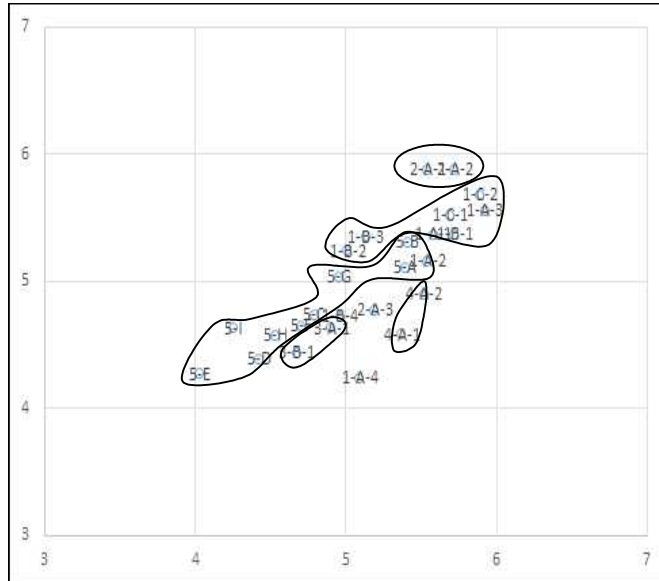
□ 그러나 예술창작지원의 K-Arts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4.17), 국고사업인 여가친화기업인증(4.22),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4.32),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4.43) 등은 역량이 부족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 다. 전략적 중요도-역량 간 비교

- 전략적 중요도와 역량 간 관계를 도식화 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남(파견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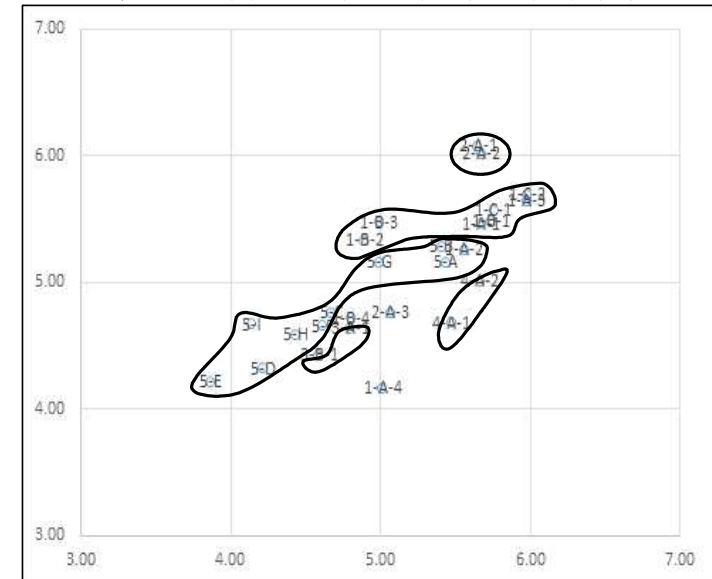
[그림 3-7] 전략적 중요도(가로) x 역량(세로) (파견직 포함)



- 생활속 예술활성화(2)가 전략적 중요도와 역량이 모두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창작 역량강화(1)도 역량은 조금 낮기는 하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들로 나타남
- 지역문화예술진흥(3)은 전략적 중요도와 역량이 타 사업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4)은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비해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역량 증진·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국고사업(5)의 경우, 사업별로 전략적 중요도와 역량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K-Arts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1-A-4), 창작뮤지컬아카데미(1-B-4),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2-A-3) 사업은 전략적 중요도와 역량이 같은 사업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8] 전략적 중요도(가로) x 역량(세로) (파견직 미포함)



- 파견직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파견직을 포함한 경우와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제 4절 소결

- 기존의 산업혁명만은 개성이 간과된 표준화, 대량생산으로 고속 성장이 가능했지만, 제4차 산업혁명은 개인, 소비자들과 선호를 맞춤형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으면서도 생산 총량이 줄지 않는 초고속 성장이 가능하므로 인간의 삶의 방식은 또 다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개인의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생산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성이 보다 강조되는 미래 사회에서 문화예술의 가치가 더욱 더 강조될 것으로 예측됨
- 예술가와 향유자 간의 거리는 더 좁아지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상호작용은 문화예술 분야의 수요와 공급의 조정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예술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예술이 만들어 지는 창작 과정이 새로운 예술 분야로 등장할 수도 있음
  - 그러나 대중문화와는 달리, 순수예술 분야는 경제적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미래 영향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은 계속되어야 함
-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모습의 예측은 불확실하며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 변화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기가 어려움
  - 과거 퍼스널 컴퓨터, 스마트폰의 등장처럼 인간의 생활양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플랫폼, 콘텐츠 등이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 또한, 많은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바람직한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입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나뉘게 될 것이며 수혜를 입지 못한 집단은 경쟁력 상실로 인해 그 격차가 더욱 더 커질 가능성도 높음
- 이는 문화예술계에도 해당되는 사안으로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해 예술가와 예술단체, 정부기관 등이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 문예위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별 전략적 중요도, 역량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창작지원 사업과 생활속 예술활성화 사업이 전략적 중요도와 높은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업으로 파악됨

-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략적 중요도와 역량 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사업과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은 전략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국고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전략적 중요도와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국고지원 사업의 조정을 통해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사업과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에 투자를 늘려 역량 증진을 도모해야 함
- 문예위가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환경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예술강국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해야 함
- 그러나 문화예술정책 추진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사성과 중복성 등으로 인한 정책 비효율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부족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함
  - 중앙 중심의 분절적, 단편적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관련 기관 간 수평적 협력체계가 약화되고, 오히려 수직적 연계에 집중함
  -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의 약화로 특정업무의 쏠림 또는 필요한 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기관 간 역할 재검토와 더불어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예술정책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검토 필요

## 제4장

### 문화예술정책 협력체계 분석

제1절 : 문화예술 정책 유관기관 현황

1. 문화예술정책 유관기관 현황 개관 및 분석대상 설정

제2절 : 기관별 사업 현황

1. 기관별 추진사업 및 특징

제3절 : 문화예술 유관기관 정책추진체계 분석

1. 정책추진체계 분석을 위한 접근 기준
2. 분석결과

제4절 : 소결

## 제1절 문화예술 정책 유관기관 현황

- 본 절에서는 한국의 문화예술분야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살펴보고, 문화예술정책의 지원체계를 살펴봄
- 문화예술 유관기관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추진체계 전반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기관 간 업무연계, 정책의 공백부분 최소화, 추진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 조직체계 발전 분석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음
- 문화예술 분야는 기초예술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문화콘텐츠 산업분야 중 기초예술분야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분석함
- 문화예술분야 유관기관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기타 주요법인 등으로 구분 가능함
- 2017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18개 외에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은 총 33개임

## 1. 문화예술정책 유관기관 현황 개관 및 분석대상 설정

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 문화체육관광부는 2차관 1차관보 7실 16관 51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문화예술 분야 전담부서는 문화예술정책실이며 그 외 일부 관련부분으로 문화콘텐츠산업실이 있음
  - － 문화예술정책실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문화기반정책관 등 3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문화정책관은 문화·여가 정책 수립, 국민 여가 프로그램 운영,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 수립·추진,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 우리 문화의 세계화 및 국가 간 상호 문화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함
    - 예술정책관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창작지원과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을 위한 예술진흥정책의 수립, 공연예술과 전통예술의 시설 확충 및 창작활

동 지원,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지원,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예술정책관은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 등 총 4과로 구성됨
- 문화기반정책관은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민족문화자원의 발굴·활용 및 창의적 계승,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정책, 공·사립 박물관 육성지원, 국민독서문화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함

[그림 4-1] 문화예술정책실 조직도



- 문화콘텐츠산업실은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으로 구성되며, 문화콘텐츠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콘텐츠정책관은 영화, 비디오물,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물, 게임산업, 음악, 만화, 대중문화예술, 패션,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각 분야의 기반 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개발, 우리 문화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 등의 업무를 담당

- 저작권정책관은 저작권 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체계 구축,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
- 미디어정책관은 정기 간행물, 방송 영상, 광고, 출판, 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 문화 미디어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문화 미디어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등을 담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추진, 조성위원회 운영지원, 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예술진흥사업지원, 투자진흥지구 및 투자조합 업무를 담당함

[그림 4-2] 문화콘텐츠산업실 조직도



- 소속기관은 총 1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음(2017년 2월 기준)
  - (①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영재교육 및 체계적인 예술 실기교육 추진
  - (②국악고등학교·③국악중학교) 국악과 전통무용에 관한 정통성 계승 교육과

## 전문 국악인의 양성

- (④전통예술고등학교·⑤전통예술중학교)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통예술인의 양성
- (⑥국립중앙박물관)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홍보·보급 및 교류
- (⑦국립국어원)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
- (⑧국립중앙도서관)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등
- (⑨해외문화홍보원) 한국의 문화 소개,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해외에 알리고 국가이미지 제고(27개국 31개 한국문화원 운영)
- (⑩국립국악원) 민속음악을 보존·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
- (⑪국립민속박물관) 우리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
- (⑫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
- (⑬국립한글박물관)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
- (⑭국립중앙극장)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
- (⑮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
- (⑯한국정책방송원)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정보, 교양, 문화, 정책 뉴스를 24시간 방송하는 공공채널
- (⑰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공유·확산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통해, 국가와 장르를 넘어 창조와 교류를 통한 아시아의 문화 발전

을 지향, 아시아문화의 연구·교육·교류, 아시아 기반 콘텐츠 창·제작시스템 구축 및 지역 문화역량 연계로 전당의 선순환 발전구조 구축을 통한 '창조경제 견인'

- (⑱예술원사무국)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
- (⑲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 도박의 예방과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련연구 진행,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나.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지정 33개의 공공기관은 공기업 2개, 준정부기관 7개, 기타 공공기관 24개로 구성되어 있음(2017. 2 기준)
- 준시장형 공기업은 2개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분야를 소관하고 있음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총 4개가 있음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등 총 3개가 있음
  - 기타 공공기관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등 총 24개의 공공기관이 해당됨

&lt;표 4-1&gt;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준시장형 공기업(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기타 공공기관(24)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계(33)		

\*출처 : 기획재정부(2017)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을 부서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2> 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서별 산하 공공기관 현황

소 관	계	세부 내역
합 계	33개	
문화예술 정책실	13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한국문화진흥(주), (재)국악방송, 세종학당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학번역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콘텐츠 산업실	10개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연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광정책실	2개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체육정책실	5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기타	3개	한국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다. 기타 주요법인

□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주요단체 및 법인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재)국립극단,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재)국립현대무용단, (재)서울예술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등 분야 및 장르별로 많음

라. 본 연구에서의 문화예술 유관기관

□ 본 연구는 문화예술 정책 추진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유관기관으로, 문화예술정책실 소관 공공기관(일부 제외), 문화콘텐츠 산업분야 중 문화예술분야와 연계가 된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주요법인 등으로부터 약 20개 기관을

도출하였음

- 문화예술정책실 소관 공공기관 : 11개 기관(2개 기관 제외)
  - 세종학당재단 :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보급을 통해 문화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설립목적이 있음
  - 한국문화진흥(주) : 문화상품권 발행으로 한국문화진흥에 기여
- 문화콘텐츠산업실 소관 공공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 포함
  -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예술지원과 문화산업 콘텐츠 간 연계성이 큼
  - 영화진흥위원회 : 연극, 뮤지컬 등 기초예술 분야와 영화산업 간 연계성이 큼
  -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예술작품의 저작권 관련 예술가 권리 보호 측면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출판산업과 문학 등 문화예술진흥 간 연계성이 큼
- 기타 : 한국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원 등 2개 기관
- 관련법인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3개 기관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전통예술 보존 및 전승, 창작활동 지원
  - 한국문화원연합회 : 지방문화원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문예회관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

□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관련 유관기관은 다음과 같음.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살펴봄



&lt;표 4-3&gt; 문화예술정책 유관기관 정리

구분	수	기관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기타 공공기관	13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요법인	3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계	20	

제2절 기관별 사업 현황

## 1. 기관별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 가. 한국문학번역원

-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체계적인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를 통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2005년 설립된 특수법인임(문화예술진흥법 제 38조→2016년 문학진흥법 제13조로 근거법령 이관)
- 주요기능은 ① 국내문학의 번역출판, ② 전문 번역가 양성, ③ 한국문학 해외교류임

&lt;표 4-4&gt; 한국문학번역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문학번역원	2005	기타공공기관(특수법인)	한국문학 번역출판지원, 전문번역가 양성, 한국문학 해외교류사업 등을 통하여 한국문학 해외 선양에 기여하고, 문학창작 활성화를 도모 함	1. 한국문학 번역, 출판사업 2. 한국문학 번역가 양성사업 3. 한국문학 세계화관련 기획조사업무 4. 한국문학 해외교류 홍보활동 및 장학연구사업 5. 한국문학 홍보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도서의 번역출판 6. 문학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출판사업

## 나. 아시아문화원

-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에 설립한 특수법인임(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주요기능은 아시아 문화 관련 ① 연구·홍보, ② 콘텐츠 창작·제작 및 유통, ③ 전문인력 양성, ④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 구성 등임

&lt;표 4-5&gt; 아시아문화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아시아문화원	2015	기타공공기관 (특수법인)	아시아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	1. 아시아 문화의 연구·홍보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제작 및 유통 3. 아시아 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 구성·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다. 정동극장

- 정동극장은 전통공연예술의 명품화, 대중화, 세계화를 1996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복합 공연장임
- 주요기능은 ① 극장운영 관리, ② 작품제작 등 공연예술진흥, ③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발전, ④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 등

&lt;표 4-6&gt; 정동극장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정동극장	1996	기타공공기관 (재단법인)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발전 및 공연예술 진흥사업에 기여	1. 정동극장의 운영 관리사업 2. 무대예술작품 제작 등 공연예술진흥사업 3.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발전사업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6. 기타 법인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 라. 예술경영지원센터

-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06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임

- 주요기능은 ① 예술 유통구조의 체계화 및 활성화, ② 예술기관 경영 컨설팅, ③ 예술기관 경영인력 양성 및 지원, ④ 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⑤ 국내외 예술시장 정보 구축·관리·활용 ⑥ 문화예술분야 조사·통계·연구 등임

&lt;표 4-7&gt; 예술경영지원센터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06	기타공공기관 (재단법인)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	1. 예술 유통구조의 체계화 및 활성화 2. 예술기관 운영 및 경영 관련 컨설팅 3. 예술기관 경영인력 양성 및 지원 4. 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5. 국내외 예술시장정보의 구축·관리·활용 6. 서울아트마켓 개최 및 운영 7. 문화예술분야 조사·통계·연구

## 마. 한국문화원연합회

- 한국문화원연합회는 향토문화의 보존·전승·발굴을 위해 활동하는 각 지역의 지방문화원 간 균형발전과 상호 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1962년에 생긴 특수법인(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
- 주요기능은 ①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②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③ 국내 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④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등

&lt;표 4-8&gt; 한국문화원연합회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문화원연합회	1962	특수법인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 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함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 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그 밖에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바. 예술의 전당

- 예술의 전당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특수법인(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 주요기능은 ① 예술의 전당 운영, ②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③ 문화예술 교육사업, ④ 관계자료 수집관리, 보급, 조사연구, ⑤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등임

<표 4-9> 예술의 전당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예술의 전당	1987	기타공공기관 (특수법인)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 예술 공간의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	1. 예술의 전당 건립과 운영 2. 공연 및 작품전시활동과 그 보급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

### 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문예회관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에 생긴 특수법인(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
- 주요기능은 ①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 증진 지원, ②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③ 운영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자문, ④ 국내외 교류 등이 있음

<표 4-10> 한국문화원연합회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2	특수법인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화예술회관 육성	1.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 증진 지원 2.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4.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5.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 6.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 활동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7.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2005년에 설립된 특수법인(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 10조 및 부칙 제 2조)
- 주요기능은 ① 학교, 교육시설/단체 간 상호 연계 협력망 구축·운영 ②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교원의 연수지원,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등

<표 4-1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5	기타공공기관 (특수법인)	개개인의 문화예술 향유 능력 및 창의력 함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	1.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국민인식 제고 사업 2. 학교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간의 상호 연계협력망의 구축·운영 3.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4.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 및 인력풀 운영 6.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7. 문화예술교육 정보 수집·정보 제공 등

#### 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예술의 보존·전승 및 저변 확대를 통한 국립국악원 및 국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
- 주요기능은 ① 국립국악원 후원회 운영, ② 공연기획단 운영, ③ 국고보조사업 수행, ④ 전통예술 국내외 공연 및 교류활동 등

<표 4-12>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07	재단법인	전통예술의 보존·전승 및 저변 확대를 통한 국립국악원 및 국악발전에 기여	1. 국립국악원 후원회 운영 2. 공연기획단 운영 3.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 수행 4. 전통예술 국내외 공연·교류활동 및 학술교육사업 5. 국립국악원 대표 공연프로그램 개발 지원 6. 전통예술 관련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보급 사업 7. 국립국악원 지원에 관한 사업 8.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부대사업

#### 자.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2009년에 생긴 특수법인(저작권법 제 112조)
- 주요기능은 ① 저작권 분쟁 알선·조정, ②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③ 저작권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④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등이 있음

<표 4-13>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기타공공기관(특수법인)	저작물 등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	1. 저작권 관련 분쟁의 알선·조정 2. 저작권법상 각종 보상금 및 위탁관리 수수료 등 전문적 사항 심의 3.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 등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 명령 요청

#### 차.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9년에 생긴 특수법인(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31조)
- 주요기능은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① 정책 및 제도 연구·조사·기획, ②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③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지원, ④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저작권, ⑤ 제작·유통 활성화, 경영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표 4-14>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특수법인)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함	1.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4.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유통 활성화 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유통·이용촉진 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p>카. 예술인복지재단</p> <p>□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2년에 생긴 특수법인(예술인 복지법 제 8조)</p> <p>□ 주요기능은 ①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②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③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 예술인의 복지 지원, ④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등</p>				

<표 4-15> 예술인복지재단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예술인복지재단	2012	기타공공기관 (특수법인)	예술활동을 통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하는데 공헌하는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인 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공제사업 관리·운영 등
<p>타. 영화진흥위원회</p> <p>□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와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1973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조)</p> <p>□ 주요기능은 ①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②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③ 영상제작 관련 시설 관리 및 운영, ④ 영화발전기금 관리 및 운영, ⑤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유통배급, 해외진출 지원 등</p>				
<표 4-16>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영화진흥위원회	197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특수법인)	한국영화의 진흥과 영화산업의 육성 지원	1. 한국영화의 진흥과 영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2. 한국영화의 국외진출 및 영화의 국제교류의 지원 3. 영화제작을 위한 융자 4. 영화의 진흥,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5. 영화제작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영화인의 복지증진 7. 기타 영화진흥에 관한 사업

## 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2012년에 생긴 특수법인(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16조)
- 주요기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① 정책 및 제도 연구조사, ②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③ 전문인력 양성, ④ 제작 및 유통 활성화 기타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등

&lt;표 4-17&gt;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2	기타공공기관(특수법인)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 조사, 기획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출판문화산업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5. 양서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 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6. 전자출판의 육성 지원 7. 출판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9. 간행물의 유행성 여부 심의 10. 그 밖의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하. 한국문화정보원

-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관련 공공기관의 문화정보화촉진과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2002년에 생긴 재단법인(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16조)
- 주요기능은 ①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정보화 추진체계 지원, ② 문화정보화 및 지식관리시스템 기획 및 중장기 연구지원, 기술지원, ③ 문화정보화 사업 발굴/추진 및 지원, ④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지원 등

&lt;표 4-18&gt; 한국문화정보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문화정보원	2002	기타공공기관(재단법인)	문화분야의 정보화 정책 개발 및 정보화 사업 발굴/추진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산하 기관 및 관련 단체의 문화 정보화 촉진 및 정보화 사업 지원으로 창의적 지식정보사회 기반 구축 및 문화경쟁력 강화	1. 문화정보화 전문기술 지원 2. 문화정보화 정책 연구개발 지원 3. 문화정보통합센터(IDC)운영 4. 문화포털 운영 5. 문화정보화 사업관리 및 운영 지원 6. 문화정보화업무 평가지침 개발, 평가 및 지원 7. 공공문화정보 공개 및 민간활용 촉진사업 8. 문화관련 동영상콘텐츠 생산/관리, 문화PD 양성/문화네트워크 관리 9. 문화정보화 관련 교육 등 인력양성 및 교육시설 운영 등 연수사업 10.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신탁관리 및 관련 사업 11.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지원

## 거. 국악방송

- 국악방송은 국악 및 한국전통문화예술을 국민에 홍보, 보급, 교육함으로써 국악진흥과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발전, 지역문화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0년에 생긴 재단법인
- 주요기능은 ① 국악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② 국악공연, 음반 등의 제작, 보급, 홍보, ③ 국악의 창작, 교육, 연구 및 대중화, ④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보급과 진흥, 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등

&lt;표 4-19&gt; 국악방송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국악방송	2000	기타공공기관(재단법인)	한국전통 및 창작국악 보급교육과 국악의 대중화	1. 국악방송사업 2. 국악방송프로그램의 제작보급 3. 국악창작교육연구 및 각종 대중화 사업



### 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창의적인 공예문화와 디자인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통하여 한국공예 및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에 생긴 재단법인
- 주요기능은 공예·디자인과 관련된 ① 정책연구 개발, ② 진흥, 전시 사업, ③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④ 상품개발 및 유통 사업 등

<표 4-20>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0	기타공공기관 (재단법인)	창의적인 공예문화와 디자인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통하여 한국공예 및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공예·디자인 정책 연구·개발 2. 국내외 공예·디자인 진흥사업 3. 공예·디자인 전시 사업 4. 공예·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사업 5. 공예·디자인 상품 개발 및 유통사업 6. 공예·디자인 관련 아카이브구축 및 콘텐츠 개발 8. 공예·디자인 관련 서적 발간 및 출판물 판매에 관한 사업 9. 공예·디자인 관련 국제교류 및 국내외 협력망 구축

### 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및 이용촉진과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된 특수법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3조)
- 주요기능은 ① 국립박물관 공연장 운영, ②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 및 보급, ③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④ 기타 편의시설 운영 등

<표 4-21>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04	특수법인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1. 국립박물관 공연장 운영 2.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 및 보급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문화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출판사업 7. 국립박물관 지원 및 박물관 발전을 위한 사업 8. 박물관 문화예술사업 관련 국내외 교류 활동 및 교육 9.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 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와 관광분야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 주요기능은 공예·디자인과 관련된 ① 문화관광, 문화산업, 예술진흥 등을 위한 정책연구 및 조사, ② 문화복지, 문화환경 조성,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 관련 연구, ③ 정보화 개발 및 정보서비스 제공 등

<표 4-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2	기타공공기관 (재단법인)	문화와 관광분야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 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문화관광 산업의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	1. 문화·관광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2.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 3.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 4. 예술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5. 문화복지 및 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사 연구 6.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7. 남북한 문화통합 및 북한 문화 예술에 관한 조사 연구 8. 관광자원개발관련 조사 연구 9.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



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으로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있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2005년에 생긴 특수법인(문화예술진흥법 제 20조)
- 주요기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① 창작, 매개, 향수 관련 사업이나 활동, ② 정책연구, 개발교육, 연수, ③ 전통문화 보존·발전, ④ 지역문화예술진흥, ⑤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교류, ⑥ 재원확충 및 조성 등

<표 4-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연도	법적성격	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특수법인)	<p>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li> <li>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연수 사업이나 활동</li> <li>3.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li> <li>4.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법 제4조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li> <li>5.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의 교류 사업이나 활동</li> <li>6.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li> <li>7.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증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li> <li>8.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나 활동</li> <li>9. 공공미술(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미술 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li> <li>10.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시설의 설치 및 운영</li> </ol>

## 2. 기관별 추진사업 및 특징

가. 한국문학번역원

-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한국문학번역원의 주요사업은 ① 번역지원, ② 출판지

원, ③ 국내외 교류, ④ 교육, ⑤ 출판부 사업, ⑥ 번역전문도서관 운영이 있음

- 설립목적 고려시 한국문학의 제대로 된 번역을 위한 지원체계가 중요하며 문학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우수한 번역작가가 충분히 있어야 함
-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기 출판된 서적에 대한 번역지원으로서 번역작가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 점에서 문학인들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반 문학작가 지원과 차이가 있음.
  - 해외에 우리문학의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독자들을 대상으로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 대상 향유사업과 차별성이 있으며 해외교류 사업, 한국작가 소개 등의 정보제공 기능이 중요함
  - 한국문학의 해외 확산이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출판시장 저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출판산업 육성, 즉,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와 관련성이 큼
  - 번역작가 이외에 국내 작가를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사업과 연계가 중요하여 문학작가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문학작가지원, 레지던시 등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업무연관성이 큼

나. 아시아문화원

- 아시아문화원의 주요사업은 ① 아시아문화자원 및 콘텐츠 아카이빙 등 아시아문화연구, ② 콘텐츠 창작·제작 및 유통, ③ 전시사업, ④ 공연사업(아시아공동제작, 유통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⑤ 교육사업 등임
-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 문화대상 연구, 콘텐츠 제작, 유통 활성화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영역도 상당히 넓음. 공연, 전시, 기획만이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능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공연시설과 차별성이 있음
- 대상 범위도 아시아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기관 등이 포함되며, 이들의 창작과 교류의 장을 제공함
- 아시아 문화라는 광범위한 대상을 다루고 있어 사업 단위 및 규모가 특정범위로 한정되기 어려운 속성이 있고, 타 문화예술지원 기관들의 사업과 사업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아카이빙 등 자료구축, 창작지원, 전시 등 향유확대, 교육체험 등

다. 정동극장

- 주요사업은 ① 전통공연예술진흥사업, ② 교육사업, ③ 소외계층을 문화복지 사업임
- 정동극장은 다양한 전통공연과 명확한 대상집단 설정을 통한 공연을 하고 있음
  - 공공극장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전통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국내 관객들에게 전통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 상설공연 외에 창작지원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순회사업도 실시함
  - 전통예술공연, 외주공연 외에도 '전통 ing' 등 공모지원 사업을 통해 창작지원도 하고 있음
  - 상설 공연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향유증대사업, 찾아가는 정동극장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도 진행

라. 예술경영지원센터

- 주요사업은 ① 교육컨설팅, ②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③ 실태조사 및 예술행사 평가, ④ 국제교류 및 국제시장 진출지원 등, ⑤ 시각예술 분야 지원 등 임
  - 예술단체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경영, 홍보, 재정조달 등의 분야별 전문인 양성을 위한 예술경영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 공연예술의 관람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공연, 시각예술 분야 실태조사 등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기본자료 취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연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확대,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는 커넥션 사업,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하는 트래블링 코리안아츠 등을 수행중임
  - 시각예술 기획자 지원프로그램(프로젝트 비아), 시각예술 도록, 자료번역지원,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 등의 사업도 추진

-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창작지원 기능을 갖는 기관과는 차이가 있음
- 예술위원회의 창작역량 강화사업 영역도 단순 우수한 작품 제작지원에서 국내외 확산 체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유통 활성화 부분은 상당부분 중복됨
  - 예를 들면, 온라인·모바일 생중계를 통한 우수예술작품 향유 기회 확대, 어린이·청소년 대상 잠재 관객 및 미래 예술가 개발 등을 위한 사업, 우수작품의 해외진출 지원, 예술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해외 문화예술지원기구 간 공동사업 추진 등임

마. 한국문화원연합회

- 주요사업은 ①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 ②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③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④ 전국향토문화공모전, ⑤ 교육연수, 문화수요창출사업, 청소년지역문화창조 프로그램 등
- 문화원의 중요한 역할은 지역문화의 발굴과 활동 지원이임. 지역의 특수한 향토사를 발굴, 계승 발전과 지역사회 주민들 대상으로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 강화가 중요함.
- 문화원연합회는 전국 16개 시도연합회와 228개의 지역문화원과 연계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방문화가 균형발전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함. 향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원과 지역의 문화재단, 지자체 등 간의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히 되어야 함

바. 예술의 전당

- 예술의 전당 주요사업은 ① 오페라하우스 기획사업, 음악당 기획사업 등 공연사업, ② 미술관, 디자인 미술, 서예 등 전시사업, ③ 강좌 중심의 교육사업, ④ 고객관리 및 대관사업임
- 예술의 전당은 음악당, 미술관, 연극, 무용, 오페라 및 뮤지컬 전문극장 등의 전문

공간이 있는 복합공간으로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작품을 관람/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주요사업은 ①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예회관 레퍼토리 개발지원, 해피존 티켓나눔, 문화가 있는 날 등 공연전시 사업, ②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등 교육, 연수, ③ 문화회관 관련 연구, 조사, 컨설팅, ④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등
- 문화예술회관은 국민의 문화향수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관람/전시/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관건
- 문화예술회관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향유를 위한 시설로서 지방화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네트워킹을 통하여 운영의 전문화, 효율화, 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연합회의 기능이 중요함

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주요사업은 ① 문화예술교육 정책기획, 연구개발, 서비스 등 전략기획연구, ② 맞춤형 전문인력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개발, ③ 문화예술교육 국제협력, ④ 예술강사 등 교육인력 지원, ⑤ 교육, 예술치유, 가족문화, 지역활성화 등 예술 협력사업 등
- 사업의 큰 축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됨. 교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
- 사업운영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 등의 중앙부처 간 협력, 지방교육청,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생활문화진흥원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함

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주요사업은 ① 거리공연 등 전통품목 활성화, 세계무형유산 공모, 전국 예술계고교 국악전공생 장학금 지원 등 일반 지원사업, ② 전통예술 복원 및 창작 작품을 지원

하는 창작지원사업, ③ 국제교류 지원사업, ④ 고궁 공연, 페스티벌 등 공연사업, ⑤ 교육사업 등을 수행함

- 전통예술진흥재단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비록 기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지원과 향유 증대사업, 인력양성, 국제교류, 연구조사 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문화재청(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통예술분야 관련 창작지원, 문화순회, 국제교류 등),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경영지원센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관련이 큼

차. 한국저작권위원회

- 주요사업은 ① 저작권 분쟁조정 및 알선, ② 법정허락 및 저작권 등록, ③ 기증, 감정, ④ SW 관리 지원, ⑤ 상담센터 운영 및 저작권 교육 등임
- 저작권위원회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통해 창작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정책 관련성이 높음

카.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츠 진흥원의 주요사업은 ① 이야기, 게임, 만화, 애니, 캐릭터, 음악, 패션, 융복합, 대중문화 등 9개 장르에 대해 산업백서 발간, 동향정보 제공 및 기초연구 수행, ② 콘텐츠 융합형 교육 및 창업인력 양성, 방송영상 인력양성 등 인력풀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③ 제작, 투자, 유통, 마케팅,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④ 해외진출과 문화기술 사업화, 전시 및 성과확산 등 문화기술 육성임
- 창작 활동과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의 연계 강화로 예술시장을 확대하고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예술 분야와 매우 긴밀한 관계라 할 수 있음
- 다만,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진흥이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토대가 확고히 이루어져야 하고 양자 간 기능 연계가 필요

타. 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복지재단의 주요사업은 ① 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예술활동증명 발급, ② 예술인 관람료 할인혜택을 주는 예술인패스 발급운영, ③ 원로예술인 등 창작준비금 지원, ④ 예술인과 기관 간 매개를 해주는 예술인파견지원, ⑤ 예술인산재보험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있음
- 예술인복지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예술가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라는 예술인 복지정책으로, 창작지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예술인 복지정책임
- 예술인 범위,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직무창출,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 등 예술활동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 등에 중점을 둠

#### 과. 영화진흥위원회

- 주요사업은 ① 독립영화제작지원, 한국영화 개봉작 차기작 기획개발비 지원, 다양성 가족영화 등 영화제작지원, ② 전용관 운영지원, 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 등 영화산업 유통지원, ③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④ 국내/국제영화제 육성, ⑤ 인적자원 관리, ⑥ 영화정책 지원, 통합전산망, 정보웹사이트 운영 등임
-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창작역량 및 영화산업의 기초인프라를 강화하여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토대역할을 하고 있음. 공연예술 분야의 종사자가 영화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기초예술분야와 높은 연계성을 갖고 있음

#### 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주요사업은 ① 출판수요 창출 및 유통 선진화를 위한 사업, ② 우수도서 보급, 미발간된 국내 우수출판콘텐츠 발굴 및 지원 등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③ 전자책 제작지원, 보급을 위한 활동 등 전자출판 및 신성장동력 육성, ④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사업, ⑤ 출판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및 독서문화 증진 등임
- 출판분야는 영상이나 게임, 소프트웨어 등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토대 역할로서 문학의 향유층을 확대하고 저변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따라서, 문학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출판문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의 기능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콘텐츠 산업이라는 관점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계성이 강함

#### 거. 한국문화정보원

- 주요사업은 ① 문화포털, 문화데이터 운영관리 등 문화정보 서비스 제공, ② 문화정보 전달자를 양성하는 문화PD 양성, 문화미디어 콘텐츠 생산 및 서비스 제공, ③ 문화정보화 추진체계 운영지원, 정보화 컨설팅 등 문화정보화 지원, ④ 문화정보통합센터 구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지원 등
- 문화정보의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기능 강화, 해외 현지에서 한국문화 관련 홍보 지원 등의 문화정보 서비스를 담당함

#### 너. 국악방송

- 주요사업은 ① 방송프로그램 제작, ② 국악방송 전국화, ③ 국악콘텐츠 영상화, ④ 다목적 공개홀 구축 등
- 국악전문 미디어를 통한 전통국악의 관심제고와 향유 활성화 차원에서 국악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중요 역할을 하고 있음.

#### 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주요사업은 ① 공예마을 육성, 공연트렌드페어(공예전문박람회), 해외한국공예전, 한지 프로모션 등 공예부문 지원, ② 생활문화공간 조성 등 디자인 사업, ③ 스타상품 개발, 전통문화유산상품개발, 우수공예품 지정표시제 등 상품유통개발
- 공예산업과 디자인산업 진흥기관의 통합으로 한국의 우수한 문화상품 개발과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함. 박물관문화재단, 문화재단, 공예디자인진흥원 등으로 나뉘어 수행된 문화상품 개발기능과 사업권한을 공예디자인진흥원으로 2015년 일원화함

- 세 기관의 유사한 문화상품 개발기능 수행으로 인력·예산의 비효율 발생
  - 문화상품 질 향상에 한계, 전체 문화상품에 대한 체계적 품질관리 곤란
  - 다만 상품판매는 각 기관의 유통채널 그대로 활용
- 문화재와 박물관 소장품, 전통 공예 기법 등을 현대적 기술과 디자인에 접목, 문화 관광 상품, 패션 생활 용품 등 다양한 상품 개발로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 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주요사업은 ① 극장용 기획공연 및 박물관 문화행사 추진 등 문화예술 공연사업, ② 문화상품 사업, ③ 편의서비스 사업 등임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공연장 및 기타 편의시설 운영 등 문화예술 사업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향유를 높이고자 함
- 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주요사업은 ① 문화예술분야, ② 문화산업분야, ③ 관광정책, ④ 관광산업, ⑤ 창조여가, ⑥ 정책통계평가 등 문화분야 정책연구조사 기능을 담당함
- 국가적으로 문화,관광 분야의 정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기능
- 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요사업은 ①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국제예술교류지원 등 예술창작역량 강화, ②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등 소외계층문화역량 강화, ③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등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④ 예술기부 등 문화예술 사회적 인식확산 등임
- 지금까지 살펴본 문화예술 유관기관의 세부사업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lt;표 4-24&gt; 문화예술 유관기관 세부사업 내용

기관명	주요사업	세부내용	비고
한국문화 번역원	번역지원사업	번역지원 공모사업 영상공연번역 지원사업*	* 영상 및 공연대본의 외국어 자막번역 지원
	출판지원사업	번역지원 공모 선정작품 출판지원*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	* 번역지원 공모사업 선정작품 저작권을 수입한 해외출판사 현지출간 출판지원
	해외교류사업	기획행사 지원	
		문학축제 작가과건	
		국제도서전 참가	
	국내교류사업	해외독자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서울국제작가축제	
		해외원어민번역가 초청 연수사업	
		한국문학번역상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교육사업	번역아카데미*	* 전문적인 문학번역 교육을 통한 전문번역가 양성
	출판부사업	해외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워크숍	
		한국문학 해외소개 영문계간지 발간	
		번역도서 교차출간 전자책 출간사업	
	번역전문도서관*	한국문학 디지털도서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	* 33개언어로 번역, 한국문화 및 예술분야 한국작가 소개, 관련기사 등 한국문화와 문화를 해외 알리는 기능
		오프라인 열람시설 운영	
아시아 문화원	아시아문화 연구* (아시아문화자원 및 콘텐츠 아카이빙)	아시아 문화·예술 자원 수집과 현 데이터 활용	*아시아 문화예술 주제별 아카이브 구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생산콘텐츠와 기록물 수집,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장서 등 기본자료 구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 수집	
	아시아 문화 콘텐츠 창작·제작 및 유통	기본 자료 수집	
		프로젝트 랩 운영을 통한 콘텐츠 개발	
		창제작센터 융합학술세미나	
		예술,과학 융합 지식콘서트	
	전시사업 (전시기획 및 콘텐츠 제작)	중장기·연계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교류협력전시기획 및 운영	
		지역연계프로그램 전시기획 및 운영 특별, 초청전시 기획 및 운영	

기관명	주요사업	세부내용	비고
	공연사업* (아시아 공동 제작, 유동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창제작 공연	* 아시아를 주제로 한 공연예술 작품 발굴, 기획·육성,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
		자체제작	
		공동제작	
	교육사업	어린이 체험관 제작·설치	
		공간 인테리어 현장시공 및 운영	
		유아놀이터 및 체험관 체험물 제작 설치	
정동극장	전통공연예술 진흥사업	특별 체험전, 기획초청전 등 개최	
		상설공연(전통예술공연)	
		외주공연	
		전통ing(공익공연)*	
	교육사업	돌담길 프로젝트 (시민을 위한 야외공연 시리즈 등 공익공연)	* 전통창작 아티스트 및 콘텐츠 육성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티스트의 쇼케이스 공연 심사 후 기획공연 콘텐츠로 공동개발, 제작지원, 전통창작분야 저변 확대에 기여
		문화특활 (어린이, 청소년 대상 공연관람, 주변문화 시설 탐방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국악기 체험교실	
	문화복지 (소외계층)	찾아가는 정동극장	
(재)예술 경영지원 센터	교육, 컨설팅	전문예술법인·단체지원	
		예술경영컨설팅	
		예술경영아카데미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	
	예술정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조사평가	실태조사	
		문화예술행사 평가	
		예술경연대회 지원	
	국제교류	해외네트워크	* 공연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외 협력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국-해외 공연예술 전문가들의 리서치와 사후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및
		커넥션 사업*	
		텍스트(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관명	주요사업	세부내용	비고
한국문화원 연합회	국제시장진출	서울아트마켓	발굴하여 재외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순회하는 사업
		해외진출지원	
		예술경영 웹진	
	지식정보	국제교류 플랫폼 더아프로	
		프로젝트 비아(현대미술 기획자 지원프로그램)	
	시각예술	시각예술 도록, 자료번역 지원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감정인력 양성, 감정기초자료 연구지원, 전작도록 발간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어르신문화동아리	어르신문화일자리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 문화적 마을공동체 형성지원사업 : 문체부, 예술위 주최, 한문연 주관으로 추진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문화품앗이*	* 문화시설/단체를 연결시켜주는 온라인매칭시스템



기관명	주요사업	세부내용	비고
	전국향토문화공모전		
	교육연수	지역문화경영과정	
		지역문화원장 세미나	
		지방문화원 인력워크숍	
		우수문화원직원 선진문화시설 연수	
	문화수요창출사업	우리문화 발간	
	청소년지역문화창조 프로그램	국회 시낭송의 밤	
예술의 전당	공연사업	오페라하우스 기획사업	
		음악당 기획사업	
	전시사업	미술관기획사업	
		디자인미술기획사업	
		서예관기획사업	
	교육사업(강좌)	음악강좌사업	
		종합강좌사업	
		미술강좌사업	
		서예강좌사업	
	고객관리사업		
	대관사업		
한국문화 예술회관 연합회	공연전시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 민간우수공연프로그램 유치 경비일부지원,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개발지원**	국립우수공연프로그램 유치 경비일부지원,
		해피존 티켓나눔***	지역문화예술단체활용으로 자체제작 공연, 전시 등 경비일부지원, 재정이 열악한 지역문예회관대상
		문화가 있는날****	문간우수공연프로그램 유치시 초청경비 전액지원 ** 공모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회관의 자체 제작프로그램 선정 및 사업비 매칭 형식으로 지원 *** 소의계층 공연, 전시 관람료지원(현대차그룹 이웃돕기성금) **** 작은 음악회 공연지원, 아동보육 및 교육시설 방문

기관명	주요사업	세부내용	비고
			문화예술프로그램 정책지원 등
	아카데미·교육·연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문예회관 아카데미	
	연구·조사·컨설팅	문화예술회관 종사자 해외연수	
		문예회관 종합컨설팅 지원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한국문화 예술교육 진흥원	페스티벌	문예회관 건립 사전평가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문화예술교육 정책전략기획	
	전략기획연구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서비스	
		문화예술교육 포럼·콜로кви엄	
		아트페 아카데미	
	교육개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맞춤형 연수)	
		에이랩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대외협력	문화예술교육 정보관 (관련 전문서적 등 자료제시 및 열람)	
		문화예술교육 국내외 홍보	
		해외 온오프라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아태지역 문화예술교육 정보구축, 문화예술교육 ODA, 해외전문가초청 워크숍,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국제심포지엄, 문화예술교육매개자 해외탐방 조사 등
	교육인력지원	예술강사 지원사업(초·중·고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술상상체험대(예술강사와 함께하는 즐거운 방학)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문화예술교육 국가공인자격제도)	
	예술협력사업(사회)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기관명	주요사업	세부내용	비고
	교육)	시민 문화예술교육	청소년, 근로자, 고정시설·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치료감호소·보호관찰소, 학교
		문화예술치유(국방부, 법무부, 여성부, 교육부, 경찰청 등과 협력 경미·재활단계 대상 마음의 상처 치유)	밖 청소년, 군부대·의경부대, 북한이탈주민, 상이군경 대상 문화예술교육
	예술협력사업(가족 문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유아문화예술교육	
	예술협력사업(지역 활성화)	예술꽃 씨앗학교	
		(문화소외지역 소규모학교 전교생 대상)	
		꿈의 오케스트라	
	기획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문화예술 명예교사'특별한 하루' 창의예술캠프 운영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	
전통공연 예술진흥 재단	지원사업(일반)	전통품목활성화*	* 국악관련 전공자 일자리 창출 및 거리공연활성화로 대중화 및 관광상품화 제고
		세계무형유산공모**	** 유네스코 세계무형 유산에 등재된 전통공연 예술종목을 활용한 우수축제 및 행사 공모 지원
	지원사업 (창작지원)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전통연희활성화*	
		신진국악 실험무대	* 우수한 창작연희작품 발굴 지원사업
	지원사업 (국제교류)	창작국악극 페스티벌	
		해외문화예술봉사단(oda)	
	공연사업	전통예술해외진출지원사업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세계유산산책	
		한국민속예술축제	
		세계무형유산 상설공연	
	교육사업	전통연희페스티벌	
		전국예술계고교 국악심화교육	

기관명	주요사업	세부내용	비고
	(전문교육)	전통예술기획자양성프로젝트	
	아리랑사업 (별도운영)	아리랑브랜드 개발	
		아리랑 해외홍보	
		아리랑 페스티벌	
	문화학교 운영 (생활예술교육)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알선	
		분쟁조정	
		법정허락	
		저작권등록	
		기증	
		감정	
		sw임치	
		성능평가	
		sw관리체계 건설	
		오픈소스sw라이선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 연구조사	상담센터	
		저작권교육	
		콘텐츠산업 백서발간 및 콘텐츠산업 동향정보 제공	
		기초연구	* 이야기,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패션, 융복합, 대중문화 등 9개장르 ** 스토리작가데뷔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연극, 뮤지컬), 우수크리에이터 발굴지원, 우수크리에이티브 발굴 프로젝트(작가와 제작사 만남) 등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	콘텐츠 융합형 교육	
		기술기반 융합형 콘텐츠 창업인력양성	
		방송영상 인력양성	
	제작/투융자/마케팅 지원	문화창조벤처단지 인프라조성	
		콘텐츠지원사업 사후관리	
		투자, 융자 지원	
	해외진출 지원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	
		한류엑스포 개최	
		해외 현지마케팅 활성화 지원	
		수출정보플랫폼	

기관명	주요사업	세부내용	비고
		해외출원 등록지원	
		현지화 재제작지원	
		콘텐츠 샘플번역지원	
		신흥시장 개척지원 등	
	문화기술 육성	ct 사업기획 및 전략수립 문화기술 사업화 지원 문화기술 전시 및 성과확산	
예술인복지 재단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예술인 관람료 할인혜택)		
	창작준비금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과견지원*		* 예술인과 참여기관 매개 프로젝트 진행
	예술인산재보험 사회보험료지원		
영화진흥 위원회	영화제작지원	독립영화제작지원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 지원(개봉작 제작사의 차기작 기획개발비 지원)	
		다양성가독영화 제작지원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기타 디지털영화허브 조성 등	
	영화산업유통지원	전용관 운영지원	
		부가시장 활성화	
		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	
	투자/출자사업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국내 개최 국제영화제 지원	
	국내/국제영화제 육성	국내영화제 육성	
		독립영화제 개최지원	
	인적자원 육성관리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현장영화인 전문성강화 교육	
	첨단영화 기술육성	첨단영화 기술지원	
		첨단영상 소프트웨어 이용지원	
	영화정책지원	첨단영화 제작지원	
		영화정책 및 산업연구	
	남양주 종합촬영소 운영	촬영소 관리운영	

기관명	주요사업	세부내용	비고
	영화향유권 강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문화소외계층 관람환경 개선 (시청각 장애인, 격오지 찾아가는 영화관, 작은 영화관 상영지원)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운영 영화정보웹사이트 운영	
	극장용 애니메이션 지원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지원	
한국출판 문화산업 진흥원	출판수요 창출 및 유통 선진화	회보(책&) 발간 책 가치확산사업(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소외지역 중심 책나눔 행사 및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대상 '북토큰'사업 좋은책 선정 지역서점 육성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출판물 불법유통 신고센터 운영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세종도서(구 문화부 우수도서)선정보급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지원(미 발간된 국내 우수출판콘텐츠 발굴 및 지원)	
		우수 콘텐츠의 전자책 제작 지원	
		대한민국 전자출판 대상 개최	
		전자출판 지원센터 운영	
	전자출판 및 신성장동력 육성	전자출판 관련 인력, 조사연구, 세미나 운영	
		전자출판 국제도서전 참가	
		디지털북페어코리아 개최	
		디지털 독서환경(전자책 체험공간) 조성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출판수출지원센터 운영	
		해외 출판시장 정보조사 및 제공	
		도서 저작권 수출 가이드북 제작 배포	
		해외도서전 그림책 수출지원	
		k-book 홍보지원	
		출판한류 해외시장 진출기반조성	
		저작권 수출 활성화 지원	
	출판문화산업	국제교류사업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	

기관명	주요사업	세부내용	비고
한국문화정보원	인프라 구축	출판산업 기초 통계조사 및 정책개발	
		출판인 양성 교육	
		중소출판사 청년인턴 지원	
	독서문화 증진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찾아가는 독서활동 지원	
		전문독서교육과정 운영	
		독서박람회	
		책읽어주는 봉사단	
		책드림 콘서트	
		미디어와 함께하는 독서활동 지원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문화정보서비스	문화포털	
		문화데이터 운영관리(모든 문화분야 공공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한국문화정보원	문화PD	한국의 문양 (사이트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 문화PD : 국내외 다양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등의 문화정보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문화정보 전달자
		문화PD 인력양성 및 운영*	
	문화PD	해외문화PD 운영 국가브랜드 확산을 위한 한류 문화영상 제작	
		다양한 문화미디어 콘텐츠 생산 및 서비스	
	문화정보화지원	문화정보화 추진체계 운영지원	
		문화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지원	
		문화정보화 전문컨설팅 (관련기관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사업타당성 및 기술지원	
	문화정보통합센터 구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지원		
국악방송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지원화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및 컨설팅 지원	
		공공누리 보급 활성화 지원	
	국악콘텐츠 영상화	공공저작물 선택관리	
		방송프로그램 제작	
		국악방송 전국화	
국악방송	방송 노후장비 교체		
	국악콘텐츠 영상화		

기관명	주요사업	세부내용	비고	
	다목적 공개홀 구축			
한국공예· 디자인문화 진흥원	공예	지역공예마을 육성	* 전통문화요소를 현대 생활문화에 적용, 품격 높은 생활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	
		공예트렌드 페어(공예전문박람회)		
		해외한국공예전		
		한지 프로모션		
	디자인	문화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 전통문화요소를 현대 생활문화에 적용, 품격 높은 생활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
		K-라이프스타일;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타이포잔치(그래픽디자인비엔날레)		
	상품개발 유통	스타상품 개발*		* 창의성이 돋보이고 참신한 신진 공예디자인 작가를 발굴 및 육성, 지원, 상품 개발로 유통시장(백화점, 면세점, 해외시장 등)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디자인 및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
		전통문화유산상품개발		
		우수공예품 지정표시제		
	연구소	공예디자인 교육*		* 대학생 대상 교육 과정(대학 커리큘럼 내), 공예·디자인분야 예비창업자, 현장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예·디자인 비즈니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백서 및 전문서적 발간		
		아카이브 센터(공예 디자인 도서관) 운영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문화예술공연사업	극장용 기획공연 및 박물관 문화행사 추진		
	문화상품사업			
	편의서비스사업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조사연구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정책		
		관광산업		
		창조여가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예술창작지원	정책통계평가		
		문학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육성		
	예술인력육성	융복합예술창작지원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예술인력재교육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가국제역량강화		

기관명	주요사업	세부내용	비고
	소외계층문화역량 강화	한국예술세계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공연나눔	
		창작나눔	
지역문화활동지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등	
		공연예술작품 해외진출 지원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지원	
		세계무형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전통고궁공연 관광상품화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전통공연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사회적 인식제고		홍보, 간행물, 정책연구 등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제3절 문화예술 유관기관 정책추진체계 분석

## 1. 정책추진체계 분석을 위한 접근 기준

- 본 연구는 문화예술 지원 유관기관의 추진체계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접근틀을 2가지 관점에서 제시함
- 첫째,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정책 추진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접근 방법 제시와
  - 둘째, 이들 기관들의 다양한 사업들을 정책목적에 따라 재범주화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양자의 관점으로 동시에 접근할 때 문화예술 정책추진체계 총괄파악, 기관 간 사업 중복의 문제 등을 일관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음
  - 문화예술정책 추진체계는 문화예술지원과 관련하여 크게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의 측면에서 예술위원회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예술위원회와의 정책업무 연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문화예술지원 정책 거버넌스를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본장에서는 아래에서 제시되는 환경탐색 기법을 통한 유관기관 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관련 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함의를 도출함

## 가. 환경탐색으로서 외부환경 분석

- 본 연구는 예술위원회를 둘러싼 국내의 외부환경 분석을 위하여 공공 및 비영리 조직의 전략적 환경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환경탐색(Environmental Scanning, Kearns, 2000) 기법을 적용함
- 환경탐색은 사기업의 산업분석(industry analysis)을 공공/비영리 영역의 조직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는 분석기법으로서, 조직의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조직의 주요 프로그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부요인들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과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문화예술 지원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고,

- 이러한 환경분석에 따라 우수한 문화예술 활동환경 조성을 의미하는 수월성 증진과 향유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통합적으로 잡을 수 있기 위해서 문화예술 지원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함
- 구체적으로 환경탐색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전략적 환경의 범위(the boundary of a strategic environment)를 정의하고, 이를 통하여 조직의 협력, 경쟁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목적임
- 조직의 환경은 통상 해당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다른 조직들로 구성됨
- 특정 조직의 전략적 환경 범위는 자신의 조직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프로그램과의 관계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크게 ① 관련된 프로그램/서비스, ② 유사한 프로그램/서비스, ③ 중복되는 프로그램/서비스 등 세 가지 기준으로 정의 및 분류됨
- 이 세 가지 종류의 외부조직과의 관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 1) 관련된(related)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조직들

-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조직이란, (1) 자신의 조직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보완재의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또는 (2) 자신의 조직의 서비스 산출에 있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 등을 의미함
- 전자의 예를 들면 휴양시설 주위 치유(healing)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같은 것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조직들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전략적 맞춤(strategic fit)을 찾아내어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2) 유사한(similar)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조직들

-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조직이란, 자신의 조직의 서비스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comparable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조직을 의미함

- 즉 매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상호 시장이 겹치지 않은 조직들을 의미함
- 예를 들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지역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직접적 경쟁관계는 아닌 조직임
- 이러한 조직들과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호 벤치마킹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 3) 대체가능한(substitutable)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조직들

- 경제학의 대체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신의 조직의 서비스에 대체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조직을 의미함.
- 이러한 조직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같은 시장에서 같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자신의 조직 입장에서는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조직이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중복적인 서비스가 됨

#### 4) 시사점

- 이상의 세 가지 유형의 관계에 따라 외부 관련 조직들을 파악하면 자신의 조직이 제공하는 주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시장상황(생태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현상태), 이를 통하여 조직의 향후 전략적 기회와 도전점을 추출해냄으로써 현 주요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을 중심으로 한 시장 생태계구축을 위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음
- 요약하면, 환경탐색을 통한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환경 및 조직 간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 관련된 프로그램/서비스를 조직의 경우, 협력이 가능한 조직들을 파악하여, 이 중 실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유사한, 그리고 대체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의 다양한 시장정보(예를 들어 동일 서비스에 대한 다른 조직의 가격정보) 등은 자신의 조직의 가장 적절한 서비스의 정보를 도출 하는데(예를 들면 다른 조직과 비교하여 적절한 가격

을 산정) 도움이 되고,

- 대체가능하거나 중복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조직들의 경우, 상호 합의하에 통합의 전략을 통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나. 목적에 따른 외부환경 조직기능 분류기준

- 유관기관들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분류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본 연구는 크게 창작지원 부분과 향유로 구분하여 접근함
  - 문화예술 유관기관별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사업형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는 재범주화가 필요하기 때문
-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그 근본 목적은 지원을 통해 우수한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향유 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 결국,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은 창작과 향유가 상호작용하며 순기능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됨
- 창작지원은 협의적 관점에서 단순 작품제작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열악한 우리 문화예술환경을 고려할 때 창작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여건 지원(예술인 복지), 예술단체의 기관운영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도구들이 혼합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수한 예술이 창작될 수 있는 예술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예술인력 재교육, 국내의 우수한 작가 및 작품들의 해외 진출기회 확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콘텐츠화를 통해 문화산업으로 진출이 용이하도록 기초예술과 문화산업 간의 연계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우수한 예술작품 활동을 위한 창작지원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

<표 4-25> 창작지원 관련 사업분류

구분	내용
유형 1	예술가 창작지원
유형 2	예술가 복지지원
유형 3	국제교류를 통한 예술가 창작지원
유형 4	콘텐츠개발(산업화)을 통한 창작지원
유형 5	예술인력 육성

- 향유는 우수한 예술을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따라 국민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은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 정책 이외에 복지적 차원의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행사는 문화복지로서 특히 경제적으로 향유기회를 갖기 어려운 대상집단에게 유용한 접근전략임
    - 그 외에도 도서산간지역, 격오지 등 지리적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갖기 어려운 지역, 사회적 배제를 받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문화향유 서비스 제공은 사회적 통합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함
  - 수동적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등을 통한 문화예술 관심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함
    -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공연장이나 전시장 지원을 통해 일반인들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거나,
    - 문화예술 자료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향유 서비스 제공,
    - 일반 국민 대상 향유 프로그램 운영 등은 관객 저변확대에 필요한 사항으로 병렬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 국민의 문화향유를 제고하기 위한 향유지원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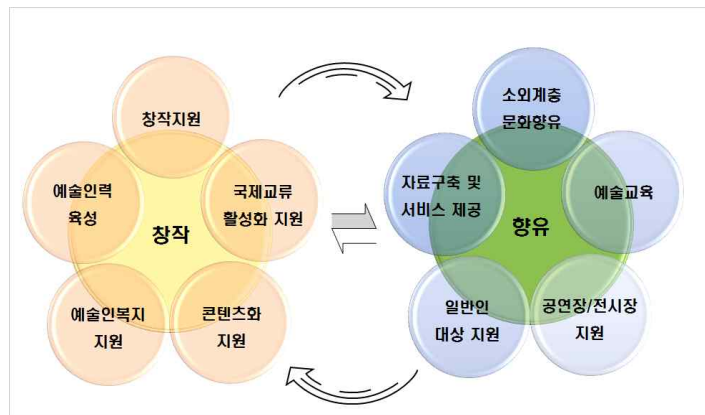


&lt;표 4-26&gt; 향유 관련 사업분류

구분	내용
유형 1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유형 2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향유기회/기반 확대
유형 3	공연장/전시관 지원을 통한 일반인 향유기회 확대
유형 4	문화예술 관련 자료구축 및 서비스를 통한 일반인 향유기회 확대
유형 5	일반인 대상 지원을 통한 향유기회 확대

- 지금까지 살펴본 창작지원과 향유증대를 구성하는 사업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창작이나 향유 사업 하나에만 치중할 경우 양자의 선순환 관계는 달성되기 어려우며 양자 간 지원기능이 연계 될 수 있는 협력구조를 만들어가야 함

[그림 4-3] 창작지원과 향유지원 프로그램의 선순환 구조



## 2. 분석결과

가. 예술위원회와 유사한 프로그램/사업으로 관계되는 기관 분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를 향유증진과 수월성 증진을 기준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쪽의 <표 4-27>과 같음
-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추진사업이 외관상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예술위원회 추진사업과 중복되거나 관련성이 높지 않음. 다만, 이들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벤치마킹을 하거나 필요시 사업 간 연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1개 이상 유사한 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조직은 18개 중 6개 기관 - 한국문학번역원, 아시아문화원, 정동극장,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인 것으로 파악됨
- 유사한 프로그램/서비스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아시아문화원이 도출되었는데, 두 가지 향유 유형과 한 가지 창작 유형으로 나타남
- 아시아문화원의 경우 문화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의 대상집단이 다르지만 상당히 유사한 사업들을 수행함. 사업영역이 아시아 문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집단은 아시아 문화를 다루는 모든 국내의 예술인(단체) 등이 포함
  - 공연장/전시관 지원을 통한 일반인 대상 향유기회 확대(향유 3유형)
    - 시각예술, 건축, 디자인, 영화, 사운드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아시아 문화예술 작가들의 제작작품 전시 등
  - 문화예술 관련 자료구축 및 서비스를 통한 일반인 향유기회 확대(향유 4유형)
    - 아시아 문화예술 주제별 아카이브 구축,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생산 콘텐츠 및 기록 수집,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장서 등 기본자료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예술가 창작지원(창작 1유형)
    - 아시아 공동제작, 유통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 창제작 공연, 자체제작,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경우

-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극장의 경우,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항유 1유형)로서 전통예술 장르가 아닌 다른 장르의 공연을 소외계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예술위원회의 제공하는 소외계층 순회사업과 공연예술장르에 있어 중복이 없기 때문에 상호 유사한 관계로 파악됨
- 영진위와 콘텐츠진흥원의 경우 2가지 창작유형에서 예술위원회와 유사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영화인, 특히 독립영화 등 예술성이 중심이 되는 저예산 영화들에 대한 창작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가 창작지원(창작 1유형),
  - 영화인들의 전문성 강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예술인력 육성(창작 5유형) 등
- 콘텐츠진흥원 역시 2가지 창작 유형에서 예술위원회와 유사한 관계로 나타남
  - 콘텐츠 지원사업의 경우 문화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창작 1유형)
  - 콘텐츠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예술인력 육성(창작 5유형) 등
- 한국문학번역원의 경우 우수한 외국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 한국 국내의 일반인들에게 외국의 우수한 문학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항유 5유형,
  - 번역작가 양성 프로그램은 창작 5유형에 속하게 되는데, 예술위원회는 번역 관련 이러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관계로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출판인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창작 5유형), 일반 문학작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위원회의 사업과 유사한 관계로 볼 수 있음

20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04

<표 4-27> 유사 프로그램/사업으로 관련되는 기관

목적	프로그램 유형	한국 문학 번역 원	아시 아문 화원	정동 극장	예술 경영 지원 센터	한국 문화 원연 협회	예술 의 전당	한국 문화 예술 회관 연합 회	한국 문화 예술 교육 진흥 원	전통 예술 진흥 재단	한국 저작 권위 원회	한국 콘텐츠 진흥 원	예술 인복 지재 단	한국 영화 진흥 위원회	한국 출판 문화 산업 진흥 원	한국 문화 정보 원	국악 방송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 진흥 원	국립 박물관 문화 재단	계
항 유	1 유형: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0																1
	2 유형: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향유기회/기반 확대																			0
	3 유형: 공연장/전시관 지원을 통한 일반인 향유기회 확대		0																	1
	4 유형: 문화예술 관련 자료구축 및 서비스를 통한 일반인 향유기회 확대		0																	1
	5 유형: 일반인 대상 지원을 통한 향유기회 확대	0																		1
창 작	1 유형: 예술가 창작 지원		0									0		0						3
	2 유형: 예술가 복지 지원																			0
	3 유형: 국제교류를 통한 예술가 창작지원																			0
	4 유형: 콘텐츠개발(산업화) 발전 지원을 통한 창작지원			0																1
	5 유형 : 예술인력 육성	0										0		0	0					4

&lt;표 4-28&gt; 유사한 프로그램 내용 정리

관련 기관명	유사 프로그램 내용
한국문학 번역원	(향유 5유형)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을 통한 품질 높은 문학 향유기회 확대 목적 및 국제교류
	(창작 5유형) 전문적인 문학번역 교육을 통한 문학번역가 양성
아시아 문화원	(향유 4유형)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예술 자료구축: 향유기회 확대
	(향유 3유형) 아시아 예술작품 전시지원: 향유확대
	(창작 1유형) 예술가 창작지원(한국이 아닌 아시아국가 대상일 경우)
정동극장	(창작 4유형) 공연창작 지원
	(향유 1유형) 공연 향유증대: 소외계층(전통예술이외 장르일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작 1유형) 콘텐츠제작 지원
	(창작 5유형) 콘텐츠 융합형/기술기반 융합형 콘텐츠 창업 전문인력 양성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창작 1유형) 영화 창작지원
	(창작 5유형) 한국영화아카데미, 현장영화인 전문성 강화 교육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창작 5유형) 출판인 양성교육을 통한 출판문화산업 진흥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된 프로그램/사업으로 관계되는 기관

- 다음 쪽의 <표 4-28>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를 기준으로 관련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을 분석정리한 결과임
-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과는 서로 다른 장르 또는 시장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에, 기관 사업의 이관이나 통폐합의 방향보다는, 현재 있는 프로그램에서 기관 간 업무조정을 통한 통합적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현재 지원체계의 문제점은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지원-향유 간, 창작지원에 있어서도 생산-유통 간, 예술교육과 향유를 위한 작품전시 및 공연 간 연계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아래의 표에 나타나듯이 상당히 많은 향유/창작지원이 거의 모든 기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 할 필요성이 있음
- 18개 기관 중 정동극장과 영진위를 제외한 16개 기관이 최소한 1개 이상의 프로그램

- 에 있어서 예술위원회와 관련된 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나타남
- 이는 문화예술지원정책에 있어 문화예술위원회의 포괄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향후 문화예술지원체계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예술위원회가 전략적으로 협력 연계를 가질 수 있는 기관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첫째 향유지원보다 창작지원 유형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진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즉 창작지원에 있어서는 15개 관련된 프로그램이, 향유지원과 관련 하여는 8개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은 관련 프로그램을 가진 기관으로 나타난 유형은 예술가 창작지원(5개), 국제교류를 통한 예술가 창작지원(4개)이며, 이어서 예술인력 육성의 경우 3개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향유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자료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반인 향유기회 확대 유형에 있어 3개 기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모든 관련 관계에 대한 전략적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는 않고, 이러한 관계들이 향후 문화예술위원회가 전략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정보로서 제시됨
- 다만 향후 통합적 문화예술정책 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몇 가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우수한 예술작품의 생산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인 창작 1유형은 예술위원회를 포함 여섯 개의 기관이 진행하고 있음. 이 중 장르 차이와 관련된 것은 문학, 공예, 전통예술 등을 들 수 있음
  - 특정 장르에 집중되지 않고, 동시에 사회적 수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르별 지원이 통합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향유를 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특정 장르에 국한하여 향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수한 작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르에 관계없이 향유를 즐긴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일반인에 대한 예술교육 및 문화향유 기회확대에 대한 기획은 모든 장르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는 기관이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예술작품의 생산과 유통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있어 문학 장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문학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 중 예술위원회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상호 조정을 통한 다양한 장르 및 수혜대상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직접 지원을 하여 우수한 문학작품의 생산을 도모하고,

- 이렇게 지원에 의해 생산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에 대하여 유통의 기회를 더욱 넓히기 위해 1) 다른 장르와 연계될 수 있는 기회(예를 들어 영화화, 연극화 등)를 넓혀주기 위한 다른 기관과의 연계 활성화(영진원 또는 콘텐츠진흥원) 및 예술위원회의 자체적 융합문화예술 지원으로의 발전, 2) 한국문화번역위원과의 연계를 통해 (외국어 번역에 지원) 한국 문학작품의 해외 저변 확대 등 국제교류를 통한 창작지원을 함으로써 유통의 확대를 통합적으로 이룩할 수 있음
- 또 다른 예로서, 기초공연예술작품에 대한 예술가 지원은 이들 작품의 공연을 통한 향유로 연계되어야 함
- 이러한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및 전시 기회 확대는 국내외 해외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음. 국내에서는 다양한 공연장/전시관에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 여기서 컨트롤 타워로서 조정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즉,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지원에 따른 작품의 우수성에 따라 더 많은 공연/전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이를 공연장/전시관과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 것임
- 해외의 진출을 도모하여 창작작품의 산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기관들과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통합적인 기획을 통한 체계적 국제교류를 진행하여야 함

**<표 4-29> 관련된 프로그램/사업을 제공하는 기관**

[illegible]

<표 4-30>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 정리	
기관명	관련 프로그램 내용
한국문학번역원	(창작 3유형) 품질 높은 한국 문학의 외국어 번역을 통해 문학인 창작지원 및 국제교류 확대
아시아문화원	(창작 3유형) 국제교류: 예술가 창작지원(한국예술가의 국외진출기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창작 1유형) 문화예술 전반 창작지원
	(창작 5유형) 예술현장 기획, 조직경영 종사자 교육을 통한 창작지원
	(향유 4유형) 정보, 자료를 통한 향유확대
한국문화원연합회	(향유 5유형) 일반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예술의 전당	(향유 3유형) 공연장 제공으로 향유기회 확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향유 5유형) 일반인 문화향유 기회확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향유 2유형) 교육을 통한 향유기회/기반 확대
	(향유 4유형) 정보, 자료를 통한 향유확대
	(창작 3유형) 국제교류를 통한 창작지원
	(창작 5유형) 예술가들의 문화예술교육 전문화를 통한 창작지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창작 1유형) 전통예술인 창작지원
	(창작 5유형) 전통예술 기획자 양성프로젝트를 통한 창작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창작 4유형) 문학인 창작지원(저작권 보호)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작 4유형) 창작지원(기초예술 작품을 산업화(콘텐츠화)의 경우)
예술인복지재단	(창작 2유형) 창작지원(예술인복지)
	(창작 1유형) 창작지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창작 1유형) 문학인 창작지원
한국문화정보원	(창작 3유형) 문화정보서비스로 창작지원, 국제교류 지원(창작지원)
국악방송	(향유 4유형) 국악 조사연구, 자료등을 통한 일반인 향유 확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창작 1유형) 공예예술가 창작지원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향유 3유형) 전시관으로서 일반인 향유 증대

- 마지막으로 관련기관 간 업무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예술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수적 장점이 부각될 수 있음
  - 수혜대상인 예술가 및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문화예술 관련 수요 또는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창구가 단일화 된다는 점임. 모든 문화예술 관련 지원정책에 대하여 통합적 조정기능을 하는 대표적 창구로 역할을 함으로써 문화예술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더욱 보장될 수 있음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중복된 프로그램/사업으로 관계되는 기관

- 다음 쪽의 <표 4-31>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를 기준으로 상호대체가능 또는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을 분석정리한 결과임
- 18개 기관 중 최소한 1개 이상의 프로그램/사업이 중복되는 기관은 8개로 나타남. 이 중 예술경영센터가 창작지원에 있어 두 가지 유형에 중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7개 기관은 1개 유형에 있어서 중복 됨
- 유사 및 관련 관계와 비교하여 중복관계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첫째, 향유지원에 있어서는 1유형, 즉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정동극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소외계층 향유지원의 경우 정동극장은 전통예술장르의 공연을 하는 경우에만 중복이 되기에 그 중복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경우 소외계층 문화향유 증대 지원에 있어 중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 동일한 소외계층의 특정인에게 중복적으로 지원된다기보다, 넓은 의미에서 소외계층에게 지원이 중복되는 것이기에 지원대상에 대한 조직 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실제 수혜대상의 입장에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창작지원에 있어서는 아시아문화원, 예술경영센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가 창작지원(창작 1유형)에 중복적인 관계로 연계되어 있음. 또한 예술경영센터의 경우 제 3유형인 국제교류를 통한 예술가 창작지원에 있어서도 중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lt;표 4-31&gt; 중복 프로그램/사업 관련 기관

목적	프로그램 유형	한국 문화 번역 원	아시 아문 화원	정동 극장	예술 경영 지원 센터	한국 문화 원연 협회	예술 의 전당	한국 문화 예술 회관 연합 회	한국 문화 예술 교육 진흥 원	전통 공연 예술 진흥 재단	한국 저작권 위원회	한국 콘텐츠 진흥원	예술 인복 지 단	한국 영화 진흥 위원회	한국 출판 문화 산업 진흥 원	한국 문화 정보 원	국악 방송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 진흥원	국립 박물관 문화 재단	계
향 유	1 유형: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0			0	0												3
	2 유형: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향유기회/기반 확대																			0
	3 유형: 공연장/전시관 지원을 통한 일반인 향유기회 확대																			0
	4 유형: 문화예술 관련 자료구축 및 서비스를 통한 일반인 향유기회 확대																			0
	5 유형: 일반인 대상 지원을 통한 향유기회 확대																			0
창 작	1 유형: 예술가 창작 지원		0		0					0		0	0							5
	2 유형: 예술가 복지 지원																			0
	3 유형: 국제교류를 통한 예술가 창작지원				0															1
	4 유형: 콘텐츠개발(산업화) 발전 지원을 통한 창작지원																			0
	5 유형 : 예술인력 육성																			

&lt;표 4-32&gt; 중복/대체가능한 프로그램 내용 정리

기관명	중복
아시아문화원	(창작 1유형) 아시아 예술작품 창작지원
정동극장	(향유 1유형) 공연 향유증대: 소외계층(전통예술장르일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	(창작 1유형) 문화예술 전반 창작지원
	(창작 1유형) 예술가 창작지원 평가(지원에 대한 평가)
	(창작 3유형) 국제교류: 창작지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향유 1유형)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확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향유 1유형) 문화 향유기회 확대(소외계층 문화순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창작 1유형) 전통예술인 창작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작 1유형) 창작지원(뮤지컬)
예술인복지재단	(창작 1유형) 창작지원

□ 예술인 창작지원이 중복되는 기관 중 콘텐츠진흥원은 공연예술 중 일부인 창작뮤지컬 지원만 중복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는 전통예술인 지원의 중복, 아시아문화원과는 아시아 예술작품 창작지원 등 일부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직간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 동일 대상에게만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장르의 조정 등으로 충분히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반면 예술경영센터의 경우, 두 개의 유형에 있어 세 개 프로그램에서 문화예술위원회와 상당히 많은 중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예술인에 대한 전반적 지원, 국제교류 창작지원의 경우 문화예술위원회와 차별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일부는 원래 문화예술위원회의 프로그램이었던 것임) 이에 대한 대폭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술인복지재단의 경우 예술경영센터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예술인 창작지원에 있어 상당한 중복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문화예술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과의 중복성이 적으며, 현재 중복으로 나타난 기관들과의 관계 중 대부분이 오히려 전략적 협력 연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음. 다만 예술경영센터와 예술인복지재단과의 창작지원 관련 관계의 대폭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4절 소 결

- 유사, 관련, 중복 세 가지 관계에 있어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창작지원의 1유형인 예술가 창작지원과 향유 1유형인 소외계층 향유기회 증대임
- 향유 1유형인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의 경우 관련된 기관은 없지만 중복되는 기관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유사관계로 나타난 정동극장의 경우 유사관계와 중복관계 모두 해당되지만, 앞서 논의되었듯이 그 정도가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향유기회 확대 프로그램 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첫째, 다수의 기관이 대체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중복이 아닐 수 있음. 앞서 제시되었듯이 동일한 소외계층의 특정인에게만 중복지원된다기보다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혜택 자체를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도 문화예술향유 증대라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경우에 실제 수혜대상에 있어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 간 상호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 간 조정기제가 있어야 할 것임. 이는 특정 기관이 소외계층 문화예술 기회 확대 정책 관련 기획 및 조정역할을 하는 식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둘째, 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에서 향유 1유형인 소외계층 향유증대 프로그램을 다른 기관에게 이관하는 것임. 이 유형은 문화예술 향유증대라는 목적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지만 복지사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예술위원회는 이러한 복지사업의 성격의 사업은 다른 기관에게 이관하고, 이외의 향유관련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것임
- 창작지원 1유형인 예술가 창작지원은 유사 관계에 있어 3개, 관련관계에서 5개, 중복관계에서 5개 등 모든 관계에서 가장 많은 연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유형은 앞서 내부환경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예술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임.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것은 가능한 대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한 첫째 단계로, 중복된 관계로 파악된 기관의 경우, 최대한 중복이

- 되지 않도록(수혜대상 및 장르 등의 구분을 통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중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술위원회로 그 기관의 창작지원 프로그램이 이관되어 통합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첫 번째 단계를 통하여 중복적인 관계는 정리되고, 관련된 관계로 남은 기관들과의 관계는 실제 수혜대상에 있어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 간 상호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 간 조정을 통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임. 이는 특정 기관(문화예술위원회)이 예술인 창작지원 정책 관련 기획 및 조직 간 조정역할을 하는 식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본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예술정책 추진체계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음
  - 지방분권화에 따라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및 기능
  - 서비스의 유사성과 중복성 등으로 나타나는 정책 효율성 측면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연구
  - 현재 문화정책 추진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부족하다는 다음과 같은 현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고민 및 대안이 필요함
    - 중앙 중심의 분절적, 단편적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관련 기관 간 수평적 협력 체계가 약화되고, 오히려 수직적 연계에 집중
    - 이로 인한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의 약화로 특정업무의 쏠림 또는 필요한 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제5장

### 주요 선진국 문화예술지원기구 운영사례 분석

제1절 :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제2절 : 미국예술위원회(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제3절 :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제4절 : 캐나다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제5절 : 시사점



- 앵글로색슨족 중심의 국가(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위원회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각의 위원회는 ‘국가적인 층위의 문화예술진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은 영국의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예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앵글로색슨 국가의 위원회와는 다르게 통합적 컨트롤타워 역할보다는 문화재단의 지원금 교부가 핵심적 기능으로 자리잡고 있음
- 이는 한국의 문예위가 중앙정부 산하의 지원기구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는 한국의 독특한 맥락적 상황이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 장에서는 문예위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문화관련 위원회 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자 함

#### 제1절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 2차 세계대전 직후 설립된 대영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Great Britain)는 영국의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보존하는데 역할을 강조했음
- 1997년 영연방정부의 문화부처인 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가 만들어지면서 개인의 창조성을 진흥하기 위한 ‘창조적 전회’를 실행,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보존에서 창의로 변화함
- 문화정책의 초점이 창의 진흥으로 바뀔에 따라 문화매체체육부-예술위원회-예술단체 간 관계가 재정립되었으며, 예술위원회는 정부의 간섭, 예술계의 압박 등 이중적인 압력을 견지하면서 국가 문화와 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문화매체체육부-예술위원회-예술단체 간의 관계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적용함으로써, 지시에서 협력으로, 간섭에서 자율로,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이루어진 창의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함
- 문화 예술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압력이 존재하며, 최근 공공 부분

과 사적 부분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력의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영국 예술위원회는 투자의 적정 수준을 투자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위원회 소속 어느 기관에서나 단일 대화(single conversation)를 통해 지속적, 반복적, 역동적으로 관계를 재정립하고, 학습함으로써 신뢰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을 반영한, 영국 예술위원회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1> 영국 예술위원회 미션·비전·전략목표

구 분	내 용
미 셴	모두를 위한 위대한 예술
비 전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적·문화적 국가
목 표	1. 수월성(Excellence) 2. 향유(For everyone) 3. 탄성과 지속가능성(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4. 다양성과 전문성(Diversity and Skills) 5. 어린이와 청년(Children and Young people)

- 영국 예술위원회는 미션인 ‘모두를 위한 위대한 예술’, 비전인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적·문화적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5가지 목표를 상정하고 있음
- 각 목표간 관계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상정하고 있으며, 수월성, 향유는 미션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목표이며, 탄성과 지속가능성, 다양성과 전문성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 어린이와 청소년은 미래 문화 소비자와 생산자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목표로 됨

[그림 5-1] 영국 예술위원회 비전달성을 위한 목표 간 관계



출처 : 영국예술위원회 홈페이지(2017)

#### □ 수월성: 문화 예술의 번영과 상찬을 의미

##### - 핵심업무

- ① 형평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며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술가, 예술단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 ② 예술가의 창의성 발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지원
- ③ 국제교류 지원

##### - 평가

- ① 투자 지원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근거로 평가기준으로 수립, 예술단체 및 예술가 스스로 자기평가(self-evaluation)를 하고, 이에 청중 및 이용자, 동료 평가를 보완, 최종평가 실시
- ② 이용자와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이며 지속적인 설문조사 시스템

## 운영

□ **향유:** 모든 사람에게 문화 경험과 영감 제공

## - 핵심업무

- ① 일정 정도 퀄리티가 보장된 프로그램, 전시회 등에 투자
- ② 이용자로부터 접근이 용이하도록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에 투자
- ③ 지역 문화 예술 장려 및 투자

## - 평가

- ① 설문조사를 포함한 투자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등에 접근성 및 활용도 평가
- ② 관중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측정
- ③ 향유 및 경험에 대한 더욱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발 지원

## □ 수월성과 향유는 비상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가령, 박물관에서 가치가 큰 수집품을 전시할 경우, 수월성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향유까지도 높다고 할 수 없음

## □ 영국 예술위원회는 향유의 범위에 대하여 문화에 대한 접근 방법 및 수단의 문제를 넘어서 관중의 해석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임

□ **탄성과 지속가능성:** 예술단체들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및 수익창출 지원

## - 핵심업무

- ①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원과 투자 및 파트너십 제휴
- ② 예술 인프라 및 건물 투자
- ③ 예술단체의 자기평가(self-evaluation) 지원
- ④ 예술단체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 지원
- ⑤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및 목표 공유

## - 평가

- ① 매년 지원한 단체에 대한 소득 등 재무제표 검토 및 효과성 조사
- ② 지원 단체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 ③ 예술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 수행

□ **다양성과 전문성:** 문화예술 분야의 리더십과 인력이 다양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며,

##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부-예술위원회-예술단체 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

## - 핵심업무

- ①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적인 인력 지원
- ② 문화 거버넌스 구축
- ③ 신예 예술가들을 위한 문화 예술 분야 일자리 알선 및 제공

## - 평가

- ① 문화예술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관련 수요 확인
- ② 문화예술 모니터링을 통한 동향과 이슈 파악

□ **어린이와 청년:** 지역 및 사회적 환경과는 관계없이 어린이와 청년들이 가능한 많은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래 문화 생산자, 소비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

## - 핵심업무

- ① 교육부와 연계하여 어린이와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지원
- ②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방과후에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어린이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 - 평가

- ① 어린이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설문조사 진행
- ② 문화예술 단체와 학교 간 관계에 대한 조사

## □ 지원 협약서(funding agreement)

- 문화매체체육부와 3년에 한 번씩 보조금(grant-in-aid)과 관련하여 두 기관 간 팔길이 원칙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호 협약을 함. ACE는 DCMS로부터 국고지원은 받지만 독립적 운영을 함
- DCMS는 예산의 교부만을 하고, 이에 대한 지출권한은 ACE가 가짐. 여기서 예산지출은 재무부의 예산 가이드에 따라 ACE가 기록/모니터링을 하며, DCMS의 간섭없이 예산을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

## □ 영국 예술위원회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팔길이 원칙에 따라 정부-예술위원회-예술단체 간 의존성과 독립성을 인정하

고 지속적인 단일 대화(single conversation) 및 학습을 통해 관계를 역동적으로 변화·발전시킴

- 이러한 변화발전은 궁극적으로 정부(지방정부)-문화예술위원회-예술단체로 이어지는 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전문성과 다양성, 공정성을 담보함
- 향유가 문화의 전달 수단, 체계 등을 넘어서 관중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음
- 영국 예술위원회의 미션인 ‘모두를 위한 위대한 예술’은 최종적으로 예술을 감상한 사람들이 각자의 고유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적 환경을 만드는 것임
- 특히,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대상 선정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으며
- 예술단체들이 자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자기평가(self-evaluation), 비용-효과분석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을 이루어내고자 함

제2절 미국예술위원회(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연방예술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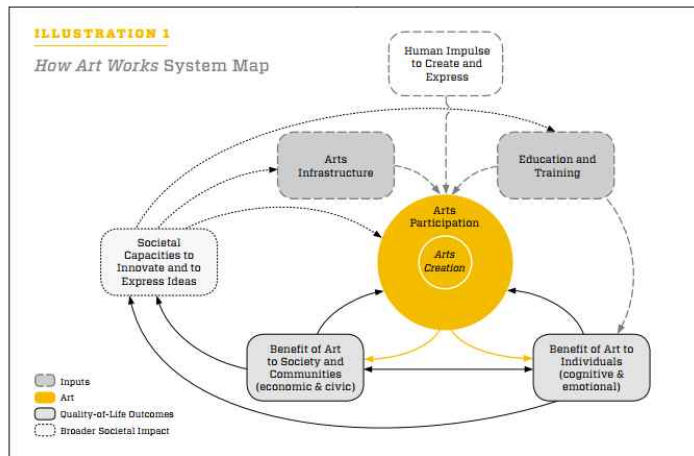
- 미국은 18세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개인의 취향과 신념을 존중하는 전통에 중시되어 왔으며, 문화에 대해 정부로부터의 지시와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옴
- 미국의 문화정책은 대공황 시절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예술가 지원 및 취업을 정부에서 도와주는 노동정책에서부터 출발했으며,
- 이후 사회복지 프로젝트인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정책 중 하나인 연방예술기금(NEA)의 설립으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예술진흥으로 전환됨
-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정부기관이 로버트 메이플 소프, 안드레 사나로, 낸 골딘, 등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정적, 동성애적, 사디즘, 마조히즘을 이유로 검열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 소위 문화전쟁(Culture Wars)이 발발함
- 이후, 문화 다원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연방예술기금은 특정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예술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 건설, 교육, 훈련 등 제반적 환경 조성에 보다 집중하고 있음
  - 문화전쟁의 결과 연방예술기금은 대폭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96년 39% 삭감) 기존의 17개에 이르렀던 예술 분야 지원이 불가능해졌으며
  - 새로운 정책 목표를 수립, 예술창작, 향유, 교육, 보존을 그 내용으로 하며, 예술 창작자(공급자) 중심에서 향유자(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맞이함
- 이러한 노력을 반영한, 연방예술기금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2> 미국 예술위원회 미션·비전·전략목표

구 분	내 용
미 셴	공동체의 창의적인 능력 강화를 위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모든 미국인에게 제공
비 전	개인이 문화를 향유하고 공동체가 예술 통해 열망과 성취를 이루어 내는 국가
목 표	1. 수준 높은 예술 창달을 위한 지원 2. 다양하고 훌륭한 예술에 대한 공공의 향유 3. 예술 기여에 대한 공공의 지식과 이해 증진

- 연방예술기금의 미션은 ‘공동체의 창의적인 능력 강화를 위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모든 미국인에게 제공’으로
  - ①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자산에 투자하며
  - ② 우수한 예술에 대해 수요를 파악하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드는데 있음
- 연방예술기금의 비전은 ‘개인이 예술을 향유하고 공동체가 예술을 통해 열망과 성취를 이루어 내는 국가’임
  - 이는 예술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있으며 개인들의 사상과 시민으로서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국가의 문화유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함

[그림 5-2] 미국 연방예술기금이 바라본 문화생태계



출처 : How Art Works(2012).

- 위 그림은 문화 생태계에 대한 연방예술기금의 인식을 도식화한 것으로 예술의 참여가 예술의 창의성 증진 및 발휘를 위한 필요조건임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미국의 연구원, 실무자, 관련 이해관계자가 협의하여 개발된 시스템 맵으로

- 문화가 개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효과(impact)를 정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인과관계를 도출한 모형임
- 즉, 위 그림은 문화예술정책(지원)이 전사회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자 이론적 틀로서 연방예술기금(NEA)이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연방예술기금(NEA)은 예술이 개인에게 통찰력과 영감을 주고 미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하고 우수한 예술에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 예술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 ① 예술 인프라, ② 교육 및 훈련, 예술에 대한 ③ 공동체의 이익과 ④ 개인의 이익을 전제로 한 ⑤ 사회적 수용력이 필요함.
- 각 요소 간의 관계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③ 공동체의 이익과 ④ 개인의 이익은 예술 참여를 위한 전제인 동시에 예술의 결과물이기도 함
- 연방예술기금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① 수준 높은 예술 창달을 위한 지원, ② 다양하고 훌륭한 예술에 대한 공공의 향유, ③ 예술 기여에 대한 공공의 지식과 이해 증진을 제시하고 있음
- **수준 높은 예술 창달을 위한 지원:** 기금을 통한 예술가, 예술단체 지원
  - 드라마와 문학, 건축과 디자인, 시각예술, 미디어예술, 민속예술, 전통예술 등으로 나누어 창작하는 예술단체를 지원하되, 한정적으로 예술가 개인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함. 이를 통해 제작된 예술 결과물을 미국의 문화유산으로 인정
- **다양하고 훌륭한 예술에 대한 공공의 향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단체를 지원하며 예술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함
- **예술 기여에 대한 공공의 지식과 이해 증진:** 예술 프로그램의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성과평가 수행
  - 예술에 대한 참여와 제작에 미치는 요소와 조건을 탐구하여 공식화하고자 함
  -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예술에 대한 사회 공헌을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지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연방예술기금은 대화와 정보 공유의 역할을 수행함
- 연방예술기금의 특징을 정리하면,

- 연방예술기금은 예술에 대한 개인적 참여를 독려하면서 개인의 문화적, 예술적 삶의 증진이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동체적 삶의 발전을 영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인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체계적인 기금 지원 및 평가를 수행함
  - 문화예술정책(지원)에 있어서 단기적인 효율성보다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정책의 영향력(impact)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
- 미국의 예술정책은 노동정책, 일자리 창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효과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음
  - 문화 다원주의의 등장 및 수요자 중심의 기금 지원 등 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을 중요시하는 전통은 변하지 않음.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예술기금의 폐지론에서도 연방예술기금을 불필요한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음
- 연방예술기금이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술에 대한 전체론적 교육을 지지함에 따라 연방예술기금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의 문화예술정책 또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제3절 호주예술위원회(The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 호주는 6개의 주(state)와 2개의 준주(territory)가 연합된 연방국가이면서 영연방의 일원으로 문화예술체계가 영국과 유사한 구조로 형성되었으며, 유럽으로부터 이전된 문화와 호주 원주민의 문화 등을 포괄하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지향함
- 호주는 중앙부처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정보통신예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가 문화예술 전반에 관련한 정책수립과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환경유산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Heritage)가 문화유산 관련 사업을 담당했으나 이후 환경·물·유산·예술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Water, Heritage and the Arts)(2007~2011), 지방정부예술스포츠부(Department of Regional Australia, Local Government, Arts and Sport)(2011~2013) 등 담당 부처가 변하다가 현재 통신예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the Arts)에서 예술 관련 정책을 담당함
- 호주 예술위원회는 1908년 호주문학기금에서 출발하여 1912년 예술자문위원회, 1968년 호주예술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75년 호주위원회법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 기관으로 재구성됨
- 2015년 5월, 호주 예술위원회의 기금을 4년간 2,600만 달러, 예술기금의 약 33%를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삭감된 기금은 우수예술프로그램(National Program for Excellence in the Arts)에 재배정됨. 우수예술프로그램 지원은 팔길 이 원칙에 어긋나며 특히 중소 규모의 예술단체 및 독립예술가의 지원이 대폭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예술계로부터 큰 비판을 받음
  - 또한 호주 정부는 예술 교육은 생활방식의 선택의 일환일 뿐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예술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고 있음
- 호주의 문화예술 정책은 2014년 이후 문화예술 관련 투자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프로그램 및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상황임
- 호주 예술위원회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 위원회가 명시적으로 미션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역할로써, '상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지의 실험적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으며 비전은 '문화적으로 야심찬 국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중기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목표 달성을 추구하고 있음

&lt;표 5-3&gt; 호주 예술위원회 미션·비전·전략목표

구 분	내 용
미 셴	상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지의 실험적인 지원
비 전	문화적으로 야심찬 국가
목 표	1. 국경없는 호주 예술 2. 훌륭한 예술과 예술가로 유명한 호주 3. 일상생활에서의 예술 4. 어보리진 문화, 예술 애호

□ **국경없는 호주 예술:** 예술가에 대한 국내외 지원을 제공, 교부금 프로그램을 통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핵심업무

- ① 예술자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 ②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데이터 및 정보 공유
- ③ 통신예술부, 외교통상부 등과 협력 및 조정 업무

- 평가

- ① 전국적, 국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 수
- ② 호주 예술활동에 대한 국제적 수요
- ③ 호주 예술가들의 국제적 영향력

□ **훌륭한 예술과 예술가로 유명한 호주:** 예술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

- 핵심업무

- ①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에 대한 프레임워크 및 전략 관리
- ② 문화적 참여 증진
- ③ 예술단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④ 실험적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

- 평가

- ① 지원 단체 및 예술가에 대한 평가
- ② 혁신적 작품에 대한 지원 비중
- ③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중 참여

□ **일상생활에서의 예술:** 예술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참여 장려

- 핵심업무

- ①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문화적 예술적 참여 확대
- ② 새로운 관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③ 정기적 설문조사를 통한 대중 참여 조사
- ④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파트너십 구축

- 평가

- 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관객 수
- ② 호주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지 여부
- ③ 어린이, 청년에 대한 문화 경험의 수

□ **어보리진 문화·예술 애호:** 호주 원주민인 어보리진의 문화 보호

- 핵심업무

- ① 문화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어보리진 참여
- ② 어보리진 문화에 대한 국제 홍보 지원
- ③ 어보리진 작품 활동 지원
- ④ 어보리진 생활 체험 활동 지원

- 평가

- ① 어보리진의 예술 창작 활동 수준,
- ② 어보리진이 만든 새로운 예술품 수
- ③ 어보리진 관객 수

□ 호주 예술위원회의 특징을 정리하면,

- 원주민 문화 및 예술관련 정책 비중이 높으며 원주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상당한 정책적 지원 및 노력을 하고 있음
  - 이는 호주의 문화정책이 기본적으로 다민족, 다문화 간 조화 속에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수한 예술을 발전시켜 향유를 높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정권 변화에 따른 문화 관련 부처의 개편이 상당히 잦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책 운영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함
  - 최근 신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보수정권이 집권함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했으며 팔길이 원칙 침해 논란이 발생함
- 문화에 대해 경제적 이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며 특히,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음

#### 제4절 캐나다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 1951년 예술에 대한 국가발전을 위한 왕립위원회(the Royal Commisison on National Development in the Arts)는 순수예술을 위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화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는 달리 영국의 팔길이 예술위원회 모델(British arm's length arts council model)을 권고하여 1957년에 캐나다예술진흥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Encouragement of the Arts)를 설립함. 위원회 설립 목적은 예술에 대한 연구와 향유, 작품진흥을 중심으로 문화정책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함
- 초창기 캐나다예술위원회는 영국의 팔길이 원칙을 모델로서 정치적, 재정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었으나 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정부 및 연방정부에게 선택적 도구(chosen instrument)로서 활용됨<sup>10)</sup>
- 또한 과거 캐나다예술위원회가 문화강국인 미국에 대응하여 문화종속을 막기 위해 예술적 수월성(excellence)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 지식 증진, 교육 확대 등을 통한 창조성 강화가 강조된 반면, 오늘날 위원회는 인구 변화와 세계화, 디지털 기술 발전 등을 통해 문화 간 상호 존중과 예술에 대한 열망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편적 문화 향유가 중요해지고 있음
- 캐나다예술위원회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4> 캐나다 예술위원회 미션·비전·전략목표

구 분	내 용
미 셴	예술적 수월성에 투자함으로써 캐나다인의 문화적 삶에서의 참여와 즐거움을 증진
비 전	국내외적 작품공유를 통해 캐나다 예술의 국제적 위상 증진
목 표	1. 다양한 참여자를 위한 지원 증대 2. 예술의 질적 향상 3. 다양한 문화와 예술 공유 4. 국제적 위상 증진

10) 설립이후 5년 동안 캐나다예술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기부금을 통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 재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함. 그래서 초창기 캐나다예술위원회는 영국예술위원회의 성격보다 미국연방예술기금과 더 유사한 특징을 보임. 그러나 1965년 이후 캐나다예술위원회는 수입의 약 85%를 의회로부터 매년 승인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캐나다예술위원회가 연방정부에게 있어서 예술적 활동을 권장하는데 활용되는 선택적 도구로써 활용됨.

- 캐나다예술위원회의 미션인 ‘예술적 수월성에 투자함으로써 캐나다인의 문화적 삶에서의 참여와 즐거움을 증진함’, 비전인 ‘국내외적 작품공유를 통해 캐나다 예술의 국제적 위상 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4가지 목표를 상정하고 있음.
- 예술적 수월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목표는 ① 다양한 참여자를 위한 지원 증대, ② 예술의 질적 향상, ③ 다양한 문화와 예술 공유, ④ 국제적 위상 증진을 제시하고 있음.
- **다양한 참여자를 위한 지원 증대:** 다양한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증대
  - 핵심사업
    - ① 예술가를 위한 직접지원 증대
    - ② 예술단체에 대한 투자 확대
    - ③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예술가 및 원주민, 장애를 가진 예술가, 소수민족 예술가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 ④ 예술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구현 지원
    - ⑤ 세금, 저작권, 고용보험 등의 정부규제 및 입법문제에 관하여 정부 및 정책결정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지원함.
- **예술의 질적 향상:**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캐나다 예술의 질적인 수준 향상 및 규모 확대 및 예술 공유
  - 핵심사업
    - ①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전문예술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수행
    - ② 전문예술분야에서의 토론회 및 학습기회 개발을 통한 효과적인 네트워크 및 협업, 파트너십 지원
    -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안정적인 투자 확대.
- **다양한 문화와 예술 공유:** 기존의 원주민 예술가와 비원주민 청중, 그리고 원주민 간의 관계와 조화 모색
  - 핵심사업
    - ① 모든 예술분야에서의 원주민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증대
    - ② 국가적 소통을 위한 원주민과 비원주민 모두에 대한 사업 협력 및 지원

- ③ 다른 기관 및 투자자의 협력과 투자를 이용한 원주민 예술의 지식 함양 및 교환 확대.
- **국제적 위상 증진:** 캐나다 예술과 예술인의 국제적 위상을 높임
  - 핵심사업
    - ① 해외 전문 예술인과 국내 예술인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물 교류 및 유통 확대, 국제 파트너와의 교부금 및 협약 증진
    - ② 문화 수출 및 무역, 외교적 접근방식을 이용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캐나다 예술의 국제적 입지 확대
    - ③ CCUNESCO(Canadian Commission for UNESCO)의 전문성을 토대로 청소년, 원주민 등의 문화적 다양성과 교육, 사회적 응집력을 위한 노력 확대.

## 제5절 시사점

- 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모두 팔길이 원칙에 기반하여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및 기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낸 역사적 산물로서 기능하고 발전해 오
- 구체적으로 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각 국가 위원회의 공통점

## 가. 문화예술정책 방향성의 일치

-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는 모두 예술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월성과 향유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각 국가 간 맥락 및 사건 발생에는 차이가 있으나 문화 다원주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강조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우수한 문화 창달에 대한 예술계 및 대중의 반발이 생겼으며 이에 수월성은 창의적 예술을 위한 지원으로 재해석되어 정부기관이 수월성 증진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로 재정립됨
- 따라서 정부는 창의적인 문화 창달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민들로 하여금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만드는데 보다 노력하고 있음
- 즉, 각 국가의 정부 및 예술위원회는 우수한 예술, 예술작품을 직접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예술 창작을 위한 지원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함으로써 예술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나. 예술정책에 대한 다각적 접근

- 예술정책을 추진하는데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정부기관, 위원회, 예술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대화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예술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단순히 투입과 산출의 일방향적 인과관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단과 목표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검토하여 단기적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력까지 연구함으로써 정책평가가 고도화되고 있음

## 다. 예술 발전을 통한 내·외부적 국가 이익 증대

- 예술 발전이 일차적으로 개인의 문화적, 시민적, 경제적 삶의 증진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내부적으로 이익이 증대한다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 제도를 택한 국가들은 예술의 국제교류 확대를 비전 내지는 전략목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 예술의 유·무형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 외부적 국가 이익 증대를 추구하고 있음

## 라. 예술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팔길이 원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호주의 보수연립(자유당, 국민당, 퀸즐랜드 자유당, 지역자유당)의 신자유주의 성향에 따라 예술계 지원이 크게 감소함. 보수정권에서는 예술 분야에서의 비용-편익을 계산하여 효율성, 효과성 중심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캐나다 또한 과거 중립적으로 예술 창작 등을 지원했으나 예술 지원에 대해 선택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

## 마. 사업영역

- 주요국의 예술위원회 공통적인 사업영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5-5>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창작지원과 향유확대 부문에서 다양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술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영역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대표적으로 국제교류의 경우, 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기능이 중복 되며,

예술단체 컨설팅 영역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수행중

- 예술교육의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
- 향유 확대의 경우, 해외와 달리 한국은 복권기금의 용도제한으로 인해 경제적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향유사업(통합문화이용권 등)에 집중되고 있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향유확대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
- 기타 지역공동체 등 생활문화지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 속에 추진

<표 5-5> 주요국가 예술위원회 사업영역 비교

구분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예술가 창작지원	○	○	○	○	○
국제교류	○	○	○	○	△
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	○	○	○	○
예술단체 컨설팅	○	-	○	○	X(예경)
소외계층 향유	○	○	○	○	○
관객개발 등 향유 확대	○	○	○	○	△
예술교육	○	○	○	○	X(교육진흥원)
지역공동체 등 생활문화 지원	○	○	○	○	△
정책연구/홍보	○	○	○	○	△
자료보존	○	○	○	○	○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정립에 관한 조사연구' 참조

## 2. 각 국가 위원회의 차이점

가. 향유에 대한 국가별 관점의 다양성

- 각 국가들이 수월성, 창의에 유사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향유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영국의 경우, 향유에 대해 각 개인이 예술에 대해 고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시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미국과 호주는 문화와 참여에 대하여 개인 선택 영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유는 개인의 선택 여부이며, 향유에 있어서 예술 및 문화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호주와 캐나다는 원주민 등 다양한 인종, 민족 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유의 개념을 다양성의 조화로 해석할 수 있음

나. 예술 거버넌스의 차이

- 위원회 체도를 갖춘 국가들은 정부부처, 위원회, 예술단체 간 협력, 협상을 통한 의사결정이 기본적인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영국의 경우, 예술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영국 예술위원회 주도 하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술인, 예술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와 협상,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단일 대화(single conversation)를 진행하며 이를 통한 의사결정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거버넌스 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생태계를 도식화, 이론화하여 정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함. 이를 통해 예술정책 평가를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함으로써 정책 효과와 영향력을 산출하기 위한 평가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
- 호주와 캐나다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목표는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추진에 있어서는 영국과 미국의 거버넌스 체제에 비교하여 미흡함

## 제6장

### 문화예술 지원체계 발전방향

제1절 : 외부 전문가 조사

1. 문화예술의 개념
2. 미래에 예상되는 문화예술의 역할
3. 미래의 위원회 중점 추진사항
4. 미래 예술위원회 역할

제2절 : 문화예술정책 추진방향

1. 문화예술정책 개선방향
2. 개선시 고려사항

제3절 : 개선방안

1. 현 문화예술 지원체제의 문제점
2. 대안 제시를 위한 고려사항
3. 개선방안 제시

## 제1절 외부 전문가 조사

- 문화예술 지원체계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개별 면접 또는 필요시 서면조사를 병행했으며, 문헌조사를 통한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되었음
  - 외부전문가는 문화예술 종사분야, 장르에 따라 총 6명을 선정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를 다루는 기자(언론계), 지역문화재단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교수, 현장 기획자 등임
- 주요 질문은 **향후 문화예술의 개념,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화예술의 역할 및 미래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임
- 조사결과, 정확하게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미래 문화예술의 개념은 지금보다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예술 및 위원회의 역할은 다양하게 나타났음

## 1. 문화예술의 개념

-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향후 미래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문화예술은 기존 장르가 해체되고 장르 간 혼합, 새로운 장르 출현 등 다양성이 가미된 문화예술의 범장르적 추세가 나타날 것임
- 융합장르의 출현에 따라 순수와 대중예술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초예술과 문화산업 간의 구분적 접근 개념이 약화됨. 따라서 별개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술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 소비가 활성화 되면서 문화예술이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낳는 부가가치 창출형 활동이 커질 것임
- 장르의 해체와 더불어 문화다양성의 개념이 혼합된 문화예술의 영역이 확대될 것임
-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맞춤형 문화예술정책, 창의적 사고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 증대 등

## 2. 미래에 예상되는 문화예술의 역할

- 4차 산업혁명에는 미래의 중요한 핵심어로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사업으로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래사회에서 예상되는 문화예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기술적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창의적이면서도 감성기반적인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단순히 반복되는 업무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며, 반대로 창의력이 요구되는 감성기반의 일자리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업의 예술화, 생활 속의 문화예술에 관심이 증대될 것임
    - 산업의 예술화는 창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의 각 부분에 예술적 접근방법론이 스며들게 하는 것을 의미함. 예술에 기반을 둔 경영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흔히 일컫는 경영을 예술에 적용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예술경영’과 다른 의미임.
- 지방화 시대에 맞춰 지역에서 갖는 문화예술의 의미가 중요해질 것임. 현재에도 각 지역의 문화재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미래에는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예술 영역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지방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간 조화, 예술의 산업화로 변모하고 있음. 향후 생활문화, 일상문화로서 문화예술의 영역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내용 등 질적 측면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의 사회적 통합, 교육, 복지, 웰빙, 건강 등 전 분야에서의 역할이 중요시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임
- 미래의 문화예술환경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정책주체는 관에서 민간 중심으로 나아갈 것임. 다양한 지원주체 및 이해자들이 존재하는 복잡한 정책환경에서 이들 간 협력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시·공간적 격차 축소로 문화예술 지원의 현장 체감도 증대

- 현재 문화예술정책은 정부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에서 그만큼 체감도는 높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함
  - 지원사업과 예술현장과의 괴리, 단기 성과위주의 사업지향, 사업목표 대비 지원액 비율, 중복지원 및 필요한 지원 공백 등 그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3. 미래의 위원회 중점 추진사항

- 문화예술의 범위 확대에 따라 문화, 예술, 정보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계의 중장기적 변화와 대응이 필요함. 문화예술의 다양한 복합형식이나 장르출현으로 예술활동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있어야 함
  - 기초예술 분야가 기존의 제한적 범위에서 인문, 자연과학, 공학, 문화예술, 경영 등 이질적인 분야 간 결합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 간 결합을 통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
  - 감성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적 접근이 타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야 함
  - 문화예술과 타 분야 간 융합에 따른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기획, 제작, 제공방식의 혁신, 새로운 협업방식 등장, 경계 융합에 따른 초연결성 등의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적 감성과 창의력이 타산업분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토대 역할 필요
- 관객참여 및 이를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연제작·진행 집중 육성 필요
  - 모바일, 클라우드, IoT, 인공지능 기술 등의 적용, 공연장 외부 관객의 원격 참여 및 감상(모바일+클라우드+인공지능), 클라우드 공연의 활성화로 기획부터 작품제작, 감상까지 온라인 협업화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복합현실(MR), 홀로그램, 가상공연 등 ICT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공연의 물리적 한계성 극복
- 우선적으로 예술의 창조성이 극대화되고, 예술인(단체)가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장르의 칸막이를 넘어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형 창작모델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주도보다는 민간과 연계가능한 환경 조성이 바람직
- 급속도로 변화하는 문화예술계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행정과 현장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한 매개 역할이 매우 중요함. 민간의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 과감한 권한 위임과 함께 분명한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예술위는 기초예술 역할의 확대에 따라 문화산업 진흥과 더불어 기초예술의 훌륭한 유전자가 양산될 수 있는 풀을 유지하는 두 가지 트랙을 육성해야 함
- 지역기반과 연계하는 역할이 필요함. 지역문화예술 진흥으로서 지방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향후 위원회와 지역 간 협치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함. 위원회는 지역재단 등 각 지역의 예술지원 기관들의 역할에서 나타나는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함
  -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등 지역의 문화예술 유관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추진사업 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 기관 간 협치가 잘 되지 않고 정책이 추진됨에 따른 상충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생활문화로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이들 기관 간 유기적 연결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가 문제이며, 지역 간 협력체계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유지해왔던 예술위원회의 조정자 역할이 중요함
-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미래의 예술위는 빅데이터 등을 통해 사람들마다 자신에게 최적화된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부합하는 문화예술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취향의 고도화 작업이 가능함
- 향유지원이 단순히 문화복지로서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에서 인간의 창의력 계발을 위한 보편적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관객을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가미된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강화되어야 함. 수시로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위원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임

- 중앙정부는 일일이 지원사업에 관여하기 보다는 문화예술지원의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 재원이 왜 투입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국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함
  - 현재 문체부 기능 고려와 함께 산하기관 간 일정정도 통합이 바람직함
- 합의제 구조로서 컨센서스를 어떻게 모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현장의 의견에 맞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합의제 구조인 위원회의 독립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 독립성이 가장 중요함. 예산관련 문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기관장은 문체부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음

#### 4. 미래 예술위원회 역할

- 향후 문화예술지원은 지방화시대의 문화분권에 맞춰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창작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동종의 많은 유관기관들이 창작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속에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포지셔닝을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향유사업의 대부분은 우수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확대보다는 경제적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복지적 성격이 강함. 향후 위원회는 설립목적을 고려할 때 문화복지적 사업보다는 창작지원사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창작지원 관점에서 예술위의 핵심적 역할은 국민 모두를 위한 우수한 예술로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임. 즉 무명작가 또는 무명 예술인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우수작품을 발굴해 내는 것임
    - 기존의 예술성을 인정받은 유명 예술인(단체)는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민간 등의 영역에서 서로 지원 하려고 함
    - 따라서, 예술위는 우수한 작가 및 작품 발굴을 하되 기존의 유명작가 보다는 무명 예술인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을 유명 예술가로 양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재원을 고려할 때 지역단위에서 할 수 없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과감히 지원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작품을 양산, 국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게 예술적 감흥을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함
  - 우수 작가 또는 작품들을 세계화(국제교류) 사업과 연계하고 그 파급효과로서 시장형성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동 사업은 예술위원회 역량을 고려할 때 이 기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타 기관과 차별성이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임
- ☐ 지원사업운영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1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 단년도 성과위주의 지원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문화예술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lt;표 6-1&gt;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예술위원회의 역할

주제	내용
문화예술의 개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장르의 해체, 범장르적 혼합, 융합 등 개념의 확대</li> <li>○ 기초예술과 대중예술 간, 기초예술과 문화산업 간 경계 모호</li> <li>○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낳는 부가가치 창출형 활동의 증대</li> <li>○ 문화다양성 개념의 대두</li> <li>○ 지역별 문화예술진흥정책, 창의력 증진강화를 위한 교육영역 연계 강화</li> </ul>
미래에 예상되는 문화예술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력이 요구되는 감성기반 일자리 확대, 산업의 예술화(예술기반경영)</li> <li>○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예술영역 대두, 지방의 역할 강화</li> <li>○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간 조화, 예술의 산업화</li> <li>○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li> <li>○ 정책주체의 변화(관→민 중심)</li> <li>○ 문화예술지원의 현장 체감도 증대</li> </ul>
미래의 위원회 중점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활동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추진</li> <li>○ 관객참여,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연제작지원 및 집중육성</li> <li>○ 협력형 창작모델 지원 등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li> <li>○ 현장과 괴리 방지를 위한 매개역할 강화</li> <li>○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인력 풀 유지와 문화산업 연계 강화</li> <li>○ 지역기반과 연계하는 협치 역할</li> </ul>

주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유자, 관객중심의 문화예술활동 서비스 제공</li> <li>○ 문화복지에서 보편적 문화향유로 대상 확대</li> <li>○ 정책결정과정의 현장전문가 참여통로 확대</li> <li>○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작업 확대</li> <li>○ 컨센서스 도출을 위한 합의제 구조 정착</li> </ul>
위원회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지원사업 강화</li> <li>○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명작가 또는 무명 예술인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우수작품을 발굴</li> <li>－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작품 발굴</li> </ul> </li> <li>○ 1년 이상의 장기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li> <li>○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강구</li> </ul>

## 제2절 문화예술정책 추진방향

## 1. 문화예술정책 개선방향

- 위원회 제도를 갖춘 국가들의 문화예술 지원 거버넌스는 정부부처, 위원회, 예술단체 간 협력, 협상을 통한 의사결정이 기본적이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들 국가들은 오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팔길이 원칙에 기반하여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의 미션과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효과적인 기능배분과 조정을 통해 예술인들의 자율적인 창작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및 산하기관들의 기능 조정 및 문화예술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특히 최근 불거진 블랙리스트 등 문화예술계와의 공존을 위해서는 정부 문화예술지원체계에 변화는 필수적임
- 문화정책 거버넌스/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는 1)경제성과 효율성, 2)통합성과 융합성, 3)자율성과 독립성의 3개 원칙에 따라 재편되어야 함

## 가. 경제성과 효율성

- 복지수요의 급증과 저성장으로 인한 재정부족에 대비하여 중복 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유사한 사업들을 연계하여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야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설계되어야 함
  - 사업 중복성, 행정관리 효율성, slim and flexible 조직(규모),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지원체계의 주요 원칙으로 활용되어야 함
- 현재 문화부 산하에 존재하는 다수의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들은 소규모 다기관 형태로 칸막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 및 역할중복 등 업무의 비효율성이 높음. 이러한 연유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들 간 통합을 추진했었음
- 따라서 문화예술위원회 중심의 통합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예술지원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과의 통합 등의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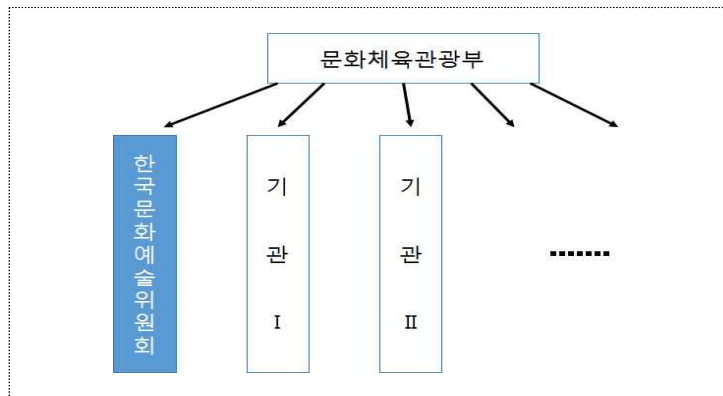
## 나. 통합성과 융합성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문화예술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왜냐하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향후에는 개인의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생산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성이 강조되면서 문화예술의 가치가 더욱 더 강조될 것이기 때문임
- 예술가와 향유자 간의 거리는 더 좁아지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은 문화예술 분야의 수요와 공급의 조정을 촉진하여 예술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예술이 만들어 지는 창작 과정이 새로운 예술 분야로 등장할 수도 있음
-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고 유통과정에서 창의성 발현도 가능해 질 것임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융합적 문화예술활동,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문화예술활동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문학, 공연 등 개별 장르별로 지원되던 패턴에서 벗어나, 여러 장르를 창의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효과성, 장르별 융합성, 사업지속성 등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원칙으로 활용되어야 함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일반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측되며 제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융복합이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서도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원방식의 융합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함
- 특히 장르간 융복합에 따라 새로운 장르가 나타날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 지원방식이므로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융복합에 의해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예술 장르 지원을 예술위원회로 단일화하면서, 새로운 장르가 다른 매체나 기술을 도입하여 융복합 장르를 탄생시키는 경우, 예술위가 그와 관련된 매체,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야 할 것임

### 다. 자율성과 독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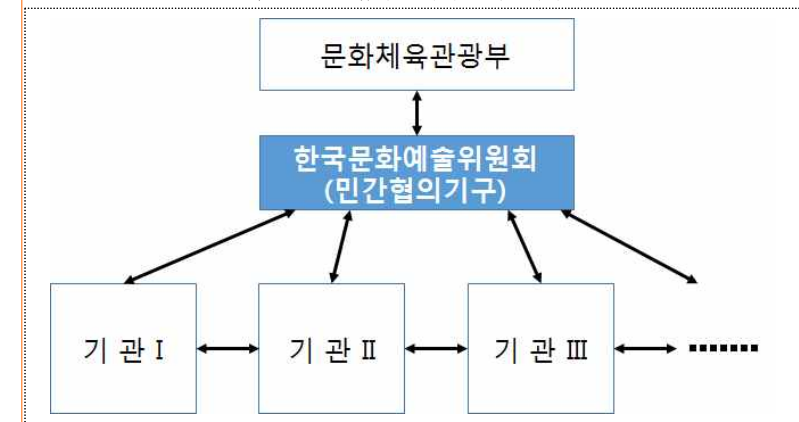
- 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 공통적으로 팔길이 원칙에 기반하여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순수예술 분야는 경제적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미래 영향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공공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음
-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의 창의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함
  - 고객지향성, 독립성(팔길이 원칙,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음), 거버넌스, 옥상옥(사업추진체계 효과성)
- 현재의 체제는 다음의 [그림 6-1]에서 나타나듯이 문화부가 예술위원회를 지휘감독하면서 동시에 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다른 기관까지 동시에 지휘감독을 하는 옥상옥 구조임

[그림 6-1] 현행 문화예술지원 체제 구조



- 이러한 옥상옥 구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림 6-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부는 예술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국고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관계를 가지고, 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되는 다른 기관들에 대하여는 문화부가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구조가 바람직함

[그림 6-2] 통합적 문화예술 지원체제 구조



- 특히 현재 문화예술위원회는 당초의 합의제 취지와 달리 정부의 영향을 받아 예술계를 통제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음. 문체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대상이 예술정책임을 감안할 때 문화예술위원회는 문체부의 권력과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예술가와 일반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체제로 개편되어야 함

## 2. 개선시 고려사항

- 문화예술 지원체제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규모의 경제, (2)선택과 집중, (3)지원의 형평성, (4)현장예술인의 참여 등의 원칙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규모의 경제) 현재 산하기관 간 업무 연계구조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지나치게

분절화되어 있음. 기관을 더 분리하기 보다는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융합과 통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기관에서 전반적인 문화예술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작품의 선택과 집중) 통합적 관리체계 하에서 우수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효과적일 수 있음. 특히 컨트롤타워 관리유형의 지원체계를 선택할 경우 기관 간 사업의 수평적 협력가능성과 고객지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 지원에서 확산까지 발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창작지원의 형평성) 창작지원의 다양성 역시 기관별로 소액 다건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통합관리 지원함으로써 중복지원을 줄이고 더 많은 작품에 지원할 수 있음으로서 지원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현장 예술인 정책결정과정 참여 및 반영도) 통합적 관리체계 하에서는 현장 예술인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통일되고 의견수렴 및 조정이 일원화 되어, 실질적인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이들의 요구가 빠르게 통합·반영될 수 있음